

뉴 비 전 교 회 계 간 지

New Vision

통권 243호 SUMMER 2020





꼭 간직하며 나아갑시다

100일 이상 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건강과 생명의 우선순위 앞에 모두의 일상생활이 변했습니다. 사회적 격리와 행동제한, 경제적 타격까지 감수하며 지내온 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백신개발과 치료제 개발이 시간을 다투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Reopening이 활발하게 시작되며 다시 정상적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가 보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지나온 3-4개월의 어려운 시간을 통해 얻은 귀한 것들을 간직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손씻기와 죄씻기: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는 우선적 행동지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몸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위협하듯,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바이러스가 영혼과 삶을 해치고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죄의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삶과 영혼을 자주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씻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회개의 기도와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신앙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이기 힘쓰기: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어색함과 불편함이 있었지만, 여기에 적응된 모습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예배에는 개인화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나에게 편하고 선호하는 것을 더욱 추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만나서 부딪치고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함께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

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더욱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섬기기를 사모하고 실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Ministry 사역의 확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사역하며 Ministry 사역의 장이 넓혀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참여하는 분들이 생겼고, 우리 교회 사역이 온라인으로 찾아가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며,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분들도 주님에게, 그리고 주님의 교회로 초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배우고 익히기 시작한 Virtual Ministry가 더욱 개발되고 향상되어 복음의 도구로 쓰여지게 합시다.

변함없는 주의 은혜: BC & AC 라는 새로운 용어가 소통되는 것을 봅니다. Before Coronavirus & After Coronavirus (코로나바이러스 전과 코로나바이러스 후) 라는 뜻입니다. 911 테러사건 이후 많은 변화가 생긴 것처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많은 변화가 New Normal (새로운 표준) 으로 자리매김 합니다. 그러나 변하는 세상에서 변할수 없고 변질되어서는 안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우리 신앙입니다. 은혜 안에 살고,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만을 더욱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베푸시고 영광받으시는 주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더욱 깊고 역동적인 신앙을 변함없는 주의 은혜 가운데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 **이진숙** 올림

New Vision

SUMMER 2020

통권 243호

하나님의사람들을세워세상을변화시키는교회
Building God's People to Transform the World

발행인 | 이진수

지도목사 | 김성호

출판임원 | 조태범

편집장 | 배난모

편집팀 | 이영숙, 최영수, 박영미, 이지연

이민기, 윤미영, 최희주, 정재오,

김원철

디자인팀 | 류양희, 박성민, 이수잔, 박현주

발행한 곳 | 뉴비전교회

New Vision Church
1201 Montague Expressway
Milpitas, CA 95035
408.719.0000
www.newvisionchurch.org

New Vision은 뉴비전교회 잡지로 일년에 4번 계
절별로 출판되며 성도의 교제와 전도의 목적으로
성도 여러분들의 글과 그림, 사진으로 만들어집니
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느끼
시고 경험한 내용을 시/수필/간증문 등으로 자유
롭게 쓰셔서 예배사역원 메일함 또는 배난모 집사
(nvpublication@gmail.com)에 이메일로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이 중 선별하여 뉴비전호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내에서 믿음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분이나, 좋은 모임, 또는 알고싶은 사역에
대한 취재를 요청 하실수도 있습니다. 본서의 글,
사진, 그림은 뉴비전교회의 소유이며 사전 허락없
이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 Vision Church 2020
All rights reserved.

ON THE COVER

[사진 | 송경원]



Contents

2	담임 목사 칼럼		이진수 담임목사
3	목차		
4	선교	선교지에서 온 편지: 브라질	권오성 선교사
7	선교	An American Dream	James Park
9	사역팀 소식	운영사역팀	방경모
10	목회자 칼럼	오월에 돌이켜 보는 가정	이지춘 원로목사
12	교회행사	2020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최성신
	교회행사	신약 1독을 위한 온라인 1일 캠프!	
16	간증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김일영
17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기쁨	정지윤
18		나에게도 역사한 복음의 말씀	정찬영
19		친구에게 전한 복음	김정임
20		아들에게 전한 가장 귀한 소식	황애자
21		감사가 넘치게 해 준 전도폭발 훈련	박정하
22		병사가 총알을 채우듯 복음으로 무장하며	강미미
23		첫번째 전도대상자	정상규
24		복음, 나누어 주고 싶은 가장 좋은 선물	윤미영
25		잃어버린 양들의 귀환의 기쁨	최윤숙
26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김경애
27		뉴비전에서 받은 최고의 교육	최훈
28	목사님 궁금해요	목회자로서의 부담	이진수 담임목사
29	우리 가족은요		이정우
30	여행에서 본 기독교 (3) 대영박물관 Part1		김원철
34	영화로 만나는 고전 (14) 노트담의 꼬추 Notre-Dame De Paris,		안재규 목사
36	성경 퀴즈	도전! 성경 퍼즐	출판팀
37	사진으로 보는 뉴비전	Before & After COVID-19	
38	향수	예수님의 노래들 131편	향수팀



선교지에서 온 편지
브라질

글 | 권오성 선교사

4/3/2010

4/7/2010

살롬!

뉴스를 보니 지금 미국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충만한 은혜가 뉴비전 교회의 모든 분들께 가득 넘치길 기도합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여 연락을 드립니다. 막내 사무엘이 2주 전부터 고열과 심한 기침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숨을 못 쉬어서 산소 호흡기가 필요한 사람들만이 병원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하게도 막내는 거의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데, 둘째 솔로몬은 오늘로 6일째 심한 기침과 고열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기침과 고열이 더 심해져 잠을 못자고, 숨을 쉬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내일이 최고의 고비인 것 같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장기간 고열과 지속적으로 기침을 쉬 새 없이 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 없이 걱정이 될 정도로 참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많이 지쳐 있는 제시카 선교사도 오늘로 3일째 심한 두통과 고열로 고생을 하고 있고, 저도 4일째 아주 심한 두통과 근육통, 숨을 쉴 때 통증을 느낍니다. 땀기열에 두 번 걸려서 2주간씩 꼼짝 못 하고 심한 통증으로 심히 고생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네요. 하루종일 저희들을 필요로하는 아픈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저희들의 아픈 몸이 피곤함으로 잔뜩 쌓여가며 육신적으로 지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 모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건강한 육체와 이 와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큰 아들 다니엘은 고열에 기침을 조금 하더니 지금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감사하구요. 저희 온 가족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롬..!!

둘째 아들 솔로몬이 지난 이틀을 아주 힘겹게 보냈는데, 오늘 아침부터 안정을 찾았습니다.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심한 기침을 하고 기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음식을 먹을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시카 선교사는 어제 저녁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너무 기뻐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다시 열이 나고 두통이 재발하고, 몸에 기운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숨 쉴 때 느꼈던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뒷머리와 어깨 부분의 통증이 아주 심합니다. 저와 아내의 상태는 아이들이 겪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막내 사무엘은 완전히 회복이 되었고, 큰 아들 다니엘도 건강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응원해주시고, 용기주시며 보내주신 메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가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넘치길 기도합니다.

4/13/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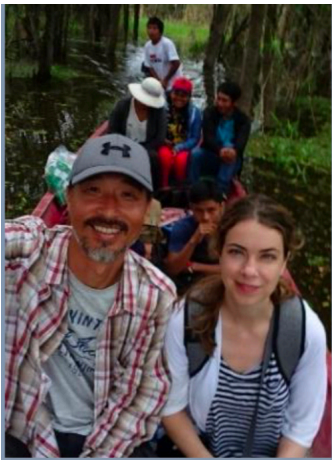
기쁜 소식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온 가족도 은혜 가운데 부활했습니다. ^^ 할렐루야!

이제는 그동안 많이 빠진 체중과 기력을 빨리 회복하도록 제시카 선교사와 솔로몬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강한 보호하심과 치유하심이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히 넘치도록 저희들도 간절히 함께 중보 기도합니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아마존

글 | 권오성 선교사



살롬!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마존 선교의 동역자 되시는 뉴비전 교회의 모든 분들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안식년을 맞아 영국에 와서 선교학 공부를 시작한 지 벌써 한 해가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엔 아내 제시카 선교사와 아마존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거둔 열매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웠던 동역자들을 다

시 만남으로 누린 감동과 큰 기쁨은 글로는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뜨거운 열기에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높은 습도에 숨을 들이 마시기가 어려웠지만 카누를 타고 더 깊은 정글로 곧장 향했습니다. 원주민 마을들을 찾아가 기쁨의 인사를 나눈 후, 감사와 찬양 예배를 드리고, 심방하고, 위로하고, 전도하고, 세례와 성찬식을 인도하는 등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치유 사역... 심한 가슴 통증에 호흡이 곤란한 원주민 할머니를 기도해 달라는 아들의 부탁을 받고 급히 찾아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치유하셨고, 양쪽 발 감각을 잃은 지 오래됐는데 하나님께서 감각도 정상적으로 돌려주셨습니다. 함께 있던 두 딸들과 이웃 아주머니도 지켜보고 있다가 희망이 담긴 목소리로, 본인들도 오랫동안 가슴과 다리 통증으로 심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해서 믿음 가운데 기도했는데 모두 치유가 되면서 온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식이 전파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

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뿌린 씨앗의 열매... 4년동안 제자훈련을 받던 찌꾸나 부족의 청년 조니와 마치스 부족의 청년 푸미를 2014년부터 정식 신학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세 분 (김원철 집사님, 신희태 집사님, 박인화 집사님)의 헌신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의 헌신적인 기도와 장학금 후원을 통해 이들이 더욱 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돌아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인내하며 씨앗을 뿌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그분들의 삶과 가정에도 항상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적응하기 힘들었던 도시 생활과 여러 상황들, 특히 향수병과 어려운 학업은 몇 번씩이나 그들을 포기하게끔 압박을 가했지만 모두 이기고, (사실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온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로 기쁨 부음을 받고 아마존 본인들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조니 목사님은 작년 말에 돌아와 사보네찌 인디오 신학교에서 90여 명의 학생들에게 한 달간 말씀을 가르쳤고, 그 후 데레그네 마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지난 5월부터 교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푸미는 이번 8월에 목사안수 받고 아마존에 오는 것을 공항에서 기쁜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푸미 가족과 우연히 추장과 리더들을 함께 만나 푸미의 사역 계획을 나누기도 했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기대가 큼니다. 푸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마치스 부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건축... 조니 목사님이 Deregune 마을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며 작은 집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다가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모임 공간이 부족하여, 김대현 장로님의 도움

으로 올해 5 월부터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힘을 모아 하루가 넘게 걸리는 거리에서 카누로 무거운 건축 재료들을 수십 번을 운반하고 전심을 다하여 건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축 재료들을 운반할 때 카누가 몇번을 뒤집힐 뻔 했던 일들과 재료 운반하는 것이 한달간 걸리면서 너무나도 힘들어 건장한 형제들까지 여러 명이 몸살이 나서 고생을 했지만, 서로가 위로와 기도로 이겨내고, 세워질 교회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아 다시금 힘을 냈다는 간증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었던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 한가지 해결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된 Dumu 형제는 아내가 4 명이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지금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평생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교회건축을 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래과 벽돌을 나르며 봉사를 하다 예수님을 영접한 형제입니다. 전에는 그것이 잘못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그것이 잘못임을 알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말씀이 제시하는 답으로 해결을 하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 해야할지 도움을 구해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축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말라리아에 걸려있고, 아내분이 사고를 당해서 당분간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다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침례식... 이번 여행에서도 하나님께서 침례식을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팔리아 교회에서 3 명의 성도에게 침례를 베풀었는데 그중 한 사람은 2011 년도에 마유루나 부족의 라고 그란지 마을에 교회를 세울 때 반대를 하며 저를 핍박했던 추장인데 얼마 전 거의 죽어가던 아내가 기도를 통하여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얼마나 기뻐하던지 기쁨으로 저를 강하게 끌어안고 감사하다며 환하게 웃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언제나 기도 가운데서 만나뵙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9월

권오성, 제시카, 다니엘, 솔로몬 & 사무엘 선교사 가족 올림.

(이메일 주소: ninakupenda@hanmail.net)



SEED ACADEMY

Seed
Homework Club

AN AMERICAN DREAM

글 | James Park



One of seven children, my dad was born in the Korean countryside to a poor farming family. He was smart enough and lucky enough to go to high school in the city, and then go to university. After marrying my mom, he came to the United States, in search of a better life and more opportunities. But of course, they struggled. The language and culture were very different. At times, they didn't have jobs and we got by on very little. But they had hope. My parents hoped that the sacrifices they made would ensure a better life for their children.

And it has. As I grew up in the United States, I got used to seeing other children having more than I did. I learned to navigate fitting in to the society and culture around me that was so different from my culture at home. It wasn't easy, but I managed. I managed to go to a good college, get a good job and purchase a home. I've been very lucky. God has been good to me, and it's amazing how much has changed since my grandparent's generation. Living in America is part

of what made it possible. And that's the American Dream: that anyone, regardless of where they were born, has the opportunity to achieve success.

I'm sure you have all come to America with that hope too: that America is a better place where you can build a better life. And also, I'm sure you're familiar with the struggle of adjusting to life here. The refugees we serve as part of NVC's refugee ministry, like all immigrants, go through the same experiences. They also have come to America hoping for a better life.

Often refugees come to the US to escape dangerous situations in their home countries. They come from places like Afghanistan, Eritrea, and Sri Lanka, where they faced violence and persecution because of their ethnicity. These countries are still recovering from recent or ongoing civil wars, and the families know what it is like to feel unsafe in their own countries. They left the place they called home because their lives were in danger.

But the beautiful thing is that when the children



come to Seed Academy, they're able to learn freely. Though they may have been mistreated because of their ethnicity in their home countries, the refugee children all learn together, as friends and as equals. Something I'll never forget is playing in the playground with the little ones. They love the swings, and they all want me to push them. So I ran back and forth, push, push, next child, again and again. It must have been a strange sight! Yet it also felt very natural, like we were one big multicultural family, and we were all having fun together. I think Jesus has made that a possibility for us: "There is neither Jew nor Gentile, neither slave nor free, nor is there male and

female, for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Gal. 3:28 NIV). Just as Jesus united Jew and Gentile, "and has destroyed the barrier, the dividing wall of hostility," (Eph. 2:14) between the two through the cross, He has removed the barrier between all races.

We are one united humanity. And as immigrants, we have had similar struggles. And we all hope in that same American Dream. In light of recent events, however, it has become clear that some people have a much harder time achieving that dream than others. It breaks my heart to know that our refugee children who have escaped violence in Africa, may face violence and mistreatment here in the States. It's not fair. The US was supposed to be their place of refuge. I pray and I hope that things change. I pray that the heart of the people and this nation changes, so that these children, and all children, may have just as good of a chance at achieving the American Dream as anyone else. 🙏



운영사역팀

글 | 방경모

제가 운영사역원을 2019년부터 섬기면서 주변 성도님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운영사역원이 무엇을 하는 곳이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히 어떤 사역을 하는 곳인지 자세히 모르고 덜컥 섬기게 되었으니 설명이 제대로 될리가 없었지요. 해서 여전히 궁금해하시는 성도님들과 혹시라도 마음에 두어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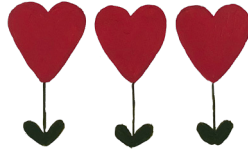
운영사역원에는 크게 세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반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부분, 그러니까 교회 전반적인 사무, 교회 절차와 세칙, 교내외 행사, 보험, 차량 관리, 보안 및 안전을 관리하고 지원합니다. 두번째는 바로 인사 (HR) 부분입니다. 목회자와 임직원의 채용, 복지및 경비 처리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참고로 목회자의 신규 채용은 사역원이 아닌 인사 위원회에서 말합니다. 세번째 역할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공동체에 대한 행정 지원입니다. 4개의 장년 공동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안나 공동체, 디모데 (대학청년부) 공동체를 섬기시는 목사님, 간사님들과 함께 여러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써놓고 보니 여러 사역의 내용이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섬기다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사역 범위도 넓고, 반복적인 일도 많지만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건과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어느 사역원에서 말아야 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사역은 일단은 운영사역원으로 와서 제 갈 길을 찾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원 이름처럼 운영(運營)의 묘(妙)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묘(妙)라 함은 우리의 생

각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주님의 경륜과 지혜를 간구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야 겠지요.

항상 유머를 곁들이면서도 명확하고 합리적인 리더이신 유상원 사역원장님과 젊은이보다 더한 열정과 세심한 경륜으로 섬겨주시는 변정희 권사님, 홍수경 집사님, 그리고 딱 부러지는 일 솜씨를 술선수범 보여주는 신준균 집사님과 벌써 사역 2년차로 접어드는 제가 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호 목사님께서 운영사역원을 말씀과 기도로서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사역만을 놓고 보면 행정적인 처리와 관리 등의 일이 많아서 인지 때론 일에 대한 해결에만 초점이 가게 되고, 사람을 공적인 관계로만 보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하고 경계하며 기도합니다. 사역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게 하시도록 말씀 공부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2020년도 사역원이 되기를 소망하며 위의 사역에 관심있는 성도님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골 3: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월에 돌이켜 보는 가정

글 | 이지춘 원로목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도 자유롭지 못한데 기회요초가 만발한 오월이 성큼 다가왔다. 한국의 오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미국에는 어머니날이 있어서인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엡센스 국어사전은 “가정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혈연 관계자가 함께 살고 있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으로 정의한다. 잘 정리된 정의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77억의 세계 인류사회도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시고 부부로 짝지어 주신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로서 인류 사회와 역사의 근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이 생기기도 전에 죄를 범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는 깨어졌고, 그 가정도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고백하며 아내를 사랑하던 아담은 아내를 다스리는 남편이 되었고, 하와는 남편을 사모하는 아내가 되기까지 깨어진 가정이 되었다. 그들의 후손들도 역시 서로 시기하고 죽이고 죽는 깨어진 관계가 되었고, 그 후로 인류는 계속 깨어진 가정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것이 인류의 역사다. 지금도 그렇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따라 많은 사람이 예수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완전하게 타락한 육신의 죄의 성품을 벗어 버린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사도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은 참으로 곤고한 자라고 탄식한다 (로마서 7:18-25).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온전한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온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가정 안에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 서로 싸우며 불화할 때가 종종 있다. 심한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파산하는 가정도 있다.

그러나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탄식하던 바울 사도가 끝이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13-14)”고 권고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길은 파멸의 길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의 정욕과 싸우며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승리하며 살아야 한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며 축복의 길이다. 특히 가정을 온전한 가정으로 유지하고 자녀들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키워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도 더욱 그렇다,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특히 미국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더욱 어렵다. 대부분 사람은 결혼생활이나 자녀교육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지식이 없이 결혼한다. 결혼한 후에도 이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훈련을 받는 경우도 많지 않다. 더욱 이민 일세들은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한다. 가족들과 깊은 대화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몸도 피곤하다.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도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이 매우 어렵고 자녀들과의 관계는 더욱 그렇다. 자녀들은 미국 문화 속에서 미국을 배우며 미국 언어에 익숙하게


자란다. 그래서 외모는 한국 사람이라도 속사람은 미국 사람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언어 장벽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높아지고 두꺼워지기만 한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깊은 대화가 꼭 필요하지만 그리 쉽지 않다. 사실 대부분의 한국 이민가정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민 1세의 가정은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많은 오해와 갈등으로 불화한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별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지 않고 지나가지만, 자녀들이 장성하여 자신들의 삶을 살게 되면, 부모와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지고 때로는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이 표면화되어 심각한 감정대립과 적대감으로 치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우리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이민가정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은 “아 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5:22-6:4)”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한다면 분명히 온전한 가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하여 이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야 한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최선의 길이며 하나님의 처방이며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인생은 앞으로 살날을 보면 아득해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순간이다. 모세가 “우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10).”라고 한 고백은 진리다.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결혼해서 오십 년 살면 금혼이고, 금혼이 지나면 황혼이다. 자녀들도 대학 가면 집 나가고, 제삿 만나 가정을 이루면 저 살기에 바빠 부모와는 소원한 관계가 된다. 아들들은 더욱 그렇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지는 속상한 일들만 보고 너무 안달복달할 것이 아니라, 인생을 멀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과 사랑을 주고 받으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반백 년이 넘는 미국 이민 일세의 삶을 살고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아직 자녀들을 양육하는 젊은 부부에게 권면한다면, 자녀들을 너무 지나치게 야단치지 말고 대신에 어려서 부터 자녀들과 함께 아름답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고, 많이 안아주고 칭찬해 줄 것을 권한다. 이것이 자녀들이 부모를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부모를 많이 그리워하게 하도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가져오게할 것이다. 아내나 남편에게 미안했던 것들은 황혼에라도 보상할 수 있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미안했던 것들은 대부분 황혼에도 보상할 수 없다. ❏

뉴비전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지춘 원로목사



부활절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
2020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글 | 최성신

광야와 겻세마네, 십자가와 무덤……
그 모든 것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해 한 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십자가의 크기가 자라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달랐다. 특별했다.

이번 2020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는 교회 본당이 아닌 집에서 드렸음이 달랐고 목회자들과 성도들 모두는 공중 예배의 소중함과 그리움을 안고 인터넷 생방송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단연 특별할 수 밖에 없었다. 이유는 전례에도 없었던 코로나-19의 위협적인 요소들로 인해 예배의 방법이 달라진 것이다. 예배의 방법이 달라졌다면 예배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

이진수 담임 목사님은 이 기간 동안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일곱 표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물이 포도주로… 중한 병에서 회복으로… 심판에서 생명의 부활로… 부족함에서 풍족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내용을 바탕으로 매일 새벽 주안에서 호흡하며 묵묵히 자아의 빗장을 풀게 하시고 심령의 문 앞에 서있는 교만이라는 고약한 문지기도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지어졌던 십자가 앞에서 초라하게 감취질 수 밖에 없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끄셨다.

새벽 기도회가 끝나는 아침이면 여지없이 창조주의 피조물들을 만나러 뒹 뜰로 나간다. 생명이 생명들을 만나는 장면은 감동하면서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다. 금빛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태양의 기운으로 새들은 각자의 지저귀음으로 자연의 멜로디를 작곡한다. 세상의 어지러움을 외면한채 분량의 흙을 곱게 갈아주는 외골수 지렁이의 수고, 푸른 잎사귀들 사이사


이에서 불까지 마중 나오는 싱그러운 바람과 구름…
주 앞에서 나의 영은 덩달아 유치하게 까분다.
예수님은 받아 주신다. 나의 영은 재질 거리기도 한다.
쏟아없는 소리들. 이 또한 귀찮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에덴동산에 서 있는 나. 잡념과 우울과 걱정이 치유의 코스를 거친다. 회복과 기쁨과 감사를 매일 새벽 매일 아침 발견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오 예수~ 나의 손 잡아 주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귀한 그 ~ 이름………….’

토요일 새벽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부활의 생명을 소망한다. 하지만 부활의 생명을 훼손하는 무리들이 보인다. 죄, 게으름, 절망, 불신, 두려움과 사망. 과감하게 단호함으로 십자가에 맡기고 뒤 돌아보지 않기로 해볼까. 때로는 내 삶이 영겨진 실타래 마냥 처음과 끝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다. 덩그러니 홀로 세워져 있는 나. 텅 빈 무덤 곁에 서서 그 두려움과 절망에 압도되어 한탄만 할 것인가… 눈물을 닦고 일어나 빛이 있는 쪽으로 나와 부활하신 나의 주님을 만날 것인가… 하나는 택해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버려야만 한다.

나는 주의 선하심을 믿는다. 이로써 나의 하루 하루가 바뀌고 삶이 바뀔지니 부활의 생명을 십자가와 함께 품는 주의 아래에 “특권자”로 살아갈 것이다. 이 소망을 청명한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 드리고 싶다. 생명이 생명의 주관자에게 구하는 또 하나의 소원. ‘주여, 단잠을 잘 수 있는 축복을 오늘 밤 허락해 주소서!!!’

부활의 소망이 이뤄지는 이른 아침까지 밤 새 성장통을 겪은 나의 영. 새 영으로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 24:13) 

신약 1 독을 위한 온라인 1 일 캠프!!

한 번도 안 해 본 성도는 있지만 한 번만 해 본 성도는 없다!!
신약 1독을 위한 온라인 1일 캠프!!

지난 5월 25일 메모리얼 데이에 온라인 상으로 성도들이 만나 함께 성경을 읽는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한 성도들은 입을 모아 함께 말씀을 읽는 기쁨에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남편도 애들 다 챙겨주고 밥도 챙겨주고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싶단 생각을 한번씩 했었는데요. 머리에 바로 내용이 안 와닿는 구절은 따로 공부하면서 읽어야겠다 생각을 했구요.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성정아-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다 왔네요. 내 모든 지체들을 칭찬해 줘야겠어요.

-최리사-

지난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일곱교회가 받은 칭찬이 내 삶의 열매가 되길 사모했는데요. 오늘 신약 통독을 통해 마23:23에서 의, 신, 인 (justice, mercy, faithfulness)을 키워드로 주시고, 막9:24. 귀신들린 아이 아버지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를 읽으며 제 자신의 참 모습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약통독이라는 한 푼대를 향하여 동역자들과 마음을 함께 한 오늘이 제겐 비상의 날개 단 날이었습니다.

서은영-

처음으로 하루만에 신약을 모두 읽어보는 하루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해방되고 종일 성경말씀만 붙잡고 주님과 같이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이 가기 전 드려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읽었습니다.

-이선우-

성경 읽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새벽에 같이 부른 찬송가 199장에 나오는 어머니같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차부성-

저의 사명, 전도 사명을 재충전하였습니다. 한국 가족이 하나되어 예배 보는 일,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 읽는 중에 저의 가족 중 우상숭배의 끈을 떼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의 궤도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최윤자-

메모리얼 연휴, 목장에서 야외 예배 드리며 하루를 보내다가 온종일 성경통독 하려고 한가지 목적에만 전심 전력을 다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성경 보느라 침침해져오는 눈의 상태 긴 시간 책상에 앉았더니 종아리가 탕탕해져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추억 만드는 은혜의 시간 완주함에 감사드립니다.

-이현일-

29년 전 받았던 시력 교정 수술의 실패로 가까운 글자가 보이지 않는 오른쪽 눈이지만 돋보기를 끼고 왼쪽 한 눈으로 하루종일 성경을 읽도록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돋보기를 꺼도 흐릿해서 한 눈으로는 책을 오래 읽지 못하는데...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유지민-

부름을 받았는데 왜 부르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마가 15:34 읽을 때는 제 마음도 함께 십자가를 안고 눈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은희-

남편과 소파 양쪽에 정지 화면처럼 앉아 아멘 소리 나면 서로 어느 성경을 마쳤는지 정도만 확인하고 집중하며 읽었습니다. 참 특별한 경험 재미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더 깊이 묵상해야겠다 다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지영-

결국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나를 살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지원-

저를 훈련하는 시간이었고 자신감을 갖게 된 시간이었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여 생활로 살아내고 싶은 새로운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장영미-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교회 가족들과 함께여서 끝낼 수 있었어요. 부족한 자에게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늘 기억하겠습니다.

-정영경-

구약도 통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김연-

오직 말씀만이 길ियो 진리이며 살 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홍성권-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심은 귀한 종 조이스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약속 믿습니다. 아니 벌써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모든 분들 함께 해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수연-

오디오 듣지 않고 신약을 한자리에서 읽은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김성호-

신약일독을 통해 주신 은혜가 큼니다! 내 인생으로 치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씀의 달콤함과 늘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에 더 자주 나아가는 제가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김종간-

획기적인 권면으로 말씀잔치에 동참케 하셔서 덕분에 손만 뻗으면 쉽게 볼 수 있던 성경을 드라마만큼이나 애정을 품고 보지 않았던 완악한 제 마음을 깊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기쁨으로 함께 완주해주신 복음의 마라톤너들을 축복합니다.

-한리리-

더 겸손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읽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God is good and really King of Peace.

-홍혜민-

저는 예전부터 계획했던 예수님 생애와 바울서신서를 큰 시각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살을 입혀가며 더 읽어야겠습니다.

-송미혜-

Thomas 도 어제 하루종일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생각보다 얼마 아빠가 하는 성경공부에 흥미를 갖고 조인하고 싶어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박윤진-

커피와 간식까지 챙겨준 남편과 아들에게도 감사해요. 어제 하루종일 골방에 홀로 앉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주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이영의-

야고보서를 읽는 동안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 깊은 찔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의 삶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대앞에 가는 날까지, 늘 새기고 실천하라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김지연-

I finally finished listening to the New Testament. I have so much respect for everyone who READ the whole NT in a day or two.

Song Msn, thank you again for this rare opportunity. After listening to the whole NT in 2 days, I am filled with a righteous fear because I want to make sure that I obey His will at all times in everything.

I can't thank everyone enough for your prayers on my behalf. You are my family and friends. Thank you, ps. Soo, for trusting that God will heal me. I too am filled with faith for His healing touch.

Thomas, I can't believe that you read the whole NT in one day! I'm so proud of you. I believe that God has a very special plan for your future!!

-Joyce 정-

제가 이 캠프에 참여하지 못하는 개꿈을 꾸었는데, 현실에서는 마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김복희-

이번 처음의 신약 일독으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홍기출-

성경공부 1단계를 수강하던 초보자가 무식해서 용감하게 1일 캠프 신청을 해서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보다는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잘 느끼게 해주시고 앞으로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기회인것 같습니다. 진도에 치여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넘어간 적도 많고 집중이 안되어 같은 구절을 몇번이고 다시 읽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캠프를 신청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3일동안 최선을 다해 시간을 들여 신약 통독을 마쳤습니다. 여담인데,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막 읽는 와중에 정전이 되어서 플래쉬를 켜고 읽기를 마쳤네요.

- 강문식

말씀 읽는 동안 잠적해있던 형제들간의 종교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찰같은 친정집을 기도원과 교회 예배당으로 바꾸자는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담대한 복음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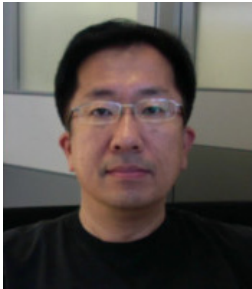
- 최윤자 -



52기 전도폭발 훈련 수료 간증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글 | 김일영




“영생, 영생은 곧 영원한 생명을 뜻하지요.” 라는 복음 제시의 첫 문장을 외우는 것으로 저의 전도 폭발 훈련은 시작되었습니다. 12주의 짧다면 짧은 훈련 기간 동안 영생, 은혜, 천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등 한번만 들어도 은혜가 될 단어들이 저의 입에서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영생과 구원에 관하여 지인에게 전할 기회가 있었을 때 마음만 있었지 한두 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저 자신은 마치 오랜 군 생활에도 총을 쏠 줄 모르는 군인과도 같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이번 훈련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실제 능력을 가르쳐 준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 폭발, 발대식, 훈련 대원, 조장 등 생소한 말들로 인한 처음의 어색함도 잠시, 현장 전도에서 보고되는 눈물과 감사의 영혼 구원의 소식은 저를 은혜의 시간으로 깊이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하여 느낀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직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매주 이루어지는 현장 전도 보고를 통하여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던 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일들, 마음이 굳게 닫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 같던 분들이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전도자의 복음 제시를 통하여 복음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는 분들,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제가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노방전도에서 짧은 한두 시간 동안 세상의 복음에 대한 차가운 거절과 냉대, 알라 외에는 예수님 마저도 거부하는 무슬림 신자, 예수님을 믿지만 선행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믿는 분들, 천국에 들어

갈 수 있는 이유를 묻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Why Not?” 이라고 대답하는 중년의 백인 남성 등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그 마음을 열고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한 영혼이 오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기까지 그로부터 차갑게 거절당한 많은 전도자와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훈련을 통하여 아직은 서툴지만 주변에 누군가 복음을 꼭 들어야 하고 또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지난 제직 훈련 때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파와 선교라는 말씀을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그것이면 그것은 곧 우리 모든 성도의 사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는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훈련 초기에 서투른 저희들의 복음 제시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교회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52기 전도폭발 훈련 수료 간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기쁨

글 | 정지윤



저희 가족은 4년 전에 남편 직장 때문에 20년 이상을 살던 캐나다 밴쿠버를 떠나 산호세로 이주해 왔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곳 산호세로 이주하는 과정 또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밴쿠버에서 떠나기 3-4년 전부터 주님께서서는 여러가지 고난을 허락하셔서 경제적인 위기와 가족의 죽음과 아픔을 통해 저희 안에 많은 것들을 가지치기 하고 정결케 하심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왔지만,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긍휼하신 주님께서서는 저희 부부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기쁨을 몸소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산호세로 내려오기 전에 주님께서서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다짐했던 한 가지는 남은 인생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신 사마리아 여인처럼 제 마음에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으로 늘 벅차 있었고, 누군가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분은 또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의 삶은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손과 발이 되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매주 저희 남편과 만나는 친구들을 통해 관계성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뉴비전교회에 등록하자마자,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전도팀 사역에 한 부분인 CD 배송을 몇 년째 섬기면서, 어린 자녀가 킨더를 들어가면 반드시 노방전도로 복음의 사역을 더 넓혀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작년에 아이가 킨더를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께서서는 한 달간 노방전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며 이제 그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에, 우리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계신 집사님 두 분을 만나 뵙게 되었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때 금요일에 하는 어와나 사역 때문에 전도폭발을 들을 수 없기에, 저를 한 시간 훈련해 주신 집사님 중 한 분은 이번 학기에

저의 훈련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매주 노방전도로 섬기며,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목요일에 전도폭발 훈련을 열어 주셔서 좀더 체계적으로 훈련 받고 저 또한 훈련자로 성장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참여했으면 하는 소망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모든 분들께서는 왜 꼭 전도폭발이어야만 하나요? 라고 물으시겠지만,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제와 섬김을 통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관계성 전도를 통해서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복음으로 무장되었을 때, 주님께서서는 그 한 사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강박한 마음을 드릴같은 도구처럼 사용하셔서 뚫는 효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자신이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가 이번 전도폭발 훈련에 참여하면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몇몇 성도님들만 참여하는 훈련이 아니라 수십, 수백 명의 성도들이 주님의 군사로 가장 최전선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용사로 훈련되고 사용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ですよ. 매일의 삶에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서는 그런 영혼의 긍휼을 갖는 자들에게 주님의 시선을 나타내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제가 시장 볼 때, 누구를 커피숍에서 기다릴 때, 언제 어디에서든지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입술을 통해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없겠냐고요. 처음에는 그런 영혼을 바라봐도 긍휼함이 많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제 안에서 울고 계신 성령님의 슬픔이 저한테 전해져 몸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저희 삶의 모든 초점은 그 분께로 옮겨졌습니다. 믿지 않는 한 영혼이 복음 전도자를 통해 생명의 말씀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순간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도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함을 매순간 체험할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게까지 도와주신 목사님, 팀장님 그리고 많은 훈련자, 훈련생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52기 전도폭발 훈련 수료 간증

나에게도 역사한 복음의 말씀

글 | 정찬영

작년에 임직 훈련을 받으면서 걱정도 되었지만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전도폭발 훈련을 결심하였고, 지난 가을에 저를 포함한 10명의 훈련생과 함께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초기에는 우려했던 복음 제시 암송이 외우고 또 외워도, 다시 암송하면 반복적으로 틀리는,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이 훈련이 나에게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쉽게 암송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는 달리, 훈련의 상당 부분이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 있음을 깨달았고, 또한 이 훈련은 무장된 전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므로, 사탄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복음 제시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복음을 제시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후로는 복음 제시 말씀이 저에게도 역사하시어 은혜의 눈물을 체험하기도 했고, 그동안 대분처럼 외웠던 문구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다가오면서, 힘들었던 암송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서투른 우리의 복음 제시에도 확신과 결심이 이루어

어지고, 은혜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을 보면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 주시는 살아 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 마지막에는 난생 처음 그레이트 물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노방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 앞 벤치에 앉아있는 50대 후반의 남자 분에게 훈련자 집사님과 함께 전도를 시작하였고, 정말 기적처럼 복음 제시를 끝까지 진지하게 들으시며, 확신과 결신을 하시고 예수님 영접 기도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노방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 제시를 기다리시는 분이 실제로 많이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봄 53기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 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53기 전도폭발 훈련 수료 간증

친구에게 전한 복음

글 | 김정임



2020년2월6일, 53기 전도폭발 훈련 발대예배를 시작으로 전도 폭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크리스천으로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강의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양의 암기 내용과 숙제를 보고 놀랄 즈음 코비드-19 이 터지면서 급기야는 주일 예배조차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폭발 훈련도 잠정 중단이 되었고, 몇 주 후 전도폭발 강의는 zoom 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도대상자와 얼굴을 맞대고 전도를 해도 될까말까인데, 그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전도를 하려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분명 서론이며 복음이며, 결신 내용 등을 달달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모니터 앞에서 전도대상자에게 말을 전하자니 그동안 암기한 내용도 중간중간 기억이 나질 않아서 몇 주를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믿음이 커져간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얼

마나 부족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체계적인 신앙 고백과 함께, 성경의 바른 지식과 해석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도 새로 깨닫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전도에 대한 사명감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갈 즈음 한국에 있는 절친 친구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복음제시를 함으로, 20년 넘게 떠났던 교회를 다시 출석하고 싶다는 친구의 말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슴 벅차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이 있을 때마다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송 목사님, 정명희 팀장님과 각 단계별 선생님들, 그리고 53기 훈련생들을 위해 기도와 헌신, 열정으로 이끌어주신 훈련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



53기 전도폭발 훈련 수료 간증

아들에게 전한 가장 귀한 소식

글 | 황애자



복음 전함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에 전도를 해야 함은 알면서도 두렵고 입이 안 떨어지는 것은 저만 겪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의 전도폭발 팀장 집사님이 전도폭발을 할 것을 권했지만 생각도 않고 당연히 No 했습니다. 그런데 3 단계 성경공부를 할 때 숙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4 번 이상 관심 갖기 라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로 병원에서 일하기에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은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위해 친절하게 좋은 말을 해 주며 신앙 이야기를 조금씩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효과적으로 전도 하는 법을 알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폭발을 해서 한국어로 외우고 그것을 영어로 외우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53기 전도폭발 개강 예배에 선배인 52기 집사님들의 간단한 후기 소감을 듣게 되었는데 그 분들의 전도 열정에 놀랐습니다. 그 중에 어떤 집사님이 “전도폭발을 하기 전에는 다른 봉사 다 할테니 전도만 하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전도폭발을 한 후에는 다른 봉사는 필요 없다. 전도가 가장 중하다” 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듣고 과연 나도 저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외워야 할 책자를 받아 든 순간 50대 중반인 저는 막막했습니다. 그때 의사로 정년퇴직한 저의 사수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 의대 공부하던 시절 무식하게 외우듯이 외웠더니 되더라고 하셨습니다. 25 분간에 달하는 전도 책자를 외우는 동안 처음엔 어려웠지만 모든 복음의 내용은 저의 것이 되고 은혜가 되기 시작했으며 저를 지도해 주시는 열정적인 집사님들의 대상자 선정에 한 번 두 번 복음을 전할 때 마다 복음의 소중함과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만나 복음 전한 것은 두 번이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 줌을 통해 각자

집에서 복음 전하게 되어 현장감은 덜 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대상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복음을 전하다 보니 한국에 있는 가족, 친척들에게 전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고 그 중에 교회 다녔지만 약 2년 전부터 1년에 10번 정도만 교회에 가는 한국에 있는 아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전하고 싶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용돈을 보냈더니 그래서인지(?) 흔쾌히 전도 대상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줌을 통해 미국과 한국에서 두 분의 집사님들과 서론을 통해 마음을 열게 하고 복음제시하고 영접하겠냐고 물은 후 혹시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쩌나 떨리는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잠시 생각하더니 영접하겠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며 강요하지 말라고 하던 아들은 30 분간의 복음 제시를 들은 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혹시 중간에 안 하겠다고 영접을 안 할까봐 했던 저의 걱정은 할렐루야로 바뀌었습니다. 영접 하겠다고 했을 때 다른 집사님들의 기뻐하는 얼굴은 한 영혼을 아끼시는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39기부터 전도폭발을 하셨다는 집사님은 엄마가 아들을 영접 시키는 것은 처음 봤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힘입어 현장이든 온라인 통해서든 시, 공간을 초월하여 전도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전도폭발 교재에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전도폭발 수업을 하고 현장 실습 나가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전도 훈련에 부분적인 성공밖에 안 된다. 반드시 이 후에 복음 전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계속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사히 과정을 마치고 또 무엇 보다도 기쁘게 아들이 예수님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

53 기 전도폭발 훈련 수료 간증

감사가 넘치게 해 준 전도폭발 훈련

글 | 박정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전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을 알기에 죄책감이 밀려오지만,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서 항상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교회의 사역 중에서 “전도폭발 훈련”은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미루고 싶은, 사실 피하고 싶다면 끝까지 피하고 싶었던 사역입니다. 낯선 이에게 다가갈 용기도 없었고, 질문이나 반대 의견을 내면 대답할 성경 지식도 없었고, 비신자 친구에게 전하려고 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질까 걱정이 되었고, 핀잔이나 거절감을 받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비신자 친구가 나에게 어디 한번 들어보거나 하자” 라고 했을 때, 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전해야 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 두서없이 내뱉다가 결국 나에게 온 소중한 기회를 그렇게 잃어버리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을 더 미뤄왔던 저에게, 전도폭발을 들어 보겠냐는 집사님의 권유와 기도후원자가 되어 달라는 자매의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작스럽게 한국에 있던 저의 비신자 절친한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저는 더이상 피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 친구를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으로 보내주시는 이유는 아마도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전도폭발 훈련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시작한 전도폭발 훈련에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작하게 된 동기부터 훈련에 임하는 모든 과정에서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에 능력을 더 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외우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

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능력 주시기를 기도했을 때에 몇 번만 읽어도 술술 외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가 해냈다는 교만이 생겼을 때는 더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고 막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히 나아갔을 때에야 비로소 저는 온전히 모든 분량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한 전도대상자 리스트를 가지고 복음을 들어보겠냐고 물어봤을 때에 하나같이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탁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무심코 툭 물어봤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yes 라는 대답을 얻게 하였고, 제가 전해야 할 대상자를 넘치게 보내주셨습니다. 전도대상자를 정하는 것조차도, 전도대상자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만하고 아둔한 저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제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조차 전하게 하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전하는 제 자신이나 듣는 전도대상자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기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제가 미리 “불편하다”라고 규정 지어 놓은 인간관계는 저의 선입견에 불과하며, 그로 인한 머뭇거림은 전도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공격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에 소극적이기만 했던 저는 복음을 제시하며 한 영혼 영혼이 몰랐던 복음을 알게 되거나, 잘못 알고 있던 복음을 바로잡게 되거나, 흔들리던 믿음과 구원에 확신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보며 전도의 기쁨을 차츰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가족을 포함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53기 전도폭발 훈련 수료 간증

병사가 총알을 채우듯 복음으로 무장하며


글 | 강미미



저는 모태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란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52기 훈련생의 복음 제시를 듣게 되었고 저는 40년 저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자 예화를 들으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란 사실을 알면서도 일시적, 현실적 문제들만 예수님께 맡겨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온전히 예수님의 의자에 앉지 않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회개와 감사를 동시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3기 훈련생의 권유를 받고 훈련 시간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의자에 맡겨 보자 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 뒤늦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제시의 모든 내용을 다 외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지만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53기 훈련생분들을 보며 이 분들을 나도 같이 따라만 가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주 한 주 수업에 참여하는 가운데 COVID-19 문제로 수업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방법으로 다시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 복음 제시가 진행되었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훈련 과정 속에 개인적인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처음 훈련을 시작했을 때의 초심을 다시 생각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일을 섬기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기피해왔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 받았다는 이기적인 생각과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전했을 때 흑시라도 거절 당한 후 받게 될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훈련을 통해 병사가 총에 총알을 채운 듯 저는 이제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훈련 과정 중에 만난 전도대상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과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단계 훈련을 마치며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훈련을 이끌어 주신 목사님과 팀장님, 그리고 훈련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지혜로 53기 훈련생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립니다. 

53기 전도폭발 훈련 수료 간증

첫번째 전도대상자

글 | 정상규

지난 가을학기 3단계 성경공부를 통해 순종은 내 생각은 모두 내려놓고 종의 입장으로 주인의 뜻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며, 지금까지 내가 순종했다고 자부하며 믿어왔던 대부분의 일들이 사실은 저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제 뜻대로 결정한 선택이었음을 깨닫고 올해는 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신년예배 때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수요 찬양팀으로 섬겨 달라는 권면을 받게 하시고 기도한대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찬양팀을 섬기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53기 전도폭발 훈련을 받는 것이 어떨까라는 권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뉴비 전교회에 등록하도록 인도하심에는 체계적인 성경공부와 다양한 훈련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베푸셨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한국에 있을 때 전도폭발 훈련은 평신도가 목회자로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것 다음으로 큰 결심이 필요한 훈련이라고 들은 적이 있어 이걸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훈련 기간 중에 회사에 큰 직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계획되어 있어 수, 목, 금요일 저녁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 것은 아무래도 어렵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던 차에 한해 결심이 연초에 벌써부터 무너져서 되겠냐는 오기와 ‘내가 하나님 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도와 주시겠지... 그리고 하다가 정 안되면 할 수 없고.’ 라는 조금은 자포자기에 가까운 심정으로 훈련을 받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2주 동안 목요일 수업 외에도 복음 제시와 결신, 즉석 양육에 대한 많은 분량의 내용을 통째로 암기하고, 암기한 내용으로 1주일에 한 번 이상 방문 전도를 통해 실제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내지 못한 훈련생이 단 한 명도 없었고, 내가 해냈으니 당신들은 당연히 해낼 수 있다는 훈련자 분들의 한결같은 확신과 권면에 조금은 자신감을 얻어 훈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COVID-19으로 인한 Shelter-in-Place 조치로 모든 예배와 모임이 중단되는 전대미문의 상황에 부딪혔지만, 전도폭발 훈련은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업과 전

도 실습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서로 만나 얼굴을 맞대고 전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 복음 제시가 온라인 만남을 통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음을 머리로만 알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저의 부족한 믿음에 근거한 기우에 불과했음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을 보여 주셨고, 전도폭발 53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특별한 훈련 과정이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제시를 암기하고 반복된 전도 훈련으로 복음의 핵심 내용을 말하고 듣는 중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으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룬다는 말씀을 실감하며 저의 첫번째 전도대상자가 바로 저 자신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핵심과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제자와 증인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이자 은혜의 선물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절망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와 먼저 믿은 저희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희망과 소망을 갖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기도하며 이 일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섬기는 것이 저의 삶의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증인이기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해야 한다는 마음가짐과 실천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구원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갈 것을 권면 드립니다. 📖

53 기 전도폭발 훈련 수료 간증

복음, 나누어 주고 싶은 가장 좋은 선물

글 | 윤미영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할 때가 가장 기쁘고 제 삶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에 지갑에 4 영리를 준비하고 가지고 다니며 펼쳐 놓고 읽어주거나 아니면 성령님께 기도하고 그냥 복음을 전해 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에 대한 그 마음도 희미해지고 있

던 작년 가을에 말씀을 통해 계속되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권유, 강권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다. (고후 5:14)' 정리된 복음이 책자 없이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으면 아무 때나 누구에게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에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주셔서 전도폭발 훈련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에 지난 학기에 훈련 받으신 훈련생들의 복음제시 시범을 보며 내가 과연 저 긴 복음을 저렇게 암기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매주 기도와 훈련을 통해 단계적으로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암기해 나가며 제 입으로 선포하는 생명의 복음을 매번 제 귀로 듣는 제 자신에게 가장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복음의 핵심을 다시 짚어가며 제가 미처 모르고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다시 점검하며 알게 하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기존의 믿음의 지체들도 다시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남동생과 친구에게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대화나 문자로 나와 소통할 때 제 입과 글에서 복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또한 복음제시할 때 필요한 저의 개인 간증을 정리하며 영생을

얻기 이전에 원망과 우울감,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던 저의 모습과 영생을 얻은 후에는 진정한 영생의 확신을 누리게 된 변화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욱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 용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평안, 지나 온 삶의 고난마저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 지금의 삶이 바로 영생을 누리 고 있는 것임을 꼭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애쓰며 절망과 좌절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완벽하신 하나님을 만나 내 삶을 다 드리고 의지하는 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 성령님의 따스한 인도를 받는 삶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받도록 권유해주시고 격려와 사랑으로 훈련시켜 주신 훈련자 정명희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저의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어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복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53 기 전도폭발 훈련 수료 간증


잃어버린 양들의 귀환의 기쁨

글 | 최윤숙

참으로 오랜 시간을 돌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약 7년 전 저와 함께 성경암송반을 함께 했던 한 집사님께서 ‘말씀 암송도 잘 하니까 전도폭발 당연히 해야죠’라며 전도폭발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암기력이 좋아 암송반을 했던 것도 아니고 전도폭발의 어마어마한 암기 내용이 있다는 걸 미리 들었던 터라 전도폭발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지냈습니다. 다만 그 집사님의 요청으로 한 훈련생 방문을 수락하여 전도폭발 내용을 한 번 들어 보기도 했는데 그때 마음을 굳혔지요. ‘아- 전도폭발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구요. 그 방대한 내용의 암기는 공포였고 내게는 불가능이라며 그저 일찌감치 포기했다는 것이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사영리로 전도 훈련을 받은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합리화하며 더군다나 저에게는 ‘아이들’이라는 아주 좋은 핑계거리로 목요일 훈련 참석은 적어도 두 아이가 중학교 졸업까지는 불가능이라며 훌쩍 분하게 마음을 잡고 지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전도폭발 훈련자 자매님이 향수 예배에 급히 들어가는 저를 붙잡으며 전도폭발의 자신의 기도 후원자가 되어 줄 수 있냐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언지도 모른 채 그 순간 아무 망설임도 없이 하겠다고 대답드렸고 저는 그날부터 그 자매님의 기도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쇼핑몰을 다니며 전도를 다녔고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자매님은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셨고 그 기쁨의 순간을 함께 하는 복된 시간을 거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 봄학기에 전도폭발을 시작으로 그 자매님의 훈련생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시작한지 두 달 정도 지났을까요. 기도하던 훈련생 자매님께서 개인적인 이유로 전도폭발 훈련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가 Covid-19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었을 때입니다. 전혀 마음에 없던 전도폭발 훈련에 환경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아이들의 모든 활동이 중단된 상태라 이제 목요일 시간도 되고, 향수 예배도 마쳐가니 마음에 부담도 없고,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을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아- 그럼 내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늦어서 과연 받아주실까?’ 라는 생각도 함께 말이지요. 그리고 일주일이나 지나 훈련자 자매님께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미 5주나 지났지만 혹시 함께 전도폭발 훈련에 참여하실 생각이 없냐고, 함께 하시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바로 YES! 로 대답하였고 그 주부터 바로 6주차 훈련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뒤쳐진 공부를 하며 암기해야 할 내용들을 하나씩 함께 해 나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복음을 암기하고, 식사 준비를 하며, 설거지를 하며 또 암기합니다. 잠 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종일 암기합니다. 오직 연습만이 가능케 한다는 주변의 조언대로 하루종일 암기하며 나아갔습니다. 암기를 할 때면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게 더 낫지 않나? 이걸 좀 그래.’ 순간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던, 암기에 방해가 되는 비판하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두번째는 전도폭발 훈련의 열매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전도폭발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셀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 전도자로 세워진 믿음의 일꾼들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매요, 증거였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하라는대로만 따라가자’ 라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을 내려 놓으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내용이 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훈련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전도”라는 것을 해 봅니다. 심장은 터질 것 같이 너무나 긴장되는데, 목소리도 떨리고, 머리는 하얗게 되는데 저의 모든 상황과 상관 없이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잃은 양을 찾고 계셨고 일하셨습니다. 연약한 저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두 명의 신실한 훈련자와 두 명의 든든한 기도후원자를 허락하셔서 정말 강력한 주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암기를 가능하게 하시고, 온갖 편견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도구 ‘전도폭발 훈련’을 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매주 잃어버린 양들의 귀환 소식은 저희들을 얼마나 설레게 하는지요.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목도함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요. 우리를 주님의 전도자로, 추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53

기 전도폭발 훈련 수료 간증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글 | 김경애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전도폭발 훈련을 받자고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하러 다닐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런데 집사님이 한번 더 제안했을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선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 자신과 가족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이 너

무 이기적이란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사도행전 1 장 8 절에 말씀하셨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며 마음 풀이되며 걱정하던 세상의 문제들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다.

현장 전도를 하며 복음제시를 할 때 사람은 영적 존재임을 깨달았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전도대상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며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영생의 확신이 없던 자가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너무도 기쁘고 감사드렸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처음 현장 전도를 할 때 복음 중에서도 은혜만을 했는데도 너무 떨려서 외운 것을 잊어 버릴까봐 너무도 긴장이 됐다. 그런데 회를 거듭할수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느꼈고 어느덧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며 자신감이 생겼다. 처음 복음 제시를 외울 때 머리가 굳었는지 너무도 외우기가 힘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 외웠다고 하는데 외워지지는 않고 불안했다. 하나님께 도와 달라고 기도하며 반복하여 열심히 외웠더니 어느새 쉽게 외울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 19 로 교회도 못 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침체 되었었는데 전도폭발 훈련을 다시 받게 되며 영적으로 활기를 찾게 되고 말씀과 기도생활을 하게 되었다. 전도폭발 훈련을 받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53 기 전도폭발 훈련 수료 간증

뉴비전에서 받은 최고의 교육

글 | 최훈

전도는 세계 가장 큰 고민이었고 두려움이었으며 힘든 일이었습니다. 신앙의 여러 다른 것들은 하겠는데 전도는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성격상 힘들었습니다. “그냥 내가 삶에서 보여주면 되지 더이상 하기는 좀 그렇지” 라는 생각과 생활이었습니다. 전도폭발은 이름도 좀 그랬습니다. 조용하고 깔끔한 신앙생활의 느낌과는 달리 “폭발” 하면 왠지 예전에 한국의 길에서 보던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라고 띠를 두르고 길거리에서 소리 치던 모습이 연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폭발을 하리라는 생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장의 두 자매님이 전도폭발을 수료하시더니 제게 오셔서 “목자님, 꼭 드려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셔서 저는 기도제목을 부탁하시니 했더니 “목자님이 전도폭발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속으로는 “헐~” 이 나왔지만 목자였기에 “생각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 드리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라고 했으면 그냥 정중히 거절했을텐데 목장의 자매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목자로서 어쩔 수가 없었고 기도 중에 “내가 얼마나 전도에서 도망 다녔으면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목장 자매들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까지 말씀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모임 첫날 환영식에 갔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기쁘게 맞아 주셨고 훌륭한 음식도 준비 되어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긴 했는데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뭘 하길래 이렇게 까지 하시나. 늘 만나면 도망 다녔던 최창섭 안수집사님도 뵈고 많은 전도폭발의 리더들을 보았습니다. 즐거운 시간들이 지나고 교재를 보는 순간 “아... 이래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비전 성경 공부시간에 성경 구절들을 외워보긴 했지만 외워야 하는 분량이 작은 책자 한권이었습니다. 그리고 10 번의 실습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아, 내가 뭘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더 분들이 상황극으로 교제에 따라 전도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아, 저게 뭘까? 사람들이 저절로 듣고 돌아오나?”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좀 더 뭔가 멋진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성경 말씀대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투박해 보이던 교재의 성경 말씀들과 제시를 외우고 생각하면서 먼저 제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었고, 이것이 정말 성경 말씀의 핵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실습에서 오래 회화를 다

닌 권사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역사 하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혼인 잔치에서 보이신 기적을 오직 물 떠온 자들만 알더라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COVID 사태로 훈련이 중간에 멈춰지고 한 달 정도 지난 후 온라인으로 다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전도 실습도 온라인으로 한다는 말씀을 듣고 얼굴을 보고도 쉽지 않은데 온라인으로 하면 뭘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하나님께서는 온라인에서도 계획하신 일들을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씀을 라디오로 듣고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괜한 걱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했던 것 같았습니다.

교육이 마쳐지는 이 시점에서 세계 확실한 것은 전도폭발은 뉴비전교회에서 받은 교육 중 최고의 교육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교육과 다른 점은 많은 지식을 공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나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교육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제가 주위의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시간을 내어 그 분들이 돌아오기를 저의 문제인 것처럼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학 청년부 때 강남역 거리에 나가 노래 부르며 전도하고 실패한 후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전도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너희는 그냥 전하기만 하라 전도는 내가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신 귀한 교육이었습니다. 전했을 때 영접하지 않는 경우 아직 마음이 아프고 실패했다는 쓰라림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그만 포기하지. 니가 뭘... 안 되잖아.” 라는 속삭임도 들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전도하는게 그렇게 무섭니?” 라고 말하며 “나는 전했고 그것까지가 내 임무다” 라고 말하며 일어납니다.

세계 이 교육을 강하게 권한 두 자매님과 제가 그곳에 나오도록 저를 위해 많은 기도해 주신 전도폭발 리더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도폭발 교육이 이번 한번이 아니라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맛있는 식사 후 알려주시고 또 다시 권해 주시는 리더분들께도 두려움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의 맘 깊은 곳에 있던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아시고 꺼내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립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진수 담임목사

Q 목회자로서 부담이 많으실 것 같은데, 거룩한 부담, 인간적인 부담으로 나누어서 Share 해주세요.

A 부담을 가지고 사는 것을 좋아할 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누구도 부담 없이 사는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니까요. 목회자로서 저 역시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두가지 측면인데요, 먼저 말씀대로 온전히 항상 살지 못하는 것이 부담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입술의 증거만큼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공생에 기간동안 주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 말씀도 듣고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심과 교만등 여러가지 허물을 보였던 것처럼, 예배와 사역등 주님의 일을 매일 하면서 사는데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감사한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주님이 내 발도 씻겨주신다는 사실이기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번째 부담은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는 것에 대한 부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영적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부담이 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수고가 온 가족을 위한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매일 준비해주듯, 제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기뻐하며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는 부담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말이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주님께 잘했다 칭찬듣기를 소원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또한 성령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온 교회의 기도와 격려를 사모합니다.

나눔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함께 지나가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의 스토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도 여러번 접했습니다. 마치 5천명 장정과 그 외의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하는 것을 보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 하셨을 때 제자들 손에 있던 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

던 것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보잘 것 없는 것들을 주님께 드리자고 성도님들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렇게 아가페 프로젝트와 B&b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눔에 대한 부담은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섬기고, 도움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나눠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에 대한 부담입니다.

기도에 대한 부담, 전도에 대한 부담, 선교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잘하고 싶은 부담도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지나며 교회재정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어려움과 슬픔을 당한 성도님 가족과 함께 있어주지 못한 것으로 인한 부담도 있습니다. 규탄시위와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우리는 교회로써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지난 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더욱 역동적인 복음사역을 감당해야하나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부담을 안고 가며, 저의 소원은 이런 부담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담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한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담감, 즉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아가게 하는 부담감이려면 거룩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부담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담감으로 인해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신앙,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간직하려고 합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6-9) 




글 | 이정우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최희주, 이정우 그리고 딸 이윤서 이렇게 세 명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2013년 말부터 3년간 일을 하러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는 집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고 미국에 와서 교회 등록을 위해 여러 교회를 다녀 보던 중 전 직장 동료의 권유로 뉴비전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처음 방문했을 때 뜨거운 찬양과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어서 저희 가족의 기도 제목 중의 하나입니다.

3년간의 미국 일을 마치고 2016년 말에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생각지도 못한 오퍼를 받아서 이직을 했는데 한국에서 1년 근무 후 미국에서 일하는 조건이어서 저희 가족은 선물과 같은 한국 생활을 1년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서의 유치원 친구 중 한 가족과 친하게 지냈는데 같은 아파트 같은 동네 워싱턴, 아랫집으로 1년간을 살면서 참 좋았습니다. 그 가족도 아직 주님을 몰라 저희 가족의 기도 제목입니다. 1년은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한국으로 돌아갈 기약이 없이 떠나오는 길이기에 많이 아쉬움도 있고 1년 간의 공백으로 약간 어색할 것 같았는데 교회에서 알고 지냈던 형제 자매님 덕분에 빨리 정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와 신앙 얘기를 하다가 그 분이 매일 가족 예배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아이들과의 대화와 신앙 나눔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아이들이 가족 예배를 기다린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날로 가족 예배를 시작하게 되어서 일주일에 4회 이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 예배를 하다 보니 왜 그렇게 목사님들께서 가족 예배를 강조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딸 윤서는 15살 사춘기 나이인데 가족 예배 덕분에 성경의 내용도 서로 토론하고 어느 날은 윤서가 목사님의 설교를 잘 적어서 가족 예배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속에서 자라서 참 밝고 긍정적인 아이입니다. 요즘 집에만 있어서 힘들지만 계획표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매일 성경을 한 장씩 같이 읽어 나가며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내는 미국에 오자마자 향수에서 1,2,3 단계를 마쳤는데 저는 일을 핑계로 3년간 있으면서 1단계 성경 공부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는 2018년 가을학기부터 2019년 가을학기까지 1~3단계를 모두 마치고 2020년 봄 학기부터는 아내와 같이 뉴비전학교 수업을 듣게 되어 기뻐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봄학기를 몇 번 하지도 못하고 중단하게 되어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집에 같이 머물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고 가장 기초적인 예배와 말씀, 기도의 시간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인데 하지 못했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가족이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비전 모든 가족들이 이 기간을 잘 이겨나가서 다시금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을 고대해 봅니다. 

여행에서 본 기독교 대영박물관편 part 1

글 | 김원철

기독교 관련 유물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느브갓네살 왕 시절의 바벨론 이쉬타르 문 전체를 옮겨왔고, 버가모, 밀레도의 대형 신전의 경우 건물뿐만 아니라 바다까지 떼어와서 전시하는 베를린의 페르가모박물관을 꼽는 사람이 꽤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시대 이전부터 포로시대의 건축물과 유물들을 대량으로 보관하고있는 대영박물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영박물관의 가장 유명한 전시물은 전시관 4번 입구에 있는 로제타 스톤과 그리스 전시관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벽면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느헤미야 시대에 그리스를 민주적으로 통치하였던 페리클레스가 건축한 것으로 그 당시 문화 수준을 알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같은 시기에 페리클레스는 자기네 신을 위한 파르테논 신전을 지었고 아다사사다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죠.

대영박물관 정문(남쪽)을 입장하신 후 왼쪽 편(서쪽) 전시실들이 이집트, 앗시리아, 바빌로니아, 그리스 전시관입니다. 이 전시실들을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구경하시면 앗시리아, 그리스, 이집트 유물을 보실 수 있고, 북쪽 끝에 있는 계단으로 2층에 올라가면 아브라함 시절의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고대 이란) 전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시기 이후 열왕기상 시대까지 성경에서는 가나안 부근(레반트라고 불림)을 다루고 있지만 이 기간에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셈족인 앗시리아와 바빌로니아가 서로 패권을 다퉁니다. 두 나라는 오래 전부터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하다가 BC 18세기의 함무라비 왕 이후부터는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 남쪽을 근거지로 하면 바빌로니아, 북쪽을 근거지로 하면 앗시리아로 보시면 됩니다. 한편 현재 이란 위치에 있던 페르시아는 이 두 나라의 동쪽 편에 위치했는데 인도-유럽어족의 민족으로 야벳족입니다.

앗시리아는 BC 700년 경, 바빌로니아는 BC 600년 경, 바사는 BC 500년 경에 이 지역의 패권자입니다.

박물관에 가시면 왕들을 기준으로 유물이 설명되므로 그 왕들의 행적을 아시면 재미있는 관람이 될 것입니다. 대영박물관에 유적이 많이 있는 앗시리아의 왕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앗시리아 왕은 총 5명인데 불(티그랏빌라셋3세), 살만에셀 5세, 산헤립, 에살하돈이 역사서에 나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르곤 2세왕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참고로 요나서의 니느웨 왕도 앗시리아의 왕일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앗수르 단 3세 시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가 왕에 오른지 7년 후에 큰 전염병이 돌고, 곧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 이후에 전염병이 돕니다. 게다가 반란 기간 중 개기일식이 생겼으니 이 왕의 시대는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요나가 도착하기 전에 앗시리아 왕을 절박하게 만드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앗시리아 왕들은 이름은 대부분 '사'로 시작합니다. **살**만에셀, **사**르곤, **산**헤립. 이 왕들 외에 '앗수루'로 시작하는 왕들은 앗시리아 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과 '에살하돈'은 예외입니다. **살**만에셀, **사**르곤, **산**헤립의 유물들이 대영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앗수루로 시작하는 왕은 **앗수루**나시르팔, **앗수루**바니팔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사악한 무리의 우두머리 이름이 **사**우론, **사**루만 인 것이 여기서 따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아는 바빌로니아 왕 이름은 모두 '**살**'로 끝납니다. 남유다 멸망시의 왕 느브갓네살, 이전 왕이자 그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살, 마지막왕 벨사살.



홍수에 관한 기록

지난 루브르박물관편에서 고대 길가메시 왕의 동상을 설명하면서 길가메시 서사시 점토판이 니느웨 도서관터에서 발견되어 현재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점토판에 쓰여진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신이 홍수로 인간을 멸하기 전에 정직한 사람을 세워 방주를 만들게 하고 홍수 물이 빠진 후 새를 보내어 육지를 살피는 이야기가 적혀있습니다. 방주에서 내려온 후 희생양을 바치는 것과 신이 홍수에 유감을 표하는 것이 사진 1에 있는 점토판에 들어 있습니다. 썩기 문자로 쓰여진 것입니다. 다음편에 설명할 앗수르바니팔이 니느웨에 도서관을 세우고 각종 점토판을 모았는데, 그 도서관 자리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앗수르’라고 시작하니 어느 나라 왕인지 아시겠죠? 산헤립의 증손자입니다.



사진 1-길가메시 서사시 석판

다음편에 설명할 앗수르바니팔이 니느웨에 도서관을 세우고 각종 점토판을 모았는데, 그 도서관 자리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앗수르’라고 시작하니 어느 나라 왕인지 아시겠죠? 산헤립의 증손자입니다.

우르의 보드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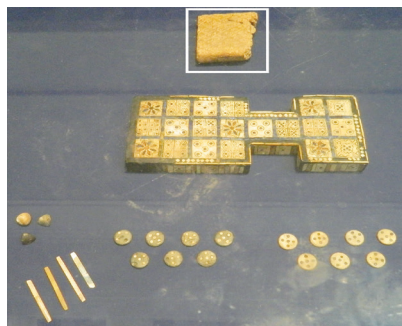


사진 2-우르의 보드게임-

아브라함(당시 이름 아브람)이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이전하는 때가 BC 2,1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때는 우르-남무라는 사람이 우르를 수도로 하여 왕정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왕의 통치가 시작된 것

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이전하게 된 계기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우르는 꽤 발전한 곳임을 유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진2는 아브라함 시대에 유행이던 보드게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중 아브라함 시대보다 150년쯤 이전에 만들어진 우르의 것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윗부분의 하얀 박스로 표시한 점토판은 게임의 사용설명서입니다.

우르의 깃발(Standard of Ur)



사진 3-우르의 깃발

사진 3은 BC 2,600년 경에 제작된 물건으로 전쟁 시 앞장 서는 깃발일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것으로 막대기에 끼워서 깃발처럼 들었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만, 음악용 공명기라고 추측되기도 합니다. 사진은 전쟁 모습이 그려진 면이고 이 뒷면에는 평화시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대영박물관 2층의 메소포타미아 전시관에 있는 것으로 이곳에는 BC 2,000년 이전에 제작된 여러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목걸이, 도자기, 덤불에 갇힌 염소 조각 등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유물

사진4의 석판들은 모세와 관련 있는 아멘호텝 3, 4세와 주변국가



사진 4-아마르나 석판

왕들 사이에 오고갔던 편지 들입니다. 루브르 편에서 소개한 아마르나 석판인데 이 석판에 히브리인을 가르켰을 것으로 생각되는 ‘하피루’의 이름이 나옵니다. 출애굽 연대는 BC 1,446년 아멘호텝 2세 때로 판단되었으나 최근에는 BC 12세기 람세스 2세 시기로 주장되기도 합니다. 영화 ‘모세’나 ‘Prince of Egypt’는 람세스 2세를 배경으로 하였습니다.

사진5는 람세스2세 사원에서 가져온 이집트 왕 목록이 기록된 석판입니다. 상형문자로 34명의 왕들의 이름이 있는데, 고대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는 투트모세 3세와 아멘호텝 2세의 이름이 보이고, 마지막에는 람세스 2세 이름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아멘호텝 4세나 투탕카멘처럼 다른 신을 섬기던 왕들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사진 5-이집트 왕 목록

카데쉬전투와 카르카르전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부근에서 큰 전쟁이 2번 있었습니다. 첫번째 전쟁은 BC 1,250년에 있었던 카데쉬전투인데 당시 최강인 히타이트(성경의 헷족속)와 이집트 간에 무승부로 끝난 전투입니다. 카데쉬라는 이름이 익숙하죠? 민수기의 카데스 바네아는 바네아에 있는 카데스이고 이 곳은 다메섹 부근에 있는 카데스입니다.

이 전투 후에 두 나라는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문서로 남깁니다. 이스탄불의 고고학 박물관과 이집트의 카르나크 사원에 각각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복사본이 유엔 건물에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평화 조약이기 때문이죠. 사진6은 이스탄불 고고학박물관에 있는 조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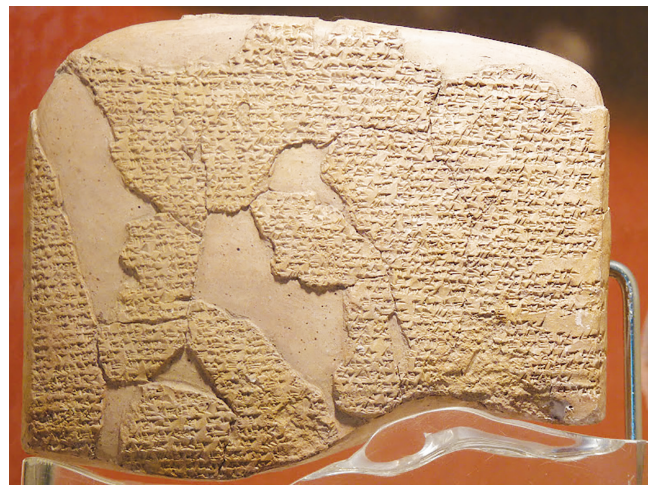


사진 6-카데시 평화조약

석판입니다. 두번째 전쟁은 BC 853년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있었던 카르카르 전투라고 불리우는 국제 전쟁입니다. 인류 최초로 국가 연합군이 탄생한 전쟁입니다. 아람, 하맛, 북 이스라엘 등의 연합



사진 7-살만에셀 3세 기념비

군이 앗시리아 군대와 싸웁니다. 이 전투에서 연합군이 패배했는데, 성경에는 이 전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람과 계속 전쟁하던 이스라엘이 ‘3년간 아람과 전쟁을 하지 않았다’(열왕기상 22:1)라는 기록 있는데, 앗시리아와 싸우기 위해 연합했던 기간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이 전쟁 약 20년 후 예후는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사진 7은 살만에셀 3세의 카르카르 전투 기념비로써 아람, 하맛, 아합의 군대를 이겼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살만에셀 하면 ‘사 또는 살’로 시작하는 것을 보니 앗수르왕인 것을 아시겠

쥬? 이 사진의 두번째 단(그 아래 사진 참조)에 무릎 꿇고 절하는 사람(예후 또는 대리인)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사진 8은 이 두번째 단을 확대한 것입니다.



사진 8-살만에셀에게 조공 바치는 예후

앗수루나시르팔 2세 왕국 벽면

고대 통치자들은 건축물 벽면에 자신의 치적을 묘사했습니다. 이 점은 이집트나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영박물관의 앗시리아 관에는 앗시리아 왕궁에서 가져 온 많은 벽면들이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그 중 제일 오래된 앗수루나시르팔 2세의 벽면만 소개하겠습니다.

앗수루나시르팔 2세는 아합왕 시절의 왕으로 사진6 석비에 나오는 살만에셀 3세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앗시리아의 수도를 앗수르에서 니느웨 부근의 님루드로 옮깁니다. 앗수루나시르팔 2세 전시실에 있는 석판들은 님루드 왕궁의 벽을 가져와서 붙인 것입니다. 전시실 양쪽 벽에 부조물들이 가득한데, 사진9는 한쪽 벽의 사진입니다.




사진 9-앗수루나시르팔 2세 벽면

사진10은 이 벽면 중 하나로 신성나무를 가운데로 앗수르나시르팔 2세의 모습이 양쪽에 있는 조각입니다. 신성나무는 왕 외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의미로 양쪽 모두 왕을 넣었습니다. 왕의 뒤에는 그의 수호신을 조각해 넣었습니다. 고대 조각에서 왕은 부각되어 나타나도록 표시하였습니다. 이집트의 경우에는 머리 위에 독수리나 태양이 조각되어 있으며 파라오를 다른 사람들보다 크게 조각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아멘호텝 4세 같이 독특했던 몇몇 왕은 예외입니다. 앗시리아나 바빌로니아의 경우에는 왕이 홀(긴 지팡이, Scepter)를 들고 있거나, 사냥이나 적을 죽일 때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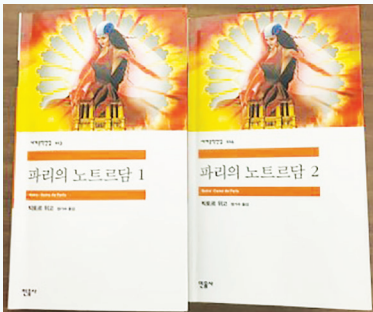
사진 10-신성나무 부조

다음 호에서는 앗시리아의 다른 왕궁들의 벽, 메대의 마지막 왕 벨사살 관련 유물, 고레스 왕의 칙령, 오래된 성경 사본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노틀담의 꼽추

Notre-Dame De Paris, The Hunchback Of Notre Dame



* 빅토르 위고의 “파리의 노트르담(노틀담의 꼽추)” (소설의 줄거리)

15세기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광장에서 아기 염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재주와 춤을 보여 주며 돈을 버는 집시 여자 에스메랄다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 평소처럼 공연을 하던 그녀를 음유시인이며, 극작가인 그랭구아르가 보게 되고, 너무도 끌리는 마음에 그녀를 미행한다. 또한 에스메랄다의 공연을 본 프롤로 신부는 그녀에게 정욕과 사랑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거센 분노를 느낀다. 에스메랄다를 미행하던 그랭구아르는 걸인들에게 사로잡히고 죽을 위기에 처한다. 이에 에스메랄다는 그와 거짓 결혼을 하는 방법으로 그랭구아르를 구해준다. 한편 프롤로 신부는 성당 종지기 꼽추인 양아들 카지모도에게 에스메랄다를 데려오도록 시킨다. 명령을 이행하던 카지모도는 마침 순찰 중이던 근위대장 페뷔스에게 체포되고, 에스메랄다는 자신을 구해준 페뷔스를 사랑하게 된다. 에스메랄다를 납치한 죄로 카지모도는 수레에 묶여서 태형을 받는다. 무고하게 잡혀가 광장의 죄인 공시대에 사슬로 묶인 채 괴로움과 갈증에 괴성을 지르는 카지모도를 사람들은 조롱하기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에스메랄다는 이를 보고 그에게 다가가 물을 주고 땀을 닦아 준다. 카지모도는 처음 받아보는 호의에 감동한다. 한편 페뷔스는 에스메랄다에게 호기심을 느끼고 자신에게 반한 그녀를 유혹하기로 한다. 남들의 시선을 피해 은숙한 곳에서 그녀를 만난 페뷔스는 거짓 사랑을 고백하고, 그녀는 완전히 페뷔스에게 빠지고 만다. 한편 이 광경을 목격한 프롤로 신부는 맹렬한 질투를 느끼고 페뷔스를 단검으로 찌른다. 그리고 에스메랄다는 페뷔스를 살인했다는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된다. 모진 고문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자책에 그녀는 자신이 살인자라고 고백을 하고 만다. 그러나, 페뷔스는 살아있었고 에스메랄다가 처형당할 시점에 그녀와 눈을 마주치게 된다. 자기의 이름을 외치는 에스메랄다를 본 페뷔스는 그녀를 외면한다. 처형을 당하기 직전 카지모도는 에스메랄다를 구하고 그녀를 성역인 노트르담 성당으로 데려가 숨겨준다. 성역은 사법권이 닿지 않는 곳이라서 그녀를 잡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것을 모두 지켜본 프롤로 신부는 그랭구아르를 설득해 걸인들을 동원해 노트르담을 공격하라고 한다. 그랭구아르와 프롤로 신부는 걸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동안 노트르담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에스메랄다를 꺼낸다. 카지모도는 걸인들을 상대하느라 에스메랄다를 지키지 못한다. 그랭구아르는 에스메랄다와 함께 구해낸 염소를 데리고 떠나고, 프롤로 신부는 에스메랄다에게 자신의 여자가 될지 죽을 지 결정을 강요한다. 에스메랄다는 완강히 거절하고 프롤로 신부는 집시를 증오하는 미친 은둔자 귀들에게 에스메랄다를 잡아두게 한다. 귀들은 집시들이 자신

* **감상영화:** 노틀담의 꼽추
Notre-Dame De Paris,
The Hunchback of
Notre Dame

* **감독:** 장 들리누와
Jean Delannoy

* **제작:** 1957년, 프랑스

* **상영시간:** 115분

* **장르:** 드라마

* **관람대상:** 12세 관람가

* **출연:**

지나 로로브리지다 Gina Lollobrigida
(에스메랄다 역)

안소니 퀸 Anthony Quinn
(카지모도 역)

장 다네 Jean Danet
(페뷔스 역)

알레인 쿠니 Alain Cuny
(프롤로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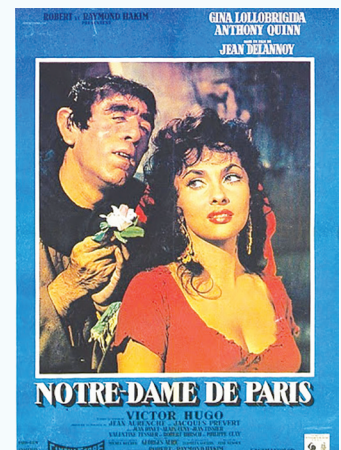
로베르 이르슈 Robert Hirsh
(그랭구아르 역)

의 아이를 빼앗아 죽였다며 에스메랄다에게 말을 하고 그녀는 자신의 항상 가지고 다니던 목걸이 속의 징표로 귀들이 어머니임을 알게 된다. 에스메랄다가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자신의 딸인 것을 알게 된 귀들은 프롤로 신부가 부른 근위병들에게서 에스메랄다를 숨겨주려 한다. 하지만 폐쇄스의 목소리를 들은 에스메랄다가 은신처에서 나오고 그녀는 발각되어 버린다. 병사들을 막아보려고 귀들은 애쓰지만 그들의 손에 죽고 만다. 결국 에스메랄다는 교수형에 처하고 그 장면을 탐의 꼭대기에서 프롤로 신부는 지켜본다. 카지모도는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인 프롤로 신부를 탐에서 밀어 죽인다. 이후 카지모도는 사라지고 에스메랄다의 시체를 끌어안은 채 해골로 발견된다.

** 책과 영화를 통한 나의 작은 생각의 편린들 ...

15세기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본 소설 『파리의 노트르담』은 중세가 끝날 무렵 에스메랄다와 그녀를 둘러싼 남자들간의 관계와 갈등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카지모도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관한 담론과 함께 개인적인 순애보를 그려보고 싶었다. 그렇지만 중세 시대의 혼란스러웠던 사회상과 부조화와 깨어진 관계를 보면서, 성경에서 혼란과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옥의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를 꼭 만나보고 싶었다. 바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안디옥교회”이다. 이 교회를 방문해 보면 “...바나바와 니게르라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젓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행13:1)”라고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마치 사자들과 어린양들이 한 울타리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천국의 큰 그림을 보여주기 위한 퍼즐들과 같다. 무엇이 본 소설속의 노트르담 성당의 상황과 안디옥교회 상황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일까? 그것은 진리를 통해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이 땅과 맞닿아 있어야 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본질과 사명을 담아낸 신앙의 열매가 아닌가 싶다. 그러한 공동체에 성경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는 놀라운 축복이 선언되고 있다. 주의 손이 늘 사랑하는 뉴비전 교회와 함께 하시길 중보하며.....

SOLI DEO GLORIA!
청년사마리탄 안재규목사



도전! 성경 퀴즈

제공 | 출판팀

목장: _____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1	A					2	B
	3	C		D			
				4			E
5	F					6	G
			H		7	I	
J		8	K			9	
				10	L		M
11			12	N			
						13	

-세로열쇠-

- A. 잘난 체 하며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함.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행위. (딤후 6:4)
- B. 참고 견딤. 하나님의 편에서 오래 참고 인간의 편에서 시련을 견디는 태도. (딤후 6:11)
- C.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0000이시다. (딤후 6:15)
- D. 성경에서는 종말적 관점에서 심판의 날이라는 의미와 함께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말함. (살전 5:2)
- E. 시키는 대로 복종함.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00의 자녀'라고 부름. (벧전 1:14)
- F. 어떤 신격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전승적인 설화. 꾸며진 이야기. (딤후 4:7)
- G.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롬 2:4)
- H.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이성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 술, 언행을 주의하여야 함. (딤후 3:11)
- I. 육체적 죽음보다 영적인 죽음을 뜻함. (딤후 6:9)
- J. 이 곳의 대표적 도시는 암비볼리, 네압볼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사도바울이 2~3차 선교여행 때 방문. (딤후 1:3)
- K. 말을 잘 하는 능력이나 재주. 복음을 훌륭하게 잘 전하는 언변을 가리킴. (삼상 16:18)
- L. 사도바울이 이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유익한 육체의 훈련과 비교하여 영적인 유익을 가르칠 때 사용. 죽음 이후 세상에서의 삶과 영원한 생명. (딤후 4:8)
- M. 하나님의 백성이나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 (딤후 1:13)
- N.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지혜나 생각. 성경은 하나님의 이것으로 기록됨. (딤후 3:16)

-가로열쇠-

- 1. 다른 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을 말함. (행 6:5)
- 2. 불에 달구어 찌는 쇠도장을 말하며 낙인이라고도 한다. 사도바울은 거짓 교사나 추종자를 이것 맞은 양심이라고 함. (딤후 4:2)
- 3. 모든 군왕들보다 높고 존귀한 자라는 뜻. 절대적 최고의 권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임. (딤후 6:15)
- 4. '...오직 00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7)
- 5.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도바울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이보다 더 악한 자라 하였다. (딤후 6:8)
- 6. 잘 설명하고 달래어 권하는 것.
- 7. 파괴되어 없어지다. (딤후 6:9)
- 8. 가난한 자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행위. (딤후 5:10)
- 9. 늙거나 정신이 흐려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 (딤후 4:7)
- 10. 어떤 사물이 지나온 자취를 말한다. 즉 경력이나 신상의 의미. (눅 1:2)
- 11. 남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하는 중보기도를 말한다. (딤후 2:1)
- 12.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얻는 거듭남과 함께 시작되는 영원한 삶. (딤후 1:16)
- 13. 남을 비롯고 헐뜯어 말하는 사람. (딤후 1:13)

● 응모 마감 | 2020년 8월 30일 (주일)

● 응모 방법 | 정답을 적어 교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nvcpub@newvisionchurch.org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지난호 (242호) 성경퀴즈 당첨자

*당첨자 선물은 로템이 정상화 된 후 사무실에서 찾아가세요.

최훈, 윤미영, 박영미, 최영수

Before and After COVID-19



'사진으로 보는 뉴비전'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사진에 담아 뉴비전호로 보내주세요.
nvcpub@newvisionchurch.org



향 오 수

예수님의 노래들
1 3 1 편





예수님의 노래들

COVID-19를 이기는 엄마들의 기도



COVID-19를 이기는 엄마들의 기도 “예수님의 노래들”을 모든 교우들과 또 우리 교회를 넘어 더 많은 분들과 나누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2020년 봄 향수에서 “예수님의 노래들”을 주제로 시편을 공부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한 달 남짓 공부하였을 때 COVID-19 Pandemic 이 시작되었고 교회에서 공간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게 되자 우리는 온라인으로 (Zoom & Hangouts) 예배와 말씀 공부와 기도와 나눔을 계속했습니다.

시편을 통하여 모든 나라와 전쟁과 전염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포커스하며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솔직한 기도와 찬양으로 평화의 주님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은 커다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온 세상은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Shelter-in-place의 상황에서 온 가족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기도 시를 적고 승리의 노래들을 창작하였습니다.

이 스토리들이 어둠과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선물해 줄 것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Praise the Lord!*

성혜정 전도사 | 향수예배 담당 교역자

예수님의 노래들 131편

기도시 37 편

기도시 37 편
 기도문 39 편
 간증문 53 편
 감탄문 1 편 (3 Sets)
 Children Prayer 1 편
 (6 Sets of Prayers + Photos)

4	1 시	김세라	마더와이즈 회복	예수의 노래 / 향수의 신부
5	2 시	김종원	말씀카페 인내반	주 밖에는 없네
5	3 시	박윤진	마더와이즈 자유	패스워드
6	4 시	서은영	마더와이즈 지혜	복종 1 / 복종 2
7	5 시	손명화	말씀카페 온유반	사모함
7	6 시	손명화	말씀카페 온유반	온유반 자매님들
8	7 시	손주영	마더와이즈 자유	새로운 일상에서의 기도
8	8 기도시	김나영	뉴비전 1단계	내 마음 속에 예수님
9	9 기도시	김정균	말씀카페 평화반	생명
9	10 기도시	문현숙	마더와이즈 자유	주님께 구하는 일곱 가지
10	11 기도시	박주희	말씀카페 인내반	주님 향한 열망
11	12 기도시	변지영	마더와이즈 자유	드릴것은 오직
12	13 기도시	서승희	뉴비전 3단계	격리 속에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13	14 기도시	오애란	뉴비전 3단계	하나님 감사해요!
14	15 기도시	이수연	마더와이즈 자유	주님과 우리 하나
15	16 기도시	조순희	말씀카페 평화반	감사의 기도
16	17 기도시	최윤숙	마더와이즈 지혜	우리가 교회입니다
17	18 기도시	최지선	마더와이즈 자유	잠잠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18	19 시편기도시	이한나	말씀카페 온유반	하나님 찬양
19	20 시편기도시	이한나	말씀카페 온유반	회개의 기도
20	21 시편기도시	정문경	말씀카페 평화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시편 6편
21	22 시편기도시	손명화	말씀카페 평화반	시편 23편
22	23 시편기도시	강청금	말씀카페 평화반	어미의 날개 품 아래 시편 36:7절, 60:1절, 83:18절
23	24 시편기도시	성혜정	말씀카페 온유반	늙어가지만 : 시편 72:17-18절, 92:13-14절
24	25 시편기도시	성혜정	말씀카페 온유반	종일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 : 시편 89편
25	26 시편기도시	김유미	말씀카페 평화반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사랑의 답가 시편 89:19-21절, 90:14-16절
26	27 시편기도시	문은희	말씀카페 온유반	지존자의 은밀한 곳 : 시편 91편
27	28 시편기도시	이영옥	말씀카페 온유반	한줄기의 빛 : 시편 91:1-6절
28	29 시편기도시	장복례	말씀카페 온유반	사랑받는 양 한마리 : 시편 100편
29	30 시편기도시	이한나	말씀카페 온유반	나의 하나님 : 시편 103편, 104편
30	31 시편기도시	성혜정	말씀카페 온유반	부르짖어 기도할 때 : 시편 107편
31	32 시편기도시	이영옥	말씀카페 온유반	새롭게 하여 주소서 : 시편 107:28-30절
32	33 시편기도시	성혜정	말씀카페 온유반	나 : 시편 112편
33	34 시편기도시	성혜정	말씀카페 온유반	초점 : 시편 123편
34	35 시편기도시	국은희	말씀카페 사랑반	주가 다스리네 : 시편 127편
35	36 시편기도시	성혜정	말씀카페 온유반	이렇게 살고 싶어라 : 시편 131편
35	37 시편기도시	성혜정	말씀카페 온유반	호흡이 있을 때까지 : 시편 150편

1 시

김세라

마더와이즈 회복반
부제: 마라나타
(Come ,O LORD!)



예수의 노래 (2020)

터벅 터벅 오르고 있네
갈 곳 없는 마리아..
허망한 영혼의 얼굴은
골고다 언덕으로

길 잃고 헤매이던 마리아
힘없이 걸음을 멈추네
빈 돌무덤..
끝없는 절망의 터널
무거운 침묵 앞에서

찾을 수 없어
돌 곳 없는 시선
풀썩 주저 앉아 아..아..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린
슬픔의 마리아

누군가 이름 불러주실 때
온 마음이 훌쩍 깨어나는
새벽 비탈길
그리운 그 모습

영원한 광채 비추시며
죽음과 생명의 향기로
길을 여시네~

향수의 신부 (2020)

어느 봄날 찾아온 COVID-19
이상한 계절에 놀란 마음

미스터리 바이러스로
더욱 질게 드러난
죄의 허상을 보네

쫓기듯 내몰리고
그 손으로 닫으시고
날개 그늘로 덮으셨네

가정이라는
땅끝 마을로
인도하심은 우연이 아니었음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가족
창조 전부터
천국의 아들 딸이라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신비로운 일상
당연한 것은 없었고,
없을 것임을..

새 일상의 회복을 위해
하늘 가족으로 다함께
준비되어지는 신부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향수 아내들
향수 어머니들

2 시

김종원

말씀카페 인내반

주 밖에는 없네

세상은 온통 진동하고 요동칠지라도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네
 두려움의 거친 풍랑 속을 헤치고
 주님은 걸어오시네

풍랑은 잔잔해지고 고요하게 잠이 든다

나의 손을 잡으라
 함께 가자
 두 손 가득한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주님에게 손을 내민다

더 깊은 곳으로
 은혜의 보좌로
 생명의 근원지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그 길의 처음에
 그 길의 마지막에
 오직 주 밖에는 없네

3 시

박윤진

마더와이즈 자유반

패스워드

마음이 아프다
 속이 쓰려왔다
 세상은 언제나 악한 걸 알았지만
 현실로 다가오니 충격이 크다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려고 내 노력으로 애쓴다
 패스워드가 맞지 않습니다
 가만히 주님을 바란다
 인증번호가 날아온다
 성령님이 만져주신다
 두려워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준단다
 예수님과 만난다

4 시

서은영

마더와이즈 지혜반

복종 1

정훈 선물 영원한 생명
살과 피 화목제물 되신
나의 신랑 나의 예수님

소금 언약 영원한 약속
속히 오겠다 말씀하신
나의 신랑 나의 예수님

부모의 선물 끊을 수 없는 원죄
희생제단에 드린 콩팥 하나
뒤돌아보지 않는 나는 주님의 신부

세상의 선물 멈출 수 없는 자범죄
희생제단에 드린 콩팥 둘
뒷걸음치지 않는 나는 주님의 신부

간절한 마음 담은 등불
성령의 기름 가득채워
문 열리는 밤 기다리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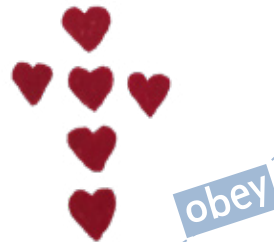
복종 2

검푸른 바다 속 같은 결혼생활
바닥 드러난 공기통 필요 없다 생각 않고
벗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출렁이는 파도 위 같은 부부관계
무겁디 무거운 공기통 거추장스럽다 불평 않고
메어주심에 감사하겠습니다.

찬란한 햇빛 내리쬐는 그로토 저편
두 팔 활짝, 두 다리 길게 뻗고
십자가 완성되는 그 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깊은 골짜기 캄캄한 동굴도
보이지 않는 생명줄 의지하여
꽃길 걷는 마음으로 지나가겠습니다.



5 시

손명화

말씀카페 온유반



사모함

아름다운 시로
 봄의 골목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누시는
 주님의 딸들의 애절한 기다림

우리들의 알팍한 지식으로 빚어진
 물질 문명에 묻혀서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면서
 조금씩 들려옵니다.
 COVID-19 의 무거운 침묵 속에
 우리들의 참 모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6 시

손명화

말씀카페 온유반

온유반 자매님들

우리 귀한 온유반 자매님들...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매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의 그림을 펼치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세상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기도의 무릎으로 깨닫게되는
 혼돈 속의 하나님의 질서를 보며,
 굳건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내는
 믿음의 어머니가... 할머니가 됩시다.

7 기도시

손주영

마더와이즈 자유반

새로운 일상에서의 기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분의 자비는
아직 도착 예정이 없어 보이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에
그럼에도 큰 희망을 주시는 그분께

두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독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어느 날
자연스레 찾아올 감사한 일상을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기대해 본다. 기도해 본다.

8 기도시

김나영

뉴비전 1단계

내 마음속에 예수님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은 어찌 그리 좋으신지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어지럽고 신음할 때에도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두 손으로 나를 안으시며 하신 말씀
내가 여기있다 나영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말씀으로 소망을 주신 주님
영원토록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9 기도시

김정균

말씀카페 평화반

생명

하루 하루에 만족한 삶, 자족하는 삶,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인정하며
높여 드리고 나에 왕이 되신 주를 찬양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이끌어 주소서, 가르쳐 주소서,
가지 쳐 주소서.

영안을 열어 주셔서 주님의 모든 행하심을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깨닫고 찬양하게 하소서.
그 사랑으로 이웃 형제를 품을 수 있게 세워 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연약한 질그릇에 담으셔서 빛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10 기도시

문현숙

마더와이즈 자유반

주님께 구하는 일곱 가지

하나, 주여 힘든 시간 땀 흘리는 자에게 은혜 내려주소서.
둘, 주여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에게 피난처 되어주소서.
셋, 주여 가진 것을 잃은 자에게 더 값진 보물로 채워주소서.
넷, 주여 미움과 갈등을 사랑과 선행으로 변화케 하시어 어려운 시간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소서.
다섯, 주여 매 순간 감사함을 느끼게 하소서.
여섯, 주여 이웃과 함께 하는 세상이 그립습니다.
서로 어울려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일곱,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에게 주의 능력 보여 주소서.

11 기도시

박주희

말씀카페 인내반

주님 향한 열망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제 작은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갈까하고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능자 하나님을 더욱 더 알고 싶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
하나님과 저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내 마음에서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앓고 섬을 아시고
모든 마음의 생각과 목상을
아시는 주님

나의 성취와 기쁨뿐 아니라
실패와 좌절 고통도
함께 하시는 전능자 앞에

때로는 눈물의 기도로
때로는 기쁨의 찬양으로
때로는 평안의 감사로 나아옵니다.

죄인을 받아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2 기도시

변지영

마더와이즈 자유반



드릴 것은 오직

주님
 세상이 모두 신음하고 있는 지금
 마음이 가난한 자 되어
 조용히 기도합니다.

씩씩하게 뛰어 놀아만 주어도 고마워
 아이 이마 송송히 맺힌 땀방울 씻어주고
 왜 그렇게 바쁘냐고 타박주던
 남편의 흰머리도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은 의료장비 없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의료진의 인터뷰에
 이웃의 근심과 아픔에 손 내미는
 교회 자매의 수줍은 웃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드리는
 이 감사를
 기꺼이 받으사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은총의 빛 비추어 주시길
 옥합을 깨뜨리던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기도합니다.

삶과 죽음의 주관자 이신 주님께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제가 드릴 것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그저 감사뿐입니다.

13 기도시

서승희

뉴비전 3단계

격리 속에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어느날 코비드 19으로 인해 집에 격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절제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밥알 한 톨의 귀함도 느꼈습니다
 갑자기 수입이 없어진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열악한 생활 환경 때문에 죽어 간 사람들이 애처로와 기도했습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계시는 주님을 느꼈습니다
 저를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느꼈습니다
 저의 마음을 저보다 더 아시는 주님
 제 안에 있는 불안과 걱정을 녹여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 감사와 경배를 올립니다
 지금의 이 현실이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거나 상상되었던 것이 결코 아니지만
 어떤 뜻이 있으실줄 압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썩은 동아줄을 잡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하나님께 엎드리거나 다시 돌아오길
 기도하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는 모르지만 선을 이루시는 계획이
 있으신 것은 압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격리 속에서의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 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살고자 합니다
 저희의 본향인 아무 고통도 없고 기쁨이 넘치는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 영생할 수 있음에 소망을 둡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men 

14 기도시

오애란

뉴비전 3단계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나에게 무얼 원하시는지요.
 훈련 받아라, 인내하라, 참아내라

분주한 내 모습, 스케줄이 꽉 찬 나의 일주일.
 주말 또 하나의 쉼이 아니었고, 스케줄을 소화하는 날
 기쁨은 온 데 간 데 없고.
 열정은 없고 의무만이.

주님, 나에게 쉼을 주시네.
 그동안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피곤하다고 스케줄이 많다고 투덜 거리던 나.
 쉼을 주시네
 여유를 주시네
 사랑을 주시네
 품어 주시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하단 말 그동안 못해서 죄송해요.
 불평해서 죄송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풍족한 삶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만 했네요.
 좋은 이웃들 주셔서 감사해요.
 가족들 무탈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 기도시

이수연

마더와이즈 자유반

주님과 우린 하나

세상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진다
그래도 변함없이 나의 어깨를
감싸주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은 이렇게 속삭이신다
“두려워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니?”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풍랑 속에서 물 위를 걸었지만,
결국 의심하는 마음이 그를
물속으로 끌어들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주님, 붙잡아주신 그 손 꼭 잡고
땅끝까지 갈게요
사랑합니다

16 기도시

조순희

말씀카페 평화반

감사의 기도

첫 화상 향수 말씀카페 소그룹 모임을 하는 날...
 이렇게라도 만나는 것이 기쁘고 반가운 것이 감사가 되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달음이 감사하고...

바쁨 속에서 놓치고 지나온 것들을 멈춤에서 돌아보는 여유를 감사하고...
 한 생명의 소중함과 귀함을 안쓰러워할 수 있는 연약함을 알게 하심이 감사하고...

각자의 환경과 형편이 다르지만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은혜의 시간이 감사가 되고...
 시편을 통해 배우는 기도와 고백으로 주께 가까이 나아갈 용기를 얻는 기쁨이 감사가 되고...

자매님들과의 교제로 삶의 지혜와 웃음, 감동과 도전을 주심에 감사하며...
 코로나-19로 재택근무 하는 남편을 통해 섬김의 현장이 감사가 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눈 앞의 상황 속에서도 그 너머 가지고 계실 계획을 소망하게 되고...
 죄의 고통과 낙심, 의심, 죽음의 두려움까지 눈물로 아뢰는 기도의 시간이 감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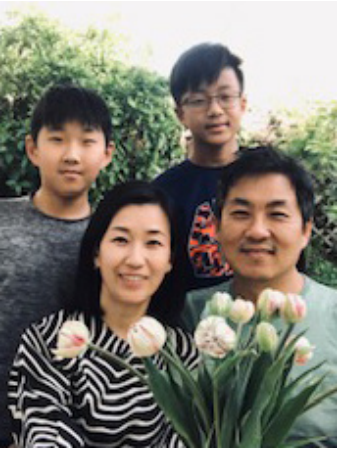
지으신 형상대로 내가 나뉘를 사랑하며 아끼는 지혜 주심이 감사하고
 이기고 승리하신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삶 전체가 되길 소망하게 되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매일 매일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17 기도시

최윤숙

마더와이즈 지혜반



우리가 교회입니다

어두운 구름이 온 세상을 덮습니다.
 고통과 죽음의 소식이 늘어납니다.
 학교, 회사,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세상은 두려움에 떨고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폭풍 앞에
 인간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일어납니다.
 더 예배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더 찬양합니다.
 더 나누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는 건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우리 자신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신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빛나게 하소서.

18 기도시

최지선

마더와이즈 자유반

잠잠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지난밤 꿈에 사탄의 검은 그림자
 저를 삼키려 할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 그대로 빛과 생명으로
 그들을 물리쳐
 저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것들 쫓느라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집앞에 심겨진 나무 한그루
 하루하루 무성해짐 속에서도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봅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대하듯 가족을 귀하게 대하라고
 범사에 감사함을 알라고 일깨워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기울이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감사와 사랑이
 제 삶에 충만하길 기도드립니다.

19 시편 기도시

이한나

말씀카페 온유반



하나님 찬양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세상은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혼돈의 늪에서 허우적이나

나는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는 그 하나님으로서
출렁이는 파도 함께 춤을 추리라

먼 산, 가까운 들이 아름다운
봄 나들이 옷으로 치장하고서
내 창문을 두드리며 봄을 노래하자네

코비드19이라는 암석을 깨뜨려서
소망의 물을 주시리라는 회복의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오늘도 행복의 길을 걸어 간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리
그의 인자하심을 내 평생 선포하면서.

20 시편 기도시

이하나

말씀카페 온유반

회개의 기도

일상에서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랐던 죄 회개합니다.

미운 사람도
좋은 사람도
만남이 주는
행복을 몰랐던
죄 회개합니다

아무 때나 갈 수 있었던 예배당
원하면 언제나 기도했던 장소
항상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죄
회개합니다.

마음놓고 말씀 배우고
사랑하고 나누고 웃고
함께 한 모든 시간들이
왜 이리도 그리워지는지

좋은 것을 당연히 여긴 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금홀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뜻 따른 삶을 살면서
사랑을 나누며 기뻐하는
일상을 회복시켜 주소서

21 시편 기도시

정문경

말씀카페 평화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지치나이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일하시는
주님이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칠 때에 내 손 잡아주시고
내 눈물 위로하시는 주님
오늘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지칠지라도 새 힘 부어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사하시고
속히 새 날 열어 주옵소서.

thanks



22 시편 기도시

손명화

말씀카페 온유반

시편 23편

하나님,
 사십 고개를 넘으면서,
 시편 23편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남편을,
 저는 이제야
 그때의 남편과 같은 마음으로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섯 구절로
 한 권의 책을 만들어 나누었던
 남편의 그때 심경을
 얼마나 속속들이 헤아려보려고
 노력하며 제가 살았을까?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남편의 호흡소리같이 느껴지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변화되어,
 항상 따뜻하게 잡아주던
 남편의 손길을 대신합니다.
 홀로 방황하고 외로울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강가로
 저를 인도하소서.....

23 시편 기도시

강창금

말씀카페 평화반

어미의 날개 품 아래

따스한 그의 품에 시린 바람 지나고
하루를 만져 주시니
아무 것도 아닌 내가 나로 태어나
무능과 불능을 보게 하시고
악함에 뼈를 세우고
악함에 피를 통하고
물이 살이 되고 날개가 생기는
다시는 돌아올 수도 없는 나를 세우는 시간

좌충우돌 고민이 나눔이 되고
나의 아픔이 그들의 위로가 되며
나눔을 받아먹고 비전을 품는
한번도 안 해 보고 안 가 본 길을
제자가 되고 형제가 되어 가족이 만들어지는
알에서 만나지는 품 속 이야기
비상을 준비하며 함께 커가는 시간

감정이 휘몰아치고 고꾸라지는 절망에 애통할 때
일어나라 너는 내라 하시고
소금이 소금 되듯 내가 내가 되는
더도 덜도 아닌 내가 다시 세워지는
아프고 힘들어도 즐거운 하루
엄마 새의 비상으로 저 하늘 갈 때
기지개 한 번으로 떠나가 버릴
다시 오지 않을 빈 등지의 아련하고 반짝일 황금 같은 시간

시편 36:7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시편 60:1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시편 83:18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 자로 알게 하소서.

3부분으로 된 시를 만들어 나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준비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학기에 이사와 집 공사로 힘든 상황 속에서 집 야드에 등지를 틀고 어미 새가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괜찮다 내가 너를 품고 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이겨나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4 시편 기도시

성혜정

말씀카페 온유반
시편 72:17-18절,
시편 92:13-14절을
읽고 지은 기도시

늡어가지만

늡어가지만
의기소침해지지 않게 하소서.
기력이 없어지고
여기 저기 아픈 곳이 늡어날 때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게 하시고
늡는 것에 상관없이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힘내어 더욱 사모하게 하소서.

늡어가지만
나의 정체성과 가치를 잃지 않게 하소서.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스런 딸이며
목자이신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소중한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며
마음과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 주소서.

늡어가지만
은 힘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며
깊은 기도와 풍요로운 믿음으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소서.
날이 갈수록
영적 활력이 왕성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깊은 지혜가
샘솟듯 흘러나오게 하소서.

늡어가지만
겸손을 키우게 하소서.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근심에 젖은 여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용서받은 죄가
점점 늡어나는 것을 지켜보며
겸손을 배우며
끝까지 참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인내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하소서.

늡어가지만
경이감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창조 세계와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도록 눈을 열어 주시고
감탄하며 감사하는 삶 살아가며
언제나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고
힘있을 때까지 즐겁게 일하며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돕고 섬기며
친절과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행복한 삶 살게 하소서. 아멘

시편 72:17-18절 하나님이며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며 내가 늡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까지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92:13-14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늡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25 시편 기도시

성혜정

말씀카페 온유반
시편 89편 기도시

종일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소리쳐 노래하게 하소서.

슬픔과 고통가운데서도
어떤 원망이나 의심없이
소리쳐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의 얼굴 빛 광채가
나의 힘이요 영광이기에
당신 한 분 때문에
종일 기뻐하게 하시고

COVID-19 위험 속에서도
당신을 소망하며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면서
소리쳐 노래하게 하소서.

시편 89: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26 시편 기도시

김유미

말씀카페 평화반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사랑의 답가

하늘도 주의 것 땅도 온 세계도
모두 주님의 지으신 것
시간도, 만남도, 관계도, 호흡도 주님의 것
티끌로 돌아갈 것을 명하신다
인생은 고작 수고와 슬픔뿐임을 알라
시드는 풀과 마르는 꽃이라는 분수를 알라
주님 앞에 참된 본질, 죄인의 모습을
깨닫는 명철과 슬기를 고통의 진주로 품는다
주 앞에 복된 자의 자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생명의 삶의 맛
주의 장막에서 빛나는 아침 해가 어찌나
달콤한지요.
순간순간 맞닥뜨리는 한계와 부족으로
불만족에 괴로와하면
하찮은 나를 위해 세계를 움직이시어
위대하고 귀한 주의 종들로 나를 위로케
하시며 견고한 팔을 힘있게 뻗어 주의 의의
길로 가는 침경을 온유하게 보여주시고
깃가에 나를 향한 사랑의 노래를 들려 주시니
그 메아리가 주의 지으신 하늘과 땅에 메아리
쳐 가슴을 성령님께서 사무치게 울리십니다.

이에 주님께 사랑의 답가를 올려드립니다.
다시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평강의 샘이
솟습니다.
주님, 이토록 모든 피조물을 아끼고 사랑하시
는 창조주...
나의 주 여호와와 사무치는 이름이여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담아
당신이 주신 그 호흡을 평생의 삶에 담아
감사와 기쁨과 탄성이 입술을 타고 만들어지는
찬양을 담아
나의 수치를 자랑으로 만드시는 기도를 담아
온 공간을 노래로 울립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영원히 견고하소서 더욱 위대하소서
당신의 빛나는 광채 그룹을 타고 광음으로
오르시는 능률함 천지와 온 우주를 호령하시는
우리와 같은 음성
말씀으로 천지를 있게 하시는 능력
나의 죄보다 더 큰 십자가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나의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님 지극히 사랑합니다.

주님, 그 한량없는 무모한 사랑,
그 섬세한 정성... 더욱 구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더 큰 영광과 사랑으로 나타내소서.
주의 귀한 종, 잃어버린 양 떼를 찾아와
구름처럼 몰고 돌아오는
택함 받은 용사, 능력 있는 주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백성이 되게 하소서
그러나 그 본질은 시드는 풀과 마르는 꽃임을
아는 지혜자가 되게 하소서.

시편 89:19-21절

19 그 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20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21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시편 90:14-16절

14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6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27 시편 기도시

문은희

말씀카페 온유반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나의 지존자이신 그 분이

나를 은밀한 그 곳에
주의 장막에
나를 은밀한 곳에 덮어 두사...
우리의 삶이
그 울무의 심한 전염병에서
그 크신 날개의 품 안으로
덮음으로
그 재앙은 두려움없이
두손들고 나가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8 시편 기도시

이영옥

말씀카페 온유반
시편 91:1-6절

한줄기의 빛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니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이 암담한 어두움 속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양들을 위해
한줄기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의 자비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지팡이 되시는
목자의 애절한 눈물과 기다림으로
낮추고 낮추어 회개하며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

구원과 평강의 은혜가 흐르고
주의 의의 길로 승리하는
축복 주심을 믿기 때문이죠.

골고다 언덕의 숭고한 아름다움 아래
감내할 수 있는 환난을 함께 나누며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이웃을 위한 기도로
전능의 하나님을 더 바라며 이겨 나가요.

구원의 날개 아래 그 사랑 감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안에 겸손한 열정을 닦아가요.

저 높고 영원한 행복의 나라를
기뻐 즐거워하니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내 마음에 울려와요.

우리 그 날을
설레임으로 기다리며
깨어 함께 기도해요.

29 시편 기도시

장복례

말씀카페 온유반
시편 100편



사랑받는 양 한마리

나는 그의 사랑받는 한 마리 양입니다
그 분이 만드셨으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죄인 된
나를 위해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한 마리 양입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분을 섬기며 노래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춤추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내 후손의 후손까지
영원하다고.
아멘



30 시편 기도시

이한나

말씀카페 온유반
시편 103,104편

나의 하나님

나의 힘든 여정에
나를 지켜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의 아픔이 영원하지 않고
당신 안에 영생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남은
나그네 길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
실천하는 믿음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인생이 아침 이슬 같아
한 순간 반짝이다
돋는 햇빛에 사라지는
눈물임을 알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람이 꽃잎을 스치듯
나의 날들이 흔적없이 사라질 때
창조주를 생각하며 기도하리다.



31 시편 기도시

성혜정

말씀카페 온유반
시편 107편 기도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어김없이 들으신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어떤 죄도 용서하신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어떤 병도 고쳐 주신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은혜의 선물을 주시니까요.

시편 107:13,19,28
이에 그들이 그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32 시편 기도시

이영옥

말씀카페 온유반
시편 107:28-30절

새롭게 하여 주소서

눈을 뜨면
쏟아지는 세상 미디어와
COVID-19 위협으로
내 마음 가라앉을 때
생명의 빛이 비쳐옵니다.

“지존자의 날개 아래 안겨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거운 묶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내 영혼의 절규를 들으시고
자비로운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주를 찾고 의지하며
소망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아름다운 대자연 속
싱그러운 나무 위 푸른 하늘을 향하는
지저귀는 새들의 희망찬 노랫소리
은혜의 찬양으로 들려옵니다.

“주는 나의 기쁨
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
이 고난이 주님의 구원이심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온전히 회개하여 풀림 받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여 주소서.

새 힘과 지혜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의의 길로 나아갑니다.

열방의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소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그 사랑 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꿈처럼
대대손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소서.

33 시편 기도시

성혜정

말씀카페 온유반
시편 112편 기도시

나

나.
하나님 닮은
아름답고 사랑스런 존재.

아침마다
하늘 광채 입으며
하늘 향기 덧입는
주님 얼굴 구하는 것이
나의 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기쁨.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웃고
슬픈 자들과 함께 울며
후히 나누고 베푸는 것이
나의 행복.

어떤 소문이 들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굳게 마음 정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는 주님의 딸.
나.

34 시편 기도시

성혜정

말씀카페 온유반
시편 123편 기도시

초점

삶의 초점이
주님께 있게 하소서.
매 순간
마음을 산만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벗어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손짓 하나에 담긴 뜻을 읽어내려고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종처럼
주님의 뜻 헤아리고 순종하는 것을
삶의 첫번째 과제로 삼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주님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사오니 (요 15:5)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소서.

시편 123:1-2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5 시편 기도시

국은희

말씀카페 사랑반
시편 127편

주가 다스리시네

전능의주 내아버지 나만드심 감사하네
내아버지 은혜주사 주님알게 하시었네
이얼마나 은혜인가 내주예수 나의구원

나의주는 거룩한주 공의로서 다스리네
오늘세상 오늘고통 주님께서 치유하네
나는믿네 우리주님 이세계를 만지시어
거룩하고 정결하게 새옷입혀 구원하네

주의자비 주의금흠 단한번도 멈춤없네
한맘되어 기도하며 주님앞에 엎드릴때
오늘한숨 기쁨되고 오늘고통 소망되네
주님께서 이루시네 한영혼도 놓치않네

물이바다 덮음같이 충만하신 주의영광
온땅위에 임하시어 주의언약 이루소서
주의질서 회복되고 주의나라 확장되리
주의은혜 놀랍도다 한량없는 주의구원

내게말긴 오늘의날 기쁨으로 화답하고
내게말긴 우리가정 말씀따라 순종하며
믿음가정 믿음기업 주의약속 귀히여겨
충성되이 주뜻배워 사랑으로 주섬기리

낮은마음 주께드려 주의이름 드높이세
거룩하신 주의이름 능력의왕 내주예수
나는믿네 우리주님 협력하여 선이루네
주의통치 완전하네 영원토록 할렐루야

36 시편 기도시

성혜정

말씀카페 온유반
시편 131편 기도시

이렇게 살고 싶어라

높아지기를 힘쓰거나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으며
오직
주님 품으로 만족하며
영혼의 고요함 속에
쉽과 안식의 삶 살고 싶어라.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 떼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 떼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37 시편 기도시

성혜정

말씀카페 온유반
시편 150편 기도시

호흡이 있을 때 까지

고통으로 아뢰는 기도
찬양으로 변하네

눈물의 회개와 고백은
용서받은 기쁨으로
슬픔의 탄식은
위로와 안식으로

주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
찬양으로 변하니
어디서나
무엇이든
언제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온 맘 다하여
호흡이 있을 때까지
맥박이 뛸 때까지
찬양의 삶 살리라.

시편 150:1-6절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좇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 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노래들 131편

- 기도시 37 편
- 기도문 39 편
- 간증문 53 편
- 감탄문 1 편 (3 Sets)
- Children Prayer 1 편
- (6 Sets of Prayers + Photos)

기도문 39 편

37	1	기도문	강지영	마더와이즈 회복	주님 앞으로
38	2	기도문	국은희	말씀카페 사랑반	2020 봄향수 온라인예배
39	3	기도문	김민아	뉴비전 3단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
41	4	기도문	김민정	뉴비전 3단계	아이들을 위한 기도
41	5	기도문	김선숙	말씀카페 사랑반	고난의 축복
42	6	기도문	김종립	뉴비전 3단계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43	7	기도문	김지혜	마더와이즈 회복	예수님의 노래 (COVID-19을 지나며)
44	8	기도문	김혜은	마더와이즈 회복	알 수 없는 미래...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45	9	기도문	박민수	마더와이즈 회복	(Covid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46	10	기도문	박영미	말씀카페 사랑반	주 말씀 통해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는 축복
47	11	기도문	박정하	말씀카페 사랑반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문
48	12	기도문	배새론	마더와이즈 지혜	나의 유일한 평안, 하나님
48,49	13	기도문	서은영	마더와이즈 지혜	동행
50	14	기도문	원은경	마더와이즈 회복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51	15	기도문	윤미영	마더와이즈 지혜	예수님의 노래 (COVID-19을 지나며 드리는 기도)
52	16	기도문	윤정애	말씀카페 기쁨반	어떤 환경에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53	17	기도문	이지연	말씀카페 사랑반	잠시 멈춤의 축복
54	18	기도문	이향숙	마더와이즈 자유	살리시는 주님
55	19	기도문	전연향	말씀카페 사랑반	주님께 올리는 나의 기도문
56,57	20	기도문	정신애	마더와이즈 회복	1. 절망 중에 드린 기도 2. 바닥에서 하늘 보좌를 향해 부르짖은 기도 3. 그 분의 품에 기대어 드린 기도
58	21	기도문	조순임	말씀카페 기쁨반	위기를 새로운 변화로 바꿔주시는 주님
59	22	기도문	주영은	말씀카페 사랑반	2020 봄향수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60	23	기도문	최정윤	마더와이즈 자유	주님은 센스쟁이
61	24	기도문	최희주	마더와이즈 지혜	예수님의 기도 (COVID-19을 지나며 드리는 기도)
61	25	기도문	한여정	마더와이즈 지혜	COVID-19을 위한 기도
62	26	시편기도문	김효정	말씀카페 기쁨반	2020년 4월의 기도
63	27	시편기도문	송혜란	말씀카페 기쁨반	산책 단상
64	28	시편기도문	정예진	마더와이즈 지혜	회개만이 회복으로 가는 길 : 시편 51편
65	29	시편기도문	국은희	말씀카페 사랑반	임마누엘 기도 : 시편 66:9절
66	30	시편기도문	국은희	말씀카페 사랑반	내 평생의 소속감 : 시편 89편
67	31	시편기도문	이효미	마더와이즈 지혜	예수님의 노래 : 시편91편 (COVID-19을 지나며 드린 기도)
68	32	시편기도문	사랑반	말씀카페 사랑반	시편 사랑 구원시 : 시편 103편
69	33	시편기도문	안혜영	말씀카페 사랑반	시편 109편 기도문
70	34	시편기도문	국은희	말씀카페 사랑반	의미있는 오늘 : 시편126편
71	35	시편기도문	장영미	말씀카페 온유반	COVID19을 위한 기도 : 시편 126:5절
72	36	시편기도문	유민경	말씀카페 사랑반	믿음의 가정 : 시편 127:3-5절
73	37	시편기도문	김영지	말씀카페 사랑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 시편 128:1절
74	38	시편기도문	박영미	말씀카페 사랑반	밤의 시간, 함께 하신 주 찬양 : 시편 150:6절
75	39	시편기도문	사랑반	말씀카페 사랑반	호흡이 있는 자마다 : 시편 150편

1 기도문

강지영

마더와이즈 회복

주님 앞으로

주님,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COVID-19으로 인해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상하지도, 계획하지도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리고 주님이 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이끌고 계시기에 두려워할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립니다.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 주님을 신뢰하며 저와 가족이 이 시간에 깨닫고 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 예상치 못하게 가족을 주님 곁으로 보낸신 분들, 그리고 이 전염병으로 인해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이 여겨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위로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의 자리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극진한 보살핌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우시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저와 저희 가정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기도가 주님께 닿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모두 보게 되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기도문

국은희

말씀카페 사랑반

2020 봄향수 온라인 예배

3/10/2020 봄향수 첫 온라인 예배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으신지요. COVID-19 으로 인하여 정부의 Shelter in Place 시행령에 따라 각 가정으로 흩어졌지만, 향수 전도사님과 한마음되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어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향수 예배와 소그룹 나눔을 지속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향수!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게 됨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실오라기 같은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산을 옮기는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구쫓두! 이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향수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3/17/2020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향수예배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봄입니다. 향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씩 온라인 상으로 찾아오는 발걸음이 참 기뻐던 날~ 자매님들이 온라인에서 만나 향수예배를 드리는 동안, 보이지 않는 형제님들의 수고와 더불어 성령의 만지심이 더하여졌습니다. 또한 몇 자매님들은 자녀가 어리거나, 다른 일들로 안타깝게도 참석을 못했지만, 마음으로 정성으로 힘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가정을 성실히 섬기며 향수예배를 기도하며 사모하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가정에서 드린 온라인 향수 예배! 가족이 모두 함께 드린 예배가 되게 하심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8)

3/24/2020

오늘의 향수 예배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향수 예배자의 마음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Zoom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이삼십 분 지체되었는데, 흩어지지 않고 예배를 기다리는 향수 자매님들과 한 자매님이 번개같이 zoom을 오픈해 주셔서 온라인 예배를 꼭 드리고픈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예배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online service

2 기도문

국은희

말씀카페 사랑반

2020 봄향수 온라인 예배



3/24/2020

첫 향수 어린이 홈 바이블 클럽 (Children Home Bible Club) 후 할렐루야! 새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숨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 낼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자녀들의 향수 Child Home Bible Club 사진들이 보내져 오고 있어요.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어린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마음과 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엄마들의 한결같은 주와 동행하는 마음이 믿음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굳게 믿고 기도하게 되어요.

4/28/2020

5가지 주제로 어린이 홈 바이블 클럽 CHBC 교재로 예수님을 배우며...우리반 자매님들의 가정이 매주 자녀와 함께 예수님을 배우고 서로를 배우는 귀한 시간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CHBC (어린이 홈 바이블 클럽) 을 통하여 감사의 인사가 몇 주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어요.

- * 준비하신 성경자료와 손길에 정성이 듬뿍 담긴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 * 아이들의 두 손 모아 쓴 기도를 귀하게 여겨 주심 참 감사합니다!
- * 아이들이 숙제를 다 마치기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기다려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어, 이로 인하여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CHBC는 자녀들에게 주께 나아감이 복 되도록 길을 열어 주시네요.
- * 아이들의 손글씨 기도를 일일이 타이핑해서 아이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겨 주심 감사해요!
- * 향수 소그룹 예배를 마치고 나서...오늘도 덕분에 편하게 향수 공부한 것 같아요! 감사 인사 합니다~
- * 두 번째로 받은 선물~ 아이가 넘 신나하며 앉은 자리에서 책 반 권을 끝냈다는! ^^ 감사합니다!
- * 참 감사한 CHBC 준비팀 선물과 카드 문구 감동입니다.
Hi _____, You did an awesome job!
God is so pleased with you! Enjoy your gift!



3 기도문

김민아

뉴비전 3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1:8)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새 은혜를 입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병든 부분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금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듯 어렵고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문제를 잡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미국과 전세계의 고통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와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어려움의 시간이 낙심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모든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지금 처한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됨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저희 자녀를 서는 발걸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언약의 메세지를 붙잡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의 시대는 악하고 영적으로 더욱 흥미한 시대가 올텐데 저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의 힘을 얻으며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현실과 환경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로 뿌리내리게 하셔서 재앙받는 이 세상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과 그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시고 매순간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로 부름받은 확신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 저희들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에 그루터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힘 주시고 임마누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부모된 우리도 신실히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기도문

김민정

뉴비전 3단계

아이들을 위한 기도

주님 저에게 두 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아이들을 주님께서 꼭 만나 주세요. 주님을 아는 지혜가 날마다 커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과 구분된 삶을 살도록 해 주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함께 해 주세요. 주와 함께하여 늘 형통케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5 기도문

김선숙

말씀카페 사랑반

고난의 축복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천국을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무한한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온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같은 나태함과 안일함으로 나를 속이며 살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공포에 휩싸이고 곳곳에서 사재기와 격리와 의료품 부족을 들으며 처치가 힘든 시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세상의 삶을 전부로 생각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진 영생을 귀한 줄 모르고 잊고 산 것은 아닌지 내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그 동안의 잘못을 뉘우치며 주님께 돌이킬 수 있음에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6 기도문

김종립

뉴비전 3단계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요, 요즘은 다른 자유이긴 하지만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에만 있으면서 이전의 일상생활에서 아무 감사함 없이 지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파아란 하늘,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는 푸르른 나무 꽃들까지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에 존재감 없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빼앗겨 버린 일상의 평범했던 일들, 주일에 모이지 못하는 예배와 같이 모여 부르지 못하는 찬양도 지금의 생활들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나 종식 될런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날들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걱정과 두려움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여서 주님께 영광의 예배와 찬송을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말씀 묵상과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 어떤 대적으로부터도 지켜 주시고 곧 좋은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주의 평강 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소서.

recovery



7 기도문

김지혜

마더와이즈 지혜

예수님의 노래 (COVID-19을 지나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생활속에서 진정으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실시간으로 들려오는 세상 소식들 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오늘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맞추어 판단하며 행동했던 나날들도 고백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것보다 어려울수록 함께 나누고 커지는 기쁨을 느끼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남편과 제가 일하러 가는 길과 일터에도 늘 함께 하여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Hate crime으로부터 우리 부부와 아기를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로
 인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 형제자매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내일, 우리 부부가 주님 말씀을 읽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 기도문

김혜은

마더와이즈 회복

알 수 없는 미래...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터널이 얼마만큼 또 얼마쯤에 있는지 알 수 없어도 말씀이 빛 되시니 참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진실이고 선한 목자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더욱 신뢰합니다. 기다림의 시간도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허락하시고 모든 발걸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놓쳤던 감사와 가장 가까이 사랑하고 아껴줘야 할 가족들과의 시간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본질된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이제 그것에 집중하며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허락하신 선물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투자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심장에 넣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소망이 충만합니다. 십자가 죽음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 성도들과 교회 안에 있습니다.

계속 성령충만, 말씀충만, 기도충만하여 주께 삶 전체로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끊임없게 하소서.

만군의 주 되신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 기도문

박민수

마더와이즈 회복

(COVID-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니 예배 장소가, 만나는 시간이, 소그룹의 인원들이, 들려졌던 찬양들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었음을 다시 보게 하시고 지금이나 마 그 때를 생각하며 다시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또 저희가 가족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구하면서도 막상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되었을 때에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하는가로 오히려 상황을 원망하고 나만의 시간이 없다고 불평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로 하여금 저의 알팍한 속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때에도 같이 모일 수 있는 여러 새로운 기술들이 이미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두가 이렇게 배우게 하시고 또 동참하기를 기뻐하는 상황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어서 그 아픔이 회복되는 시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또 가장 위험한 곳에서 환자들을 보고 치료에 전념하며, 백신을 발견하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10 기도문

박영미

말씀카페 사랑반

주 말씀 통해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는 축복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지어~ 나의 아버지를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주님!

제 개인으로는 육신의 아버지께서 노환으로 계속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신다는 소식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막내 아이의 대입 결과 발표로 마음 졸이던 시간에, COVID-19로 인한 큰 아이의 lay off의 현실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지럽고 아프고 힘든다는 소식이 들려올수록 저로 하여금 꼭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 *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모두 진실이 아님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 * 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 *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해 주십시오.
- * 제가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을 함께 하고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 * 주님의 계획은 저의 계획보다 늘 완전하심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 * 이 모든 일들은 세상의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서 주의 사랑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지난 몇 주간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이렇게 제 마음이 가난해지고 보니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야 보입니다. 제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시야를 얻게 되는 축복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니 하나님께 시야가 고정되는 기쁨을 맛보아 아는 축복을 누립니다.

주여!

주의 변치않는 영원한 사랑! 꼭 기억하겠습니다.

11 기도문

박정하

말씀카페 사랑반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문

온 세상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코로나의 한복판에서조차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지어,

매일 차려야 하는 세끼 밥상을 두고 불평하는 저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봅니다. 빵 한 조각이 없어 주린 배를 붙들고 자식을 데리고 가라고 외쳐대는 어느 부모의 외침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저의 불평이 복에 겨운 사치임을 깨닫고 풍족한 음식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더 이상 제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아이에게 저의 시간을 송두리째 뺏겼다고 불평하는 저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봅니다. 여러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충분한 엄마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과 엄마의 통제를 벗어나 대화가 통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저의 불평이 복에 겨운 사치임을 깨닫고 딸아이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가며 온전한 하나님의 딸로 양육할 수 있음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남편을 향해 모든 일들이 고스란히 저의 몫이 되었다고 불평하는 저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봅니다. 하루 아침에 해고되어 직장을 잃은 가장들과 하나 둘씩 굳게 닫혀 가는 가게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저의 불평이 복에 겨운 사치임을 깨닫고 긍휼함으로 힘겹게 일하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 수고함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저의 모든 불평들이,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했던 사치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저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와 나눔으로 저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 기도문

배새론

마더와이즈 지혜

나의 유일한 평안,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저희는 모두 집에서 자가격리하며
 이 시기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가고 모임을 가지던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저희 모습을 보며
 저희 앞에 있는 세상의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리고 유일한 평안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힘든 시간 동안 믿음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3 기도문

서은영

마더와이즈 지혜

동행

02/18/2020
 <서울에 COVID-19 지역 감염자가 발생한 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기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어
 내가 선 땅이 고센 땅이요, 우리 가정이 고센 땅이요, 우리 교회가 고센 땅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고센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3/17/2020
 <시편 23편 두려움을 아뢰는 기도를 배우고...>
 두려움을 신뢰로 바꾸시는 하나님,
 가족의 건강을 지켜 주세요. 특별히 폐 기능이 떨어지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사 부모를
 앞서는 불효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 아들의 슬픈 마음을 천국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3 기도문

서은영

마더와이즈 지혜

동행

03/21/2020

<인적이 끊긴 베니스 운하에 나타난 돌고래 사진을 보며...>

회복의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소중한데 저희 인간들이 자연을 못살게 굴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을 천 대, 만 대 물려줄 수 있도록 조심히 사용하는 지혜를 지혜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03/30/2020

<의사 친구로부터 한 달 동안 그로서리 마켓에 가지 말라는 연락을 받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친구가 foot doctor 공부를 접고 갑상선 전문의가 된 것은 주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비공식 주치의로서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는 친구와 모든 essential worker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COVID-19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04/07/2020

<친구가 오렌지와 브로콜리를 한 아름 안고 찾아온 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토요일에는 여동생이 육류와 유제품을, 오늘은 친구가 야채와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장을 보며 저를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의 풍성함으로 공급하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04/18/2020

<의아심을 아뢰는 기도를 배운 후 개점 휴업한 날...>

쉽과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달 넘게 take-out 없이 하루 세 끼 식사, 스낵과 디저트까지 준비하니 제 손가락, 손목, 무릎, 발목까지 다 아프고 어그러집니다. 오늘은 저를 위해 쉬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식사 해결의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는 튼튼한 손목과 곧은 다리를 주세요. 내일부터는 예수님 신들메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되새기며 가족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 기도문

원은경

마더와이즈 회복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 변함없으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를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사랑의 주님, COVID-19으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평범한 일상들이 모두 주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요, 큰 축복이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은혜들을 당연시하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 삶의 참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세상을 향했던 시선과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 집중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바라보도록 이 시간을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생존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영생을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재정립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서 기다리며 주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살도록 결단하는 위대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긍휼과 인자가 많으신 엘 사다이 주님, 주의 권능으로 코로나를 속히 퇴치해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셔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민족이 고침을 받고 여호와께 돌아와 주를 경배하도록 예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 주님의 몸 된 교회인 우리들을 정결하고 새롭게 세워주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주만 따르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다가 물로 가득한 것처럼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주님의 그 날을 바라고 사모하고 기다리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신랑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15 기도문

윤미영

마더와이즈 지혜

예수님의 노래 (COVID-19을 지나며 드리는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처음에 전 세계적인 이 사태를 보며 예수님이 금방 오시려나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다시 읽어본 것 아시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하셨지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되신 예수님을 언제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고 하셨지요. 분주했던 일상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과연 얼마만큼의 일들이 예수님께서 꼭 원하시는 일들이었는지 알게 하시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며 게을러지는 저를 보시고 허리통증을 허락하시어 다시 정신 차리고 깨어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려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저라면 보이는 상황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떨었겠지만, 지금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예수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해요.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는 모습을 매일 지켜보며 그가 날마다 얼마나 수고해 왔는지를 다시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그를 더 깊이 만나주세요.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사랑을 맘껏 누리게 해주세요. 다일, 다현이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매일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을 누리며 예수님의 인도하심따라 이 마지막 세대에 당신의 군사로 무장되고 쓰임 받는 아들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또한 이번 일로 가족을 잃은 분들,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의료의 일선에서 힘들게 섬기고 계신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저와 전 세계의 믿음의 지체들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인생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분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의 소망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매일 주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시고 만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 통로로 소통하는 자들에게 무시로 예수님을 전하도록 저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세요.

죽음과 사망의 자리에 있던 저를 생명으로 옮기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 감사하고 사랑해요.

16 기도문

윤정애

말씀카피 기쁨반

어떤 환경에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15

처음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음식물을 미리 사 두어야 하고 아이들은 학교도 갈 수 없고 사회적 거리를 두며 활동해야 하는 것이 사전에 조심하면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으니 당연히 질서를 따라야지 했습니다. 점점 뉴스를 통하여 환자가 늘어가고 아직 치료 약은 나오지 않으니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3주 정도만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기약을 알 수 없게 되니 많이 슬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많은 것을 공급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 *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대화하며 서로를 더욱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 * 주변에 의료기관과 생필품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고마움을 잊고 살았는데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 * 카톡이나 SNS를 통하여 귀한 글들, 정보들을 보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 * 학교 선생님들의 큰 수고와 스몰 비즈니스를 통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모르고 지내게 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 * 무엇보다 교회에서, 소모임에서 형제자매님들과 맘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 모든 순간에 무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 조건보다 앞으로 더 풍성하게 임재하시고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저는 코로나 초기에 젖먹이처럼 막연함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잊고 있었지만,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영원한 분이시기에 어느새 저를 코로나로 인하여 감사 찬양하게 하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의 머리카락도 셀 수 있으신 그분께 오늘도 붙어 있으렵니다.

17 기도문

이지연

말씀카페 사랑반

잠시 멈춤의 축복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추니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바쁘게 움직이던 사회가 멈추니 자연이 숨을 쉬고 ‘회복’ 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던 인간도 잠시 멈춤 속에 ‘회복’ 하는 시간이 되리라는 것이.
 세상 속의 물질의 풍요도, 자량이 되었던 모든 것들도 다 부질없는 것임을
 짚어 없어질 것들이 무엇이고 영원한 것들이 무엇인지 분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최고의 선물임을.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그 후 달라질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짐이 축복임을.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추니 이 모든 것이 더 명확해진다.

사거리의 빨간 불 앞에 선 것과 같은 시간
 우리의 회개와 기도와 겸손이 공존할 때
 바른 길로 향하는 초록 등이 다시 켜질 것을 믿고
 겸손하게 기다리며 세상 속에 분주했던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돌아볼 시간과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젠가 빨간 불이 꺼지고 다시 초록 불이 켜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이전의 삶과 같지 않을 것을
 설레며 또 그 도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우리 안에 더 크게 자리 잡으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일상이 우리의 일상이 되길 소원하며 기다립니다.

꾸짖기보다 기다려주시고 멸하시기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결국에 다시 큰 품 안에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8 기도문

이향숙

마더와이즈 자유



살리시는 주님

사랑의 하나님!

미련함을 모르고 바쁘게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풍요로웠던 일상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지난 날들이 더없이 소중한 감사했음을 느끼는 때입니다.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시어 ‘하나님만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의 살리심이 절실히 필요한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두려움과 탐욕에서 구해 주세요.

주님! 가족을 잃은 이들의 마음에 위로를 더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노약자와 어린이가 있는 가정을 보호하여 주세요.

주님! 당신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세요.

주님! 불신과 절제되지 못했던 지난날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회개와 회복으로 참 자유를 알게 하여 주세요.

주님! 사랑과 평화로 하나 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됨을 배우는 이 시간이 진정으로 귀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을 알아가는 저의 믿음이, 저희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큰 유산이길 기대합니다. 이 순간에도 승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19 기도문

전연향

말씀카페 사랑반

주님께 올리는 나의 기도문

주님

두려움과 근심이 저의 영혼을 흔들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소서.

어떤 힘든 상황일 때도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성실함을 믿게 하소서.

심령의 갈급함으로 매일 주님을 사모하고
성소로 들어가 주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이 더 소중함을 깨닫게 하소서.

온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배우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0 기도문

정신애

마더와이즈 회복

1. 절망 중에 드린 기도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순간 너무나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도 이와 같겠구나...
 전쟁이 났었을 때, 지진과 쓰나미를 만났을 때, 유대인 학살이 일어나던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간을 보냈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아니어서 감사하고
 하늘의 재앙이 아니어서 감사하고
 물과 전기가 끊기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어찌나 감사한지요.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었어요.
 이 터널을 지나서 뒤를 돌아보고 부끄러운 가정이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생명을 잃지 않아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들이 있고
 재난이 멈추고 나면 생명을 보존한 자는 복구하는데 인생을 걸어야 하는데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전 세계가 안정을 되찾을 때
 빛 가운데 드러나는 먼지처럼 저희 가정이 드러날 때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음식이 버려졌는데 이웃이 굶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 집은 운동하며 건강을 지키느라 바빴는데 이웃이 아팠는데 아무런 도움을
 못 주었으면 어떡하지?
 아이들의 학교 수업은 홈스쿨로 학습결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아이들의 썬데이 스쿨은 제쳐두어 말씀의 결핍이 오면 어떡하지?
 장을 보는 위험은 감수하면서 사랑을 나르는 위험을 감수하지 못했다면
 우린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래서 필요한 것만 사려고 노력했고
 누군가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나의 것을 반으로 나누어 가져다주었고
 아침마다 큐티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바이블 홈스쿨에 열을 내었는데
 지금 저희 가정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저의 선한 의지만 가득한 걸 보고 나니
 저는 심장이 녹아내릴 것 같습니다..

20 기도문

정신애

마더와이즈 회복



2. 바닥에서 하늘 보좌를 향해 부르짖은 기도

그런데 아직도 저는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기보다
 일단 내 머리로 분석하고 원인을 따져 고쳐보려 하고
 회개하기보다 변호하며
 감사를 가장하며 자랑하고
 나를 죽이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부끄럽지 않기를 구하면서
 스스로 의의 옷을 지어 입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신방을 차리고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꿈꾸지 않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딸을... 이 딸을... 살려 주세요.
 아내로서 엄마로서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딸로서 잘살고 싶었는데...
 하나님 마음과 뜻이 아니라 제 마음과 뜻대로 그리는 저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또 너무나 뻔뻔하게 예수님 뒤에 서서
 하나님 아파 앞에 왔어요.
 저란 아이는 어찌면 좋을까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다 도리어 숨을 곳만 찾게 되었어요.
 아빠... 제가 잘못된 건 알겠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하고 싶은데...
 저는 또 이러겠죠?

20 기도문

정신애

마더와이즈 회복

3. 그분의 품에 기대어 드린 기도

오... 예수님... 고개를 들 수도 없고 감히 당신의 품에 안길 수도 없는데
당신은 또 아버지 앞에서 나를 감싸고 내 어깨가 부스러질 듯 안아주는군요.
나의 신랑 예수...
나는 또 이렇게 울고, 당신은 또 나를 안고 울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당신만 보면 된다고 하는 당신...
당신 안에 거하고 있으니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이루자 하시는 당신...
나는 이렇게 당신의 신부로서 넘치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팔에 기대어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당신의 노래를 들으며 당신을 가만히 안아 봅니다.

21 기도문

조순임

말씀카페 기쁨반

위기를 새로운 변화로 바꿔주시는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가 세상을 뒤엎고 사람들을 혼란과 두려움에 몰아넣는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 가정들은 직장을 잠시 쉬기도 하며 더 심각한 경우에는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재정 혼란을 겪고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불우 이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처음의 우려와는 달리
아이들에게는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더 깊어지고 삼 형제간의 우애와 협동심을 길러주는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 되어감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세상의 모든 가정과 이 힘든 시기에 아이들과 가족을 지키는 어머니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늘에서 저희를 긍휼히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 주님의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하루빨리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어 패닉에 빠진 사람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루빨리 일상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 기도문

주영은

말씀카페 사랑반

2020 봄향수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 코로나를 지나며

주님, 저로 만물을 다스리라 하신 사람으로 태어나
수많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게 하시고
평범한 수많은 날들과 안락함을 허락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작고 작은 바이러스에 정복당한 자연의 한 부분에 불과한 사람임을 깨달으며
처음 마주하는 날들과 거대한 두려움 앞을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만 있었습니다.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 주님 역사의 일부분인 것이
자연의 정복자가 아닌 주님의 다스림 속의 한 존재인 것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하시는 것이
주님의 선하심임을 깨닫습니다.

고통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가 내 것으로 느껴져서야
셋세마네 언덕 위 주님의 어려움을 감히 상상해봅니다.
세상 모든 고난과 죽음을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당신 앞에서
아무 원망도 의심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날 먼지와 짐승 같은 나에게
주님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기 위해 고난 당하심, 그것이 계획이셨던 주님 앞에
어떤 고난도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신 사랑에 견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감히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회복의 날을 허락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도
맞보게 하옵소서.
주께 엎드리지 못하던 모든 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 함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 들어가 주님 발치에 앉아 이날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선하신 뜻 안에 있음에 어떤 날에도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23 기도문

최정운

마더와이즈 자유

주님은 센스쟁이

주님!

너무 답답해서 사흘간 하루 종일 공원에 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서 있었던 것 아시지요.
 온 가족이 집에 있기를 삼 주째 되던 수요일이었어요.
 가족들이 입맛이 서로 달라 모두가 만족할만한 점심 식사를 차려두고 도시락 싸서 나갔던
 첫날.. 울고 울다가 지쳐 잠도 자고 도시락 먹고 멍하니 있던 그날...
 저녁 식사 차려 놓고 또 도시락 싸서 나갔던..

주님은 제게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셨어요.

한낮에 차의 앞 옆의 창들이 영화관 스크린이라고 생각하고 보니 단 1초도 같은 장면이
 하나도 없고 바람도 햇빛도 사람들도 모두가 주인공이었어요. 오! 주님
 제 눈물은 마르기 시작했고 마치 영화를 감상하듯 주님이 만드신 신비로운 세상에 감탄하
 며 숨 쉴 수 있는 것과 아름다운 세상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지요.

한밤에 작은 쇼핑몰 주차장 차 안에서 본 세상은 수많은 보석들 속에 있는 것 같았고요.
 수많은 별들과 그 사이에 날아다니는 드론들... 상점들의 문은 닫혔지만 켜져 있는 네온사
 인들 속에서 새로운 세상에 평안함을 주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주님이 제게 선지서들을 통해 직접 말씀해주셨어요.

주님, 기억하시지요? 제게 처음 주신 말씀어요. 너무 놀라서 어머! 주님! 부르면서 한참 웃
 었잖아요.

역시 주님은 센스쟁이세요.

주님 사랑에 그 후로 아직 대낮에 가출은 안 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더 깊이 알아 더 깊은 사랑
 을 누리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세아 6: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24 기도문

최희주

마더와이즈 지혜

예수님의 기도 (COVID-19을 지나며 드리는 기도)

우리 코로나로 인해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이 실체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지나간 세월의 고난 주간을 그저 고난 주간이구나 하며 의례적으로 행했던 내 모습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약속받았기에 그 끝이 있음을 알기에 견뎌내는 시간, 약속의 소망이 없다면 견뎌낼 수 없는 약한 인간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알아 왔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의 참 의미, 그 안에 담긴 하나님과 예수님의 크나큰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세족식을 하며 먼저 딸의 발을 남편과 제가 씻어 주고 제 발을 남편과 아이가 씻어 주고 또 남편의 발을 저와 딸아이가 씻겨주었습니다. 그 발을 씻기며 예수님의 맘을 느끼고 십자가에 담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되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무릎 꿇고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내가 두려울 일도 슬플 일도 외로울 일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인생이 힘겹게 느껴질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주님은 내 안에 없는 힘을 주십니다.

‘잇었니? 내가 너를 많이 아끼고 사랑한다. 그래도 부족하니?’
 ‘아니요, 주님. 내 잔이 넘치고 넘치나이다.’

25 기도문

한여정

마더와이즈 지혜

COVID-19을 위한 기도

사랑의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서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더 큰 복으로 감사의 열매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움에서, 두려움에서 건지소서.
 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6 시편 기도문

김효정

말씀카페 기쁨반

2020년 4월의 기도

사랑의 주님, COVID-19이라는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주변과 삶 깊숙한 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하찮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떤 분야이든지 정복할 듯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문명이지만 아주 작은 생명체인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이지요.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시8:4)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의 작음을 깨닫게 하시니 더욱더 마음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어 영원을 약속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격하게 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저는 희망의 내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태평성대가 이어지더라도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미래는 더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며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COVID-19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을 언제 멈춰 주실 지 모르지만 제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고 차분히 행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로 빛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에게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애통함과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겸손히 기도하는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신 모든 삶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7 시편 기도문

송혜란

말씀카페 기쁨반

산책 단상

저는 요즘 거의 매일 오후 다섯 시 쯤이면 집 근처 트레일로 향해요. 하루 중 유일한 바깥출입이죠. 그 길이 초록으로 얼마나 싱싱한 기운을 주는지 걷고 나면 정말 상쾌해요. 보통 이맘때쯤이면 풀들은 이미 말라서 누렇게 변해갈 텐데 올해는 늦은 봄비에 푸릇함이 여전합니다. 나무는 연한 새잎을 내고 꽃향기가 달콤합니다. 봄입니다.

풀과 꽃과 나무의 푸르름을 한참 만끽하다가 문득 그 생명력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듯한 봄날이 되면 모든 살아있는 식물은 새싹을 내고 꽃을 피우지요. 들풀과 나무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온몸으로 드러내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같은 새로운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세상은 지금 극심한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온통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뉴스뿐입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현실이지요. 하지만 그 길도 나와 동행하시며 결국에는 푸른 풀밭과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작은 들풀 한 포기도 신실하신 섭리 가운데 봄이면 어김없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돌보심으로 이곳을 고치시고 신음하는 자들을 살리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28 시편 기도문

정예진

마더와즈 지혜

회개만이 회복으로 가는 길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예상치도 않았던 코로나 19로 인해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에만 국한된 일이라 여겼던 코로나 19가 한국과 유럽을 거쳐 미국까지 그리고 온 세상에 퍼지니 이제서야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노하심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죄가 별로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 여겼던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는 아버지가 보여주신 너무나도 많은 수치스러운 저의 죄들로 너무 괴롭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회개에는 변명도 합리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벌을 받기에 마땅하며 주님의 사랑과 자비만이 본인을 깨끗이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생각할수록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깨끗게 하소서.

이제 그만 노여움의 손을 거두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삶에 아버지가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소서.

이러한 일 가운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탕자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런 형편없는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 시편 기도문

국은희

말씀카페 사랑반
시편 66:9절

임마누엘 기도

새 아침 감사합니다! 주님~
물이 달다... 마시는 물도 달고, 손 씻는 물도 달고, 샤워하는 따뜻한 물도 달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물 사용이 어려운 나라들을 놓고 기도가 간절해지는 아침이에요.
주 보호하심 기도합니다.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남편들은 자택 근무, 아이들은 잠시 휴교, 대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로 집으로 돌아
오고 있다 해요. 지난 시간 우리 생애의 최고의 날로 남편과 만남, 결혼, 출산...
모두 공감하는 놀랍고도 귀한 일~ 가정! 주께서 주신 선물~~
세상은 COVID-19으로 들쭉거리기도
COVID-19 예방책 중 한 가지..
물을 조금이라도 자주 마셔서 목이 마르지 않고 폐로 나쁜 것들이 흘러 넘어갈
상황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는 귀가한 남편에게, 자녀에게 한 번 더 손 청결,
물 마시기, 집밥... 사랑으로~
부모님께 안부 전하고~
예수 사랑의 통로가 되어 가정을 돌보는 우리 엄마들~!
사랑하며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기에 혼자 지내셔야 하는 분들, 노인들을 위한 기도.. 주와의 친밀한 교제로
외롭지 않기를 성령께서 감싸주소서!

육적인 소통이 단절된 COVID-19 으로 인하여 영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요.
육으로 다다를 수 없는 생사를 오가는 그곳에,
또한 COVID-19으로 고통받는 그곳에 성령으로 감싸주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소서!

임마누엘~

시편 66: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대!

30 시편 기도문

국은희

말씀카페 사랑반
시편 89편

내 평생의 소속감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요...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를 주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해 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최고의 소속감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나의 형편과 행위가 아닌 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신 주의 이름 때문에!

COVID-19을 지나고 있는 이 시간... 세상을 떠나 가정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인간사의 최고의 소속감 가정이라는 울타리.
인간사의 최고의 사랑 결정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주께서 돌보신다 하셨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받고 배운 자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가정의 어머니로 서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신실하신 주의 이름 기억하며, 기뻐하며, 순간마다 외치며
주의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와 늘 함께 걸어 가주시는 예수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의지하여~

오늘도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31 시편 기도문

이효미
 마더와즈 지혜
 시편 91편

예수님의 노래 (COVID-19을 지나며 드린 기도)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할 즈음 뉴스로 확진자 수가 한 명 한 명 올라갈 때마다 두려움이 저를 급습하였습니다. 그때 코비드19을 거꾸로 한 시편 91장을 읽어보고 그 마음을 물리치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는 정말 어찌 보면 말장난처럼 거꾸로 한 말씀이었는데 말씀을 보자 이 시기에 저에게 주시는 딱 맞는 퍼즐 같았습니다.

시편 91장 4-6절 말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두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보혈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 가족을 덮어달라고 기도 하니 먹구름처럼 밀려오던 두려움이 짝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생활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마음은 다시 평화와 평안함이 다가왔고 저의 마음이 아이에게도 전해짐을 느꼈습니다.

32 시편 기도문

사랑반

말씀카페 사랑반
시편 103편 구원시
2020년 3월에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루의 밝은 시작부터 저녁의 평온한 고요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은혜에 오늘도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늘 가득 주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죽어야만 하는 나를 구원하시기에
나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날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낱 먼지 같은 저를
세상에 빛을 보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셔서
모든 은혜 속에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에 국적 있는 시민권자임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리스트에 저를 넣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소망을 마음에 품게 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부드러운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내 삶을 어루만지시니
내가 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삶의 이런저런 모양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33 시편 기도문

안혜영

말씀카페 사랑반
시편 109편 1절 기도문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며 잠잠하지 마옵소서

매일 같은 하루의 반복으로 오늘이 어제와 같고 내일은 오늘과 같을 것이란 생각에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문득 시간은 흐르고 봄은 어느새 성큼 와 있단 생각이 들며 그래... 지금도 하나님께선 일하고 계시지. 잊지 말자. 잊지 말자. 계속 되됩니다.

딱히 불안하진 않지만 이따금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시간 속에서 갑갑함이 가득 차오를 때 지금도 일하고 계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잠잠하지 마시옵고, 날마다 오늘을 새로이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직접 보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GOD AT WORK!



34 시편 기도문

국은희

말씀카페 사랑반
시편 126편

의미있는 오늘

성전에서 다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포로 되었던 자들의 눈물겨운 심경이 다시 고향의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로 터져 나오는 시편 126편의 찬양 시가 마음에 확 외닿습니다.

속박에서 자유로움이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떨림이 있습니다.
세상 속박에서 하나님께로의 자유로움!
구원과 질서와 회복의 하나님!

친히 주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심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그래서 오늘의 눈물이 의미가 있고
눈물 가득 찬 씨 뿌림이 의미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비록 내 눈에는 열매 없는 수고라고 생각될지라도 나는 오늘의 씨 뿌림에 마음을 쏟아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님을 믿고 알기에...

오늘도 멈추지 않으시고 주의 뜻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쁘고
그래서 나도 주의 사랑과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과 거룩하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오늘 같은 날에도~
주께서 이루시는 그 회복과 승리의 날을 향하여 나도 함께 예수 이름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고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구원 열심 때문에...!
오늘을 동행해 주시는 주님과 손을 마주 잡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에~ 참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35 시편 기도문

장영미

말씀카페 온유반

COVID-19을 위한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소서.
 온 세계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작디작은 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구원으로 말미암아 꿈꾸는 것 같은 자유를 맛보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저는 이렇게 기쁨과 찬양을 마음껏 하며 주님을 즐기지만,
 저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에 묶여 오늘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며, 이제 일어나 치유의 광선과 빛을 비추소서.
 죽음의 공포와 육신의 고통과 앞날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온 나라들이 보게 하시고
 주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모든 민족이 알게 하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26: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36 시편 기도문

유민경

말씀카페 사랑반
시편 127:4-5절

믿음의 가정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7:4-5절)

하나님,

18년 전 딸아이를 출산하고 병원에 있는 저를 심방해주신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말씀을 오늘 묵상하며 참 반가웠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내 삶에 새겨진 하나님과의 추억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빛나는 건 내 인생의 복이요 큰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코로나바이러스로 가족들 모두가 집에서 함께 하는 요즈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가정으로 인해 주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첫째,

집에 갇혀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지금 가족들이 곁에 있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가족들의 관계를 미리 회복시키셔서 함께 있는 것이 평안하고 즐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셋째,

함께 예배드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마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통해 가정은 작은 교회임을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가정을 저도 소중하게 여기며

먼저 가족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므로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엄마와 아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37 시편 기도문

김영지

말씀카페 사랑반
시편 128:1절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옛날 다윗과 함께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COVID-19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나의 시선을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1절)
주를 두려워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 시편 기도문

박영미

말씀카페 사랑반
시편 150:6절

밤의 시간, 함께 하신 주 찬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6절)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로 먼저 오시고 또 나의 구원을 이루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송축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육신의 어머니를 떠나보냈던 눈물의 밤, 외로웠던 그 밤
요즘의 (코로나) 사태를 살아가며 미래를 걱정했던 두려움의 밤
세상의 불공평을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의심했던 밤
사람과의 관계 상처로 인해 아픔을 참아 내던 고통의 밤
비교하는 맘 때문에 시기와 미움으로 보낸 증오의 밤
연약함으로 고꾸라지는 나의 죄성 때문에 보낸 죄책감의 밤들
이전의 나는 그러한 밤들이 내게는 없기를, 약하게 지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밤의 시간을 맞닥뜨리게 되니 나의 마음은 더없이 가난해지고
비로소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러 찾아 나가게 되었고
이 모든 밤의 시간을 함께 걸어주시며
내 마음을 안고 달래 주시고 항상 함께 계셨던 나의 아버지를 성소에서 만났습니다.

사방에서 에워싸는 어두운 밤의 시간을 주와 함께 지나며
이제야, 나는 깨달아 압니다.

아침마다 시편의 샘물에 텀병 두레박을 내리니
그 두레박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담아내 주시고
아버지의 영영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의 성실로 나를 일깨워 세워 주심을~

날마다 기쁨으로 주의 성전으로 나아가 주를 바라고, 바라고, 만납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
저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영원히, 천국에 이르러서도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39 시편 기도문

사랑반

말씀카페 사랑반
시편150편 찬양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지의 주재이신 주님! 찬양과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저에게 숨을 쉴 수 있게 생명주심을 감사,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매일 필요를 채우시고 날마다 생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속삭여주시는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평안하나이다. 오직 당신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르는 당신의 어린 양,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를 마치 하나님의 외동딸같이 대해주셔서 삶의 구석구석 작고 사소한 것부터 모든 일과 모든 순간을 살뜰히 챙겨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허공에 흩어져 없어지는 나의 한숨 소리를 모두 담아 두시고 나 대신 설움을 물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열심히 지켜온 울타리를 너무 쉽게 벗어난 것 같은 허무함 가운데 고개를 들어보니 작은 나는 그분의 태 안에서 그분의 에너지로 숨 쉬고 있었을 뿐임을. 생명의 근원.. 모든 생각의 도착점.. 언제든 돌아가도 되는 나의 고향...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를 지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어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한 데 제게 주님을 아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너의 아빠란다.’ 하시니 그것이 참으로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네 모습 이대로 그것이면 족하다. 너의 모습이 난 좋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돌보리~’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하시는 주님, 이 길을 혼자 가게 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온 맘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시고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심에 주님께 저를 모두 맡겨드립니다! 종일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나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능력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만군의 주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를 높이고 증거가 되게 하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 여호와를 기뻐함이 나의 힘이니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노래들 131편

간증문 53 편

- 기도시 37 편
- 기도문 39 편
- 간증문 53 편
- 감탄문 1 편 (3 Sets)
- Children Prayer 1 편
- (6 Sets of Prayers + Photos)

78-80	1	간증문	강미미	마더와이즈 지혜	COVID-19를 이긴 엄마들의 기도
81	2	간증문	강미미	마더와이즈 지혜	말씀만이 내가 살 길
82	3	간증문	강지영	마더와이즈 회복	최고의 사랑
83	4	간증문	곽은수	뉴비전 3단계	특별한 상황, 특별한 은혜, 특별한 만남
84	5	간증문	국은희	말씀카페 사랑반	시편, 마음의 기도
85	6	간증문	김국희	마더와이즈 회복	회복을 소망하며
86	7	간증문	김경미	마더와이즈 자유	2020년 봄
87	8	간증문	김문숙	뉴비전 2단계	항상 하나님과 함께
88	9	간증문	김민아	뉴비전 3단계	나의 설계자 나의 주치의
89	10	간증문	김미옥	말씀카페 인내반	기다리시는 하나님
90	11	간증문	김선숙	말씀카페 사랑반	하나님께서로의 회귀
91	12	간증문	김성옥	이슬비 성경암송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92	13	간증문	김애경	말씀카페 인내반	여호와 삼마
93	14	간증문	김유미	말씀카페 평화반	감사
94	15	간증문	김윤영	말씀카페 인내반	하나님께 가까이 합이 내게 복입니다
95	16	간증문	김정진	뉴비전 2단계	일상 속에 드리는 감사기도
96	17	간증문	김혜은	마더와이즈 회복	가까이 느끼는 천국
97	18	간증문	노혜원	말씀카페 사랑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98	19	간증문	문은희	말씀카페 온유반	주님과 함께라면
99	20	간증문	박순희	이슬비 성경암송	고난의 좋은점
100	21	간증문	박은혜	마더와이즈 회복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회복의 길
101	22	간증문	박정하	말씀카페 사랑반	Thank you, 코로나
102	23	간증문	박지원	말씀카페 평화반	두려움 속에서
103	24	간증문	박진희	마더와이즈 회복	주님 안에서 회복하기
104	25	간증문	배새론	마더와이즈 지혜	주님 안에 은혜
105	26	간증문	백지원	말씀카페 기쁨반	소금 맛
106	27	간증문	변지영	마더와이즈 자유	주님이 알려주신 양육의 비밀 '자유'
107	28	간증문	손주영	마더와이즈 자유	달려있던 내맘 속 자유의 문을 뚫으며 열고
108	29	간증문	송민경	뉴비전 1단계	내 삶의 주인되신 주님
109	30	간증문	신영란	이슬비 성경암송	칭찬 받고 싶어요
110	31	간증문	양사라	말씀카페 인내반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맞닿는 곳
111	32	간증문	유주현	말씀카페 인내반	Shelter in Place를 Shelter in Jesus로!
112	33	간증문	윤민혜	말씀카페 사랑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 간다는 것
113	34	간증문	이사라	마더와이즈 자유	주님 품안에 안기는 '자유'
114	35	간증문	이영옥	말씀카페 온유반	기뻐 찬양하며 살리라
115	36	간증문	이한광	뉴비전 1단계	주님의 손을 붙잡고
116	37	간증문	이한나	말씀카페 온유반	2020년 봄 향수를 마치면서
117	38	간증문	임이래	마더와이즈 지혜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
118	39	간증문	이호미	마더와이즈 지혜	마더와이즈 지혜를 마치며
119	40	간증문	이향숙	마더와이즈 자유	사랑으로 섬세하게 만져주시는 하나님
120	41	간증문	정예진	마더와이즈 지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
121	42	간증문	정지윤	마더와이즈 회복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며
122	43	간증문	장영미	말씀카페 온유반	COVID 19 어두움 속에서 발견한 보화
123	44	간증문	장정우	마더와이즈 자유	참 자유이신 예수님
124	45	간증문	전연향	말씀카페 사랑반	성소에 들어가기

간증문 53 편

125	46 간증문	정문경	말씀카페 평화반	나의 목자되신 하나님
126	47 간증문	조한나	마더와이즈 회복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완성 회복
127	48 간증문	주애리	뉴비전 3단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이십니다
128	49 간증문	주영은	말씀카페 사랑반	시편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
129	50 간증문	채경선	마더와이즈 회복	천국소망
130	51 간증문	최지선	마더와이즈 자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131	52 간증문	한여정	마더와이즈 지혜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132	53 간증문	홍수경	마더와이즈 지혜	좋으신 아버지

감탄문 1 편 (3 Sets)

133	감탄문	마더와이즈	마더와이즈 지혜	한 마디 감탄문
134	감탄문	마더와이즈	마더와이즈 자유	한 마디 감탄문
135	감탄문	마더와이즈	마더와이즈 회복	한 마디 감탄문

Children Prayer 1 편 (6 Sets of prayers + Photos)

136-138	Children Prayer	CHBC : Children Home Book Club	3/24/2020 Psalm 23 : Praying About Our Fears
138-141	Children Prayer	CHBC : Children Home Book Club	3/31/2020 Psalm 6 : Praying For Our Tears
141-145	Children Prayer	CHBC : Children Home Book Club	4/14/2020 Psalm 73 : Praying For Our Doubts
145-147	Children Prayer	CHBC : Children Home Book Club	4/21/2020 Psalm 90 : Praying About Our Deaths
148-150	Children Prayer	CHBC : Children Home Book Club	4/28/2020 Psalm 150 : Praying Our Praise
151	Children Prayer	CHBC : Children Home Book Club	Praying for Refugees in Turkey
152-153	Children Prayer	CHBC : Children Home Book Club	Photos

1 간증문

강미미

마더와이즈 지혜

COVID-19를 이긴 엄마들의 기도

평소에 전화 연락을 잘 드리지 못했던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께 생각이 날 때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차하면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여 여기 산호세로 오셔서 당분간 지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너희는 미국에 있어서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그래, 우리 가족을 이곳 산호세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코스트코에 장 보러 갔는데 사람들이 휴지와 쌀을 마구 사가는 모습을 보며 ‘무엇이 저리도 겁나고 불안한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서 “너희도 쌀이랑 휴지랑 떨어지기 전에 좀 넉넉히 사 놓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 학교 건너편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자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보낼 것인지 학교 엄마들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어찌지...’ 고민에 빠집니다.

많이 고민할 시간도 없이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4주간 휴교합니다. 머리 속으로 재빠른 계산이 들어갑니다. ‘4 주 정도는 괜찮지, 잘 된 거 같다. 안 그래도 계속 등교하기도 불안했는데... 그럼 남편 회사는? 아 남편도 재택 근무네. 괜찮아, 4주 정도는...’

주일 아침 교회에 가려는데 목이 아픕니다. 몇 일 전부터 목감기처럼 목이 아팠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아픕니다. 코로나 증상에 대해 급검색합니다. 목부터 아프

답니다. 웬지 코로나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오며 교회 가기를 포기합니다.

교회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향수 지혜반 리더님과 인터넷님의 재빠른 상황 판단으로 온라인으로 먼저 모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대처에 감탄하고 이러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는 교회에 가야지 마음먹었는데 교회의 모든 활동이 온라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나는 한 번이라도 더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었던 공예배를 놓쳤던 것이네요.

이번 학기 큰마음 먹고 시작했던 전도 폭발훈련도 잠정 중단되고 온라인으로 조모임만 하게 되었고 금요 성경학교는 이번 학기 수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과 집에서만 지낸 지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납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엄마, 아빠를 찾는데 저희 부부는 매일매일이 주말인 듯 일찍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목상하던 QT 시간도, 기도 시간도 제시 시간을 지키기 힘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그 사이로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코스트코를 갈 때마다 살 수 없는 휴지, 아무리 클릭해도 주문되지 않는 온라인 장바구니들, 오늘은 내일은 또 무엇을 해 먹어야 할지, 한국에서 너무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놀기만 하는 아이들, 아이들 때

1 간증문

강미미

마더와이즈 지혜

COVID-19를 이긴 엄마들의 기도

문에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고 스트레스 받는 남편, 하루 중 나만의 시간이 단 일 분도 없는 듯한 나의 불쌍한 모습 등….

이렇게 집콕 4주를 채워가던 날, 다시 5월 초까지 SIP가 연장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얼마 되지 않아 아이 학교에서 이번 학기가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도 폭발훈련 복음 제시문을 열심히 외우고 있었는데, 10분 후에 테스트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정말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나마 그동안 간신히 붙잡고 있던 조금의 평안과 담대함을 놓쳐버릴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께 코로나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니 나의 평온, 나의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 그날을 위한 잠잠한 기다림을 원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다시 본격적인 우리 가족의 SIP가 시작되었습니다. 무계획이었던 일상에 어느 정도의 시간 계획을 갖고 아이들의 학습과 놀이를 함께 해주었고 평소 요리를 많이 하지 않던 저의 요리실력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SIP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교인들과 이웃들, 선교

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 선교지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영혼들,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도 여러 방법으로 알려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나의 가장 큰 약점을 알고 계속해서 나와 내 가족을 시험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이 온라인으로 재개되어 온라인 미팅이 많아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미팅이 있을 때마다 아이들을 TV를 보게 방치하거나 남편에게 부탁하게 되는 시간이 많아졌고 동시에 남편의 업무도 많아지면서 결국 서로에게 불만이 쌓여서 아이들을 다그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디선가 지켜보며 웃음 짓는 사탄의 모습이 그려졌고 너무 싫었습니다.

이 사탄을 이기기 위해 더욱더 향수 지혜반 모임과 QT 모임에 붙어있었고 자매님들과 솔직한 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며 중보기도 했습니다. 전도 폭발팀 조 모임에서도, 개인기도 짝에게도 기회가 될 때마다 저의 기도 제목을 중보 부탁드렸습니다.

지난주 마더와이즈 수료 예배를 마치고 지혜반 모임을 하면서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점심 준비를 위해 나오는데 남편과 아이들의 변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줌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내게 “오늘은 또 무슨 미팅이야?”라며 쏘아붙이던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밝은 미소로 맞아주는 모습에 ‘벌써 응

1 간증문

강미미

마더와이즈 지혜

COVID-19를 이긴 엄마들의 기도

답을 주시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
고선 다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모습이 지속이 될까?

5일이 지난 오늘 주일, 가족들과 3부 온
라인 예배를 마치고 야외 테이블에 앉아
점심으로 잔치국수를 먹고 다과를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데 카톡이 왔습니
다. “자매님, 향수 기도문 제출하셨는지
요?” 잊고 있던 간증문을 지혜 반 리더
님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의 두려
움 중의 하나인 간증문 쓰기. 그러나 남
편과 함께 듣고 있던 CCM의 가사가 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곧바로 노트북을 갖
고 나와 간증문 작성을 시작합니다. 야외
에서 써 보는 간증문은 처음인데 술술 잘
써지네요. 성령님이 내 손가락을 움직이
고 계시네요.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방해
하지 않고 잘 놀아주고 덕분에 오랜만에
아빠도 여유를 만끽하고 있네요.

나는 하나님을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응답해 주시네요.

하나님, 부족한 저이기에 저를 더욱더 사
랑하시겠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받은 사랑을 주변에 계속 나눌 수 있
도록 계속 저를 지켜보시고 꼭 붙잡아 주
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
은, 이 간증문을 쓰게 한 CCM 가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 히즈 윌〉
너의 모습 그대로 아픈 마음 그대로
나에게 다가와 즐래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솔직한 너 그대로
나에게 안겨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
너의 약함을 홍보지 않아
너의 상처를 들춰내지 않아
용기 내어 보여준 그 틈 사이로
내 사랑 흘러갈 수 있으니
너의 창조된 모습 그대로
너를 빚었던 내 손길 그대로
아픔 속에 움츠린 상한 마음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너의 모습 그대로
솔직한 너 그대로
나에게 다가와 즐래
있는 그대로

2 간증문

강미미

마더와이즈 지혜

말씀만이 내가 살 길

이번 지혜 반은 저에게 두 번째 수강입니다. 3년 전, 지혜반을 수강 후 자유, 회복까지 모두 마치고 이제 회복하여 자유를 얻은 지혜로운 여성으로 새로운 인생을 잘 이끌어 나가리라 생각했지만, 지뢰밭을 밟고 지나가듯 곳곳에서 터지는 폭탄에 또다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근심, 걱정 매달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지혜 반을 재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니 하나님, 나 자신, 남편, 자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 배울텐데 하나님이 내게 다시 세워주시고자 하는 관계는 무엇일까 잠시 생각해보았습니다. 3년 전에는 당시 2살, 4살인 두 딸을 이 낯선 땅에서 키워야 하기에 자녀와의 관계가 저에겐 가장 급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지금은 지난 학기 3단계 학습을 통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관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돈독히 쌓아보기로 하였고, 모든 관계 해결의 처음이자 끝은 곧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말씀에 심고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지혜와 생명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알게 되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행할 능력을 주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어떤 관계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지난 3년 동안 그렇게도 밟고 밟았던 지뢰들을 해체할 방법을 얻었습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은 하루도 쉬지 않고 내게 성령의 물을 뿌리시며 말씀의 뿌리에 박힌 나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짧은 시간이나마 매일 QT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내가 이끄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19로 학기 중 절반 이상의 수업이 온라인수업으로 대체되었지만, 어느 때보다도 더 뜨거운 향수 자매님들의 기도와 열정을 느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번 봄학기를 은혜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 간증문

강지영

마더와이즈 회복



최고의 사랑

이번 학기 '회복'을 통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주님을, 신부로 삼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시는지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제 삶 가운데 저는 “구원받은 자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혹 내가 더 복 받기 위한 수단은 아닐까, 내 안에 있는 정말 작게나마 주님을 닮은 모습조차 내가 나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 밑에 깔린 것은 아닐까 하는 문득문득 드는 마음에 나 자신이 참 싫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복의 첫 단원부터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 내가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복 주시기 원하며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주님께 귀한 사람인지 회복 전체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마음 중 작게나마 선한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와 함께 그 일을 행하길 바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읽고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에 있는데 내 삶은 과연 얼마나 그 삶의 모습에 가까운가? 질책하는 저에게는,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성령님이 그때그때 나의 마음에 주시는 생각에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으로 빚어져 갈 것이라는 믿음을 넣어주셨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넣어주시는 마음을 내가 뒤따라가며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주님은 나의 믿음의 성장 속도에 맞춰 나와 함께 하시고 싶은 일들을 알려 주실 것이라는 깨달음도 주셨습니다. 다만 그 순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고 그 순종이 어떨 때는 내 안에 있는 내 옛 모습을 포기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도 이때까지의 주님과 걸어 온 내 삶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그 순종하길 바라시는 마음 또한 결국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상급과 면류관을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 가득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함이고, 행위는 우리의 천국에서의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한다는 것을 마지막 단원을 통해 알게 하심으로 믿음과 연결된 행위에 대해 고민하는 제게 시원한 답을 해주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매일 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날 향한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으로 만들어지는 매일을 보내고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향수를 마칠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다른 방법이지만 또 다른 은혜로 향수 예배를 마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마칠 수 있었던 데에는 섬겨주신 전도사님과 리더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을 알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간증문

곽은수

뉴비전 3단계

특별한 상황, 특별한 은혜, 특별한 만남

저는 뉴비전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아닙니다. 미국 장로교회를 다니지만 향수 예배의 교제와 좋은 말씀들로 인해 지난 일 년 반 동안 향수 1단계부터 시작해서 이번 학기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3단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매 단계가 새롭고 조금씩은 다른 형식과 주제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청지기의 삶과, 무엇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3단계에서는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또한 그러한 삶을 위해 거쳐야 할 훈련들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묵상과 기도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 매주 말씀 묵상이 생활화되었고 중보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금식도 실천해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단순성, 홀로 있기, 복종 그리고 섬김에 대해 배우면서 더욱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 돌아보고 지키며 살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인도하신 권사님과 나눠주신 자매님들의 신앙고백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 됨의 모습들을 보았고 도전받았습니다. 이렇듯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특별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족식, 소각식 등을 자매님들과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인터넷으로 화상으로라도 매주 만나며 같이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사실 집에 가족들과 붙어 있는 게 너무 좋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게 편하고, 묵상할 시간도 많아서 도리어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은혜로 먹을 것들과 화장실 휴지도 충분하고, 나가기 겁나면 배달도 가능하고, 배송비 채우려 더 주문한 물품들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는, 제겐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으니 중보기도도 예전보다 더 할 수 있게 되어 또 다른 은혜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육성) 직접 듣거나 방언을 아직도 소망하고 있지만, 그것이 중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 성장을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때 어떤 방법으로든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거기에 순종하고 인도받는 것이 지금 나에겐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만남을 준비하신 나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5 간증문

국은희

말씀카페 사랑반

시편, 마음의 기도

2020년 봄 향수 기간 동안 갑작스럽게 닥쳐온 세계의 재난 COVID-19의 조용한 광풍 속에 시편 말씀을 공부하고 통독하게 됨이 세상의 헛된 일을 비웃으시는 하나님(기도의 관문 시편 2편)의 애달픈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 말씀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주야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기도의 관문 시편 1편)로 친히 모으시고, '내가 함께하므로..' (시편 23편)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다가왔다. 내 삶의 전환점이 된 성경은 이번 학기에도 변함없이 내 생활의 지침이 되어 오늘 하루의 나의 살길이 되었다.

시편의 기도를 통해 믿음의 선조들의 고통과 낙심 속에 울부짖는 기도 속에 변함없이 찬양하는 한 분,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확정된 마음과 고라 자손의 갈급한 목마름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고통으로 부르짖는 자들을 건지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길로 인도하여 우리가 거주할 성읍에 거하게 하신다는 시편 107편 말씀이 특히 와닿는다. 나 자신이 원하는 길이 모두 바른길이 아니라는 것과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기꺼이 따르고픈 마음이 생겨났다. 그리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며 오늘의 형편을 다 이시고 옳은 길로 이끄시는 주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게 되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시편 교재(마음의 기도, 유진 피터슨 저) 찬양을 아뢰는 시편 150편을 공부하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은 내 중심의 찬양에서 하나님 중심의 찬양을 생각하도록 이끄셨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눅19:37)이 귓가에 쟁쟁 울리며 내 감정에 따라, 내 조건 따라, 내가 원했던 기도 응답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내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에는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도 나에게서는 없음을 깨달으며 회개하게 하셨다. 또한 저자의 해석에 내 생각이 머물렀다. '만약 우리도 끈기 있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시편 150편에서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끈기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 지속적인 기도를 올려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리라는 소망이 내게 생겨났다.

전 세계의 재난 COVID-19 기간 동안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믿는 신뢰에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나 자신보다는 공동체를 더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맺어주신 가정과 교회를, 사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우리들의 영을 감동하게 해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더하여 주시길, 주께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심을 더 신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 기도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전 세계의 기도가 되었다.

'나를 신뢰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시편에서 거듭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함께하므로..'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과 우리의 삶과 COVID-19을 겪고 있는 전 세계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소망이 됨을 신뢰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린다. 할렐루야!

6 간증문

김국희

마더와이즈 회복

회복을 소망하며

몇 년 째 같은 반을 하며 마음과 눈물과 기도를 함께하는 자매님들과 두번째로 다시 한 마더와이즈 회복은 같은 내용이지만 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재의 제목인 “회복”이란 단어는 이번 봄 학기 동안 계속 제 머리속에 맴돌았습니다.

이번 향수를 다시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가족의 관계 가운데 회복이라는 소망을 두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너무 버거워하는 남편, 자기 자신을 힘들어하는 아들, 늘 관심을 받지 못해 상처투성이인 딸 아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힌 나 자신을 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아들은 장애로 인해 아직 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3살짜리가 활만한 텐트럼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한 때에 남편과 아들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텐트럼은 남편에겐 참 견디기 힘든 것이었고, 그때마다 집안은 체벌하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옆에서 떨고 있는 딸아이를 보면서 잠잠히 기다리기로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둘 사이에 나서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저에게 아이를 도저히 힘들어서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5년 전에 화장실에서 문 잠그고 울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천국의 사포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각자에게 훈련을 시키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인내하는 방법을, 아들에게는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을, 딸아이에게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이해심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사포로 문지르고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훈련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예전같이 절망적이진 않습니다. 주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다 회복시켜 주시리란 믿음이 이제 제 안에 자리잡고 커지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가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7 간증문

김경미

마더와이즈 자유

2020년 봄

2015년 한국에서 마더 와이즈를 시작하고 이번이 네 번째 ‘자유’ 공부인데 또 다른 의미와 은혜로 채워진 학기였습니다.

처음 이 책으로 공부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분노, 치유되지 못한 것들이 내 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옹아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번에 다시 강하게 나를 묶고 있는 사슬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기 위해, 계속 말씀을 새기고 깨닫고 다짐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미국에 와서 힘들 때에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의 신앙을 회복하는 불씨가 되었다면, 이번 ‘자유’는 많은 위로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에 갇혀있지만 여러 방법으로 자매들을 만나고 말씀을 나누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렵고 외로운 시기에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육신을 버리고 새 생명을 얻고 거룩한 계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8 간증문

김문숙

뉴비전 2단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려나!

반신반의하는 심정으로 온라인 향수를 시작했다. 처음 접해 보는 테크니컬한 새로운 방법, 내게는 새로운 문명이었고 하나님께는 사막에서 길을 내시는 우리를 향한 배려이며 계획이셨다. 구글 행아웃을 이용해 클래스를 하는 동안 매주 서면으로 보내 주시는 시편 설교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반원들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시편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 내 것이 되어 깨닫는 기쁨이 되었다. 찬양도 미리 들으며 불러보니 어찌 은혜가 되던지 참 감사한 일이었다.

2단계는 5명으로 시작해 중간에 아이들이 아파서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드랍하려고 하는 상황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다 회복되고 모두 수료할 수 있어서 이 또한 감사한 일이었다.

특히 시편 91편의 말씀은 힘이 되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다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하고, 교재의 활용도 만만치 않아서 아쉬움도 남는다.

이러한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게 알게 해주셨다. 믿음은 부족함 가운데 관계를 통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 말이다. 힘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나가니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예비하고 열어 주신다. 나는 속히 이 시간이 지나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바라지만 코로나 19 상황이 그리 빨리 좋아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이전 일상의 생활과 지금의 생활 모두 감사한다. 우리 안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니 말이다

9 간증문

김민아

뉴비전 3단계

나의 설계자 나의 주치의

엣그저께 시작했던 3단계 수업이 2주 후면 종강을 한다.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인도자이신 원정화 권사님이 애뜻해 하시고 서운해하시던 모습이 영상 너머로 가슴에 부딪혀 왔다. 아마 이 3단계 클래스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클래스가 될 것 같다. 첫째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반이고 또 2단계 자매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은정 자매가 사정이 있어 같이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는데 우리는 모두 기도해 보려고 했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지금 그녀는 우리 반 반장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못하게 될 것은 Corona virus라는 위기를 지나면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같이 모여서 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멀리 떠난 애리 자매와 딸네 집을 시도 때도 없이 다녀와야 하는 나에겐 영상으로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덕에 개근상까지 받았다.

1, 2 단계가 복음의 기초를 다지는 수업이었다면 그 다져진 기초 위에 우리의 실질적 삶을 지어 올리는 작업이 3단계라 생각한다. 1, 2 단계를 통해 우리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분이 설계하셔서 지어진 우리의 삶을 보게 될 것이다. ‘주인 바꾸기’, 내 삶은 이 건축이 끝나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될까 기대가 된다. 3단계를 통한 모든 훈련(13가지의 훈련) 들을 통해 나를 주님의 설계에 맞게 지어나가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할 때 그저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어떤 때는 웬만큼 기둥이 올라갔나 싶다가도 주님의 빌딩 코드에 맞지 않아 다시 다 허물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낙심이 될 때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해 주신다. 네 뜻대로 짓지 말고 내 설계대로 하라고. 그래서 나는 이 과제의 모든 훈련이 다 중요하고 필요한 과제이지만 나에겐 복종(순종)의 과제가 가장 필요했고 더 깊이 다가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20절) 이 구절이 내 안에 속히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자꾸 나의 자아가 죽질 않아 회복된 주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야 하는데 어그러진 나의 모습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종종 힘들게 한다.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Class가 끝나고 나면 완성된 모습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yes”라고 말씀해 주실 주님의 설계에 맞게 지어져 나가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하고 소원해본다.

2단계 때 내가 반에서 제일 연로해서 걱정했었는데, 우리 예쁜 자매들이 그 따스함으로 나를 많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 이번 3단계 반에서도 내가 가장 연로하다는 건 바뀐 것이 없지만 따듯하고 예쁜 우리 자매들과 또 우리 신실하신 미모의 인도자 원 권사님과 나의 기도 짝 서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무엇보다도 나를 끝까지 인도해주시고 내게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내 귀에 속삭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을 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다.

10 간증문

김미옥

말씀카페 안내반

기다리시는 하나님

“알아요~ 나를 기다리시는 거. 근데 지금은 좀 바빠요. 이거만 마저 끝내고요.”
 아버지께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도 현실의 안일함과 유혹에 빠져 버린 나는 계속 '이거 하나만 더요'를 다짐하며 12년이란 오랜 시간을 하나님을 외면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사실 두 하이스쿨 애들을 데리고 혼자서 늦둥이를 키우는 시간은 아주 힘들고 외로웠고, 많은 분심이 들었어요. '이건 아니다. 아기가 조금 클 때까지는 잠시 멈추자' 했던 것이 차 일피일 미루며 미적거리다 보니 어느새 막내가 7학년이 되었어요.

신앙이란 발전은 있어도 제자리는 없나 봐요?

잠시라고 생각했던 시간 속에 나는 아버지를 잊고 현실의 편안함 속에 안주하며 '범사의 감사함'만으로 나의 믿음을 위로하며 이 세상에 무엇이 중요한지 영원한 생명에 갈구함조차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한번 자녀 삼으심은 영원하다 하셨나요?

(성경책엔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일상사로 몸과 맘이 지칠 때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땐 '아~ 영원한 너의 편', 나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백이 있음에 큰 위로를 받곤 했어요. 뭘 배짱인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계속 주위 자매님을 통하여 저를 부르셨고 지금 이렇게 향수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어느 목회자를 섬기는지 묻지 않고 하나님 안에 같은 자녀로 환영해 주시는 뉴비전 교회 식구들과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가 없어지자 우편으로 성경책을 보내 주신 고마운 어느 권사님, 그리고 아직도 아버지의 사랑에 의구심을 갖고 자녀 됨에 확신이 없는 저를 안타까워하시며 성경 구절구절을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우쳐 주시는 리더님과 함께 귀한 말씀과 자신의 체험과 감동을 나누어 주시는 자매님들을 통해 나를 향한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조금씩 깨달으며 매일매일 한 발짝씩 하나님 성소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많은 시간 이 세상 것들에 더 마음을 두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 두렵기도 하지만, 제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복된 일임을 잊지 않게 뺏속까지 새겨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증거가 되는 삶이 되도록 저의 오른손을 잡아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11 간증문

김선숙

말씀카페 사랑반

하나님께서로의 회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거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위안을 하며 지내길 수 년, 한 자매의 권유로 말씀 카페 사랑 반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동안의 믿음 생활을 대변하듯 점점 뜨거움은 사라지고 굳어진 마음으로 맛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나였다.

하지만 매일 시편을 읽고 매주 공부를 하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생각하게 되었고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정녕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하는 회의가 들었으며, 주님의 가지에 꼭 붙어 있어야 주가 바라는 나로 변화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로 집에 갇혀 지내며 그간 나를 회고해 볼 때, 내가 인간관계에 얼마나 연연해하며 거기서 즐거움을 찾으려 하였었는지 그리고 의지하면 할수록 실망과 상처만이 돌아왔었음을 느끼며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하고 섬겨야 할 분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121:1,2)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새삼 느끼며, 이 믿음도 주님이 주심을 알기에 감사를 드린다. 또한 향수 예배와 온라인 예배와 소그룹 나눔을 통해 함께 했던 자매님들의 신실한 믿음에 도전받으며, 나도 남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이 되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훈련에 열심을 내어야겠다. 향수 예배와 말씀 카페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바친다.



GOD

12 간증문

김성옥

이슬비 성경암송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시편 107:9)

오랜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곧바로 시작된 여성을 위한 향수 예배, 처음으로 느끼는 흥분분한 마음과 설렘 속에서 맞이한 첫날 그리고 뜨거운 찬양과 말씀 따뜻한 환영과 멋진 다과, 밝고 젊은 예쁜 자매들 틈 속에서 조금은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들며 혹시 민폐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갈등 속에 성경 암송 반을 택하였습니다. 조용하시며 친절하신 선생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된 성경 암송은 나에게 쉽지는 않았지만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는 가운데 은혜로운 시간은 잠시, 불어닥친 코로나 19로 인하여 생전에 겪어 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회적 격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임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영상 예배와 영상 모임을 통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와 소그룹을 이끌어 가는 모습 속에서 향수의 믿음의 저력을 보았습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럽던 시기에 성경 암송을 통하여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며,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선을 모으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세상으로 달려가는 시선을 돌려 말씀 암송에 집중하며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31)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2-3)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24)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어느새 암송은 기도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꿈과 소망을 주시니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말씀이 능력임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행 1:4)

네 하나님 기다릴게요

오늘도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하며 들려주실 성령의 음성을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다려봅니다.

13 간증문

김애경

말씀카페 인내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

2020년 봄 향수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일로 가득했다.

여느 때보다 좀 이르다 싶은 friends day에 이웃의 권유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된 자매가 있었다. 카톨릭 신자로 성당을 잘 다니다가 세 번째 아이 출산으로 육아가 힘들어 아이를 좀 키운 후에 다시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멀리한 지 어언 12년. 이제 막내 늦둥이는 어느덧 7학년 중학생이 된 즈음 이웃의 초대에 선뜻 응한 것이다. 그리고는 우리 말씀 카페 인내 반에 배정되어 3월 3일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 본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날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끝난 후엔 내게 감사 인사까지 하고 돌아갔었다. 그 때가 교회에서 모여 드리는 이번 학기 향수 마지막 날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온라인 만남의 시작!

그 자매가 향수 소그룹 온라인에 접속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은 접속 해야 하는 이유보다 훨씬 많았지만 ‘여호와 삼마’의 은혜로 그 자매는 우리의 염려가 무색해지도록 매주 열심히 한 번의 결석 없이 모두 출석하였다. 주 안에서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라도 하듯 말이다. 그 자매는 구원을 확인하며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기쁨을 나누어 종강 예배 때 놀랍게도 간증을 하였었다.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 반 전원의 중보기도와 안타까움을 보시고 크게 상을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향수 봄학기 중 있었던 터키 난민 돕기도 잊지 못할 일 중 하나였다. 굶는 아이들의 영상을 보고 급하게 나누었는데 십시일반으로 성금이 모여 즉시로 송금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난민 중에 계셨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돕기를 원하셨다.

여호와 삼마!

우편으로 받은 격려와 은혜의 선물들 또한 감동이었다.

매주 하는 리더 모임을 통해 많은 리더의 숨겨졌던 탈란트와 헌신을 보게 하심도 너무 감사했다! 그 뿐인가?! 많아진 시간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늘려 주심도 큰 축복이었다. 이 나이에 보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게 하심도 감사, 만물의 소생을 노래하는 자연의 신비를 여유로운 마음으로 관찰하며 즐기게 하심도 은혜!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심도 감사!

여호와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

돌아보니 일체 은혜, 일체 감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매 걸음 함께 하셨고

우리보다 늘 한 걸음 앞서 인도하셨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호와 삼마!

14 간증문

김유미

말씀카페 평화반

감사

이번 2020 향수 봄학기는 아마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세계의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우리 향수 여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와 만남을 매주 화요일마다 온전히 생명을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수 강물에 깊숙히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인생의 약이 되는 하나님 말씀 읽사귀와 달콤한 은혜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며 나누는 천국 잔치의 13주 향수 화요일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 상황에 따라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달랐었는데 이번 학기엔 저의 건강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도록 해주셨습니다. 혈압이 올라가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갑자기 두통이 심하여 고생한 적이 근래에 몇 번 생기자 새벽녘의 두통 생각에 밤에 자는 것이 두려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전에 없이 이런 일을 겪다 보니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자고 누는 일에 관련한 말씀 구절들이 빛을 발하며 눈에 띄어 읽혀졌습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8절)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낮기를 기도드리며 아스피린과 음식과 운동으로 몸 상태를 관리하였는데 아침에 잠에서 깨어 머리가 아프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달콤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허락해주심에 감사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시편 공부를 통해 “호흡”에 대하여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시편의 맨 마지막 구절 시편 150:6절을 배우며 호흡이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흡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호흡을 사람의 코에 불어 나눠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될 수 있게 한 것이었고 그 나눠주신 하나님의 호흡이 낮에도 밤에도 사람에게서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야만 인간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호흡하는 날과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날이 인간에게 마땅히 있는 것이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호흡 이전에, 호흡 그 후에도 계시는 영원의 주님이십니다. 그 광대하시고 크시고 깊고 높으신 시간을 초월하시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서 진실하게 우러나오는 주를 향한 날 위하신 사랑과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눠주신 호흡을 동력으로 삼아 몸을 진동하고 입술을 타고 울리는 오직 나만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흠향하여 받기를 원하시던 것이 되고, 감사함으로 인하여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서 나오미라는 그 의미를 묵상하게 되자 이것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호흡을 하며 날마다 겪는 모든 기쁨, 슬픔, 아픔, 즐거움의 사실과 날실처럼 엮어진 나의 삶의 세마포 위에 감사로 수 놓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시편 50:23절 말씀처럼 감사로 기도하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아버지만 찬양드리고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더욱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호흡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려주시고 자녀 삼아 교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젊음의 한 조각을 지난 시절 향수 팀장으로 사용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남편을 주시고 한없이 사랑스러운 귀한 두 아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자함으로 자비와 선하심으로 오래 참아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만드신 교회와 가정만이 shelter임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예배자들을 가정으로 보내사 산호세 전체를 거룩한 성소, 예배의 장으로 사용하시는 탁월하심을 찬양합니다. 만 입을 주신다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님만 감사로 찬양하는 데 사용케 하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선하심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믿음 더욱 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15 간증문

김윤영

말씀카페 인내반
시편 73: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 했는데, 시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 어떤 복보다도 더 큰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믿음을 주신 것은 어찌면 복을 주기 위하심이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가까이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까지 내어 주심도 복을 주기 위하심이네요. 세상의 어떤 신이 가깝게 지내려고 이토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 할까요? 어떤 신을 인간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의심과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신음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계획조차 세울 수 없어서 소스라치게 놀라며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함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세상이 두려워 벌벌 떨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고 어렵게 하시는지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라며 집 잃은 강아지 마냥 두리번거릴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들을 지냈습니다. 그냥 잘살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볼 때면 내 신체는 처량하고 속상할 뿐, 왜 나만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말입니다.

그러는 저에게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인생을 내리칩니다. “But as for me, it is good to be near to God~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좋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복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떨어짐은 복이 아닙니다. 가령 세상의 어떠한 큰 복을 받았다 치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하지 못함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달콤하게도 다른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 줍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을 향해 죽도록 향해 있도록 훈련 시키려 합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면 죽을것 같고, 그것이 주는 안정감을 얻지 못하면 미칠 것 같은 생각도 심어줍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 생각이 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어찌다 그것을 얻으면 세상 다 갖는 것처럼 기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도록 합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그것에만 매달려서 살도록 말입니다. 그런 세상이 주는 복의 중독을 없애려 피하거나 할 때는 세상이 주는 복의 결핍에 거의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도록 세상은 우리를 조종 합니다. 더 심한 고통으로 구석으로 내몰니다. 결국은 세상의 복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 싶어 하는 나를 바라봅니다. 그런 세상의 장난에 많은 사람이 노출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호흡이고, 생명이고 위로이십니다. 내가 호흡이 끊어진다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분일초도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내가 살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미래가 불안하고, 낙심될 때도 있고 서글픈 마음이 버릇처럼 내 삶을 짓누르지만, 내가 언젠가 하나님 곁으로 갈 때 평생을 하나님께 가까이하려고 했다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삶을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16 간증문

김정진

뉴비전 2단계

일상 속에 드리는 감사기도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제 신앙은 증조할머니로부터 시작되어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뉴비전교회에 온 지는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뉴비전 성경학교 2단계를 하면서 제일 크게 얻은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저의 지식이 많이 자란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증인에 대해서 배울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이 곧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역할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일상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동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2단계 과정을 하던 중에 저희 반 자매님이 열이 나면서 아프고 또 다른 권사님의 손자가 코로나로 아팠었습니다. 2단계 과정에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 배운 대로 함께 중보기도하여 모두 완쾌되어 저희 반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린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얼마 전부터 오디오로 새벽예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에스겔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혼자 읽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던 것들도 목사님께서 쉽게 해설해 주시니 이해하기도 쉽고 교회까지 오지 않아도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되니 편리함까지 보너스로 받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구나! 느끼게 됩니다.

4월 초부터 2주 동안 원인 모를 두드러기가 나서 가려움증이 심해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응급상황이 아니면 병원을 못 오게 해서 대신 의사와 비디오 통화를 하면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카메라로 두드러기를 보여주며 진료받으면서 최첨단 기술의 시대에 사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진료받을 수 있어서 다행으로 여기며 감사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기도 제목은 생활 속에서 항상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단계과정 중 그리스도의 증인에 관해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간증이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무대 공포증, 울렁증이 있어서 만약 지난 학기처럼 백 명이 넘는 분들 앞에서 실제로 서서 간증을 하라고 권유를 받았다면 절대 못 한다고 뒷걸음질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온라인으로 간증하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제 약한 부분을 감싸 주시는 동시에, 작은 역할이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17 간증문

김혜은

마더와이즈 회복



가까이 느끼는 천국

정말 한평생 있을까 말까 한 영화 같은 경험의 시간을 우리 모두 지나고 있다. 주변이나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과의 전쟁... 병원에서 짧은 시간 안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담보로 치열하게 싸우는 전투에서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내는 일들은 늘 예수님 오실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는 우리 크리스천과 교회에 많은 생각을 남겨준다. 한달 가까이 계속되는 Shelter in place 명령으로 집안이 벽적벽적 함께 모두 공유하게 되는 시간, 장소, 그리고 인생 전체가 처음의 패닉 상태에서 보다는 자리를 많이 잡게 돼서 참 감사하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여 나가는 시간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몸부림치며 애쓰고 있다. 그동안 너무 바쁘고 분주했던 일들에서 떠나 하나님, 나, 그리고 내게 가까운 이웃들 (가족 포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고 있다.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복적복적 영원토록 같이 살 텐데 지금부터라도 형제자매들과 잘 지내는 법을 연습해야 한다고나 할까? 생각하기 싫은 죽음이라는 주제를 마더와이즈 회복 제일 마지막 과에서 다루신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우리를 데려 가시려 부지런히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애뜻함을 지금의 특수한 상황에서 피부로 찢히게 체험하니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닌 주께서 말씀하시는 필연적이라 생각된다.

사방에서 엄마를 불러대는 정신없는 가운데 진행했던 행사 소그룹 모임, 초반 internet bandwidth를 재택근무하는 남편과 다투며 끊어지고 튕겨 나가는 가운데 포기하기는 그래도 이 모임이라도 폐하는 것을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응원 삼아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참석하는 것이 의미이다. 스스로 안위하며 3주간 버틴 것 같다.

아직도 온라인 모임이 정신없고 웬지 마더와이즈 회복 공부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간증문을 쓰게 돼서 참으로 마음이 편치 않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나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과 설렘만큼을 이번 꼭 붙들고 수료식을 진행하고 싶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사는 엄마 그리고 아내를 이번 기간 가족들이 타이트하게 경험하고 같이 그 마음이 전염되길 바란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18 간증문

노혜원

말씀카페 사랑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제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면 감사하지 못할 것들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COVID-19으로 “Shelter-in-Place”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처음엔 두려웠지만, 차츰차츰 감사로 채워지게 하셨습니다.

공부하는 게 싫어서인지 학교란 단체 생활을 못 해서인지, 세 아이는 그토록 홈스쿨을 외쳤고, 겨자 씨만 한 아이들의 믿음의 소원은 신기하게도 이뤄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된 저는 나름대로 계획도 세워 잘 해보려고 했지만, 날이 갈수록 잔소리만 많아지고 쉽게 욕박지르는 권위적인 교사가 되어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성경 읽는 시간에 ‘화내지 마라’, ‘말할 때 친절하라’, ‘입에 재갈을 물려라’의 말씀을 보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기도를 부탁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바른 하늘나라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푸른 잔디밭을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뛰지 말고, 조용히 말하라고 늘 아이들을 다그치며 살았던 2층 집에서 때마침 하우스로 미리 이사를 오게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뒤뜰에서 재잘거리며 뛰어노는 아이들의 소리에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 심심하지 말라고 길 잃은 암탉을 보내주셔서 잠깐 키워도 보고, 며칠 뒤에는 담 너머 풀밭으로 수백 마리의 염소 떼를 보내 주셔서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멋진 시편 23편의 체험 선물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음식을 공급하심에 감사합니다. 집에서 삼시 세끼를 꼬박 챙겨 먹느라 육적인 ‘확~ 찢 자’가 되어 가고 있는데, 영 육 간의 밸런스를 생각해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향수 말씀 카페의 숙제와 zoom 미팅은 거룩한 부담이 되어 나를 주님의 말씀 안에 살도록 하였습니다. 하루는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아 그냥 스킵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 부담감이 나를 향수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모든 의심이 걷히고 주님의 임재를 맛보았던 시편 73편의 저자처럼 온라인 향수 예배에 참여할 때 비로소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자의 말대로 진정한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고난 때문에 주님의 율례를 배워 고난이 유익했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 4개월 이상 더 지속될 이 “Stay-at-home” 상황 속에서 비록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더욱더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며, 작은 것에 감사하고 주님의 성소에 날마다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주님의 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9 간증문

문은희

말씀카페 온유반

주님과 함께라면

봄 학기 향수 예배를 시작하며 이번 학기는 우리 온유 반 팀들이 많아져서 많은 기대감에 부풀어 향수 학기를 등록했다. 몇 분들과 함께 새벽 예배 후에 등산을 하고 수강을 하며 온유반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게 되었다. 3월 15일부터는 교회에 모든 사역들이 중단되고, 예배까지도 영상으로 드려야만 했다. 한 주, 2주, 3주, 흐르는 동안 내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오며 나의 현실을 이성적으로 직시하게 된다. 해결되지 못한 이민법 내지는 부수적인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을 깊이 끌어안고 나 스스로 해결법을 쥐어짜고 연구하고 좌절감이 밀려오기 시작한다. 기도도 말씀도 찬양까지도 입을 함박하고 모두 손을 놓게 되며 이 문제들만 머리에 꽂 차 어느 것 하나도 손에 잡히는 것 없이 나날을 우울함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서도 우리 온유 반에 시편 공부하는 형식적으로만 붙들고 이어갔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나의 머리를 한번 흔들게 된다. 시편 공부를 조금씩 당겨 과목대로 읽고 기도하고 하던 중에 모든 시편 말씀이 다윗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모든 순간순간들... 이때부터 무거운 입을 떼 기도하기 시작한다.

‘주님! 모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시는 길을 그냥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에 일에 방해받지 않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이 날 이후로는 시편 말씀마다 우리 온유반에 뛰어난 시인들이 시와 찬양을 노래하며 이 마음이 조금씩 열려 나를 다시 속마음을 돌아보게 되며 회개의 자리로 나간다. 자신이 죽어야만 세상의 염려와 무관하게 뭍을 알게 하신다. 제대로 갖는 믿음 속에 새 생명의 기쁨을 느끼며 ‘세례받은 자답게 주님 보시기에 괜찮다 하여 주소서.’ 어둠에 갇힌 때는 보이지 않던 집 옆에 새 길이 보였다. 아침마다 그 길을 걸으며 찬양하며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며 천지에 만발한 꽃들도 방긋 하늘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이제는 매일 시편을 묵상하며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 이 클래스를 위해 애쓰시는 전도사님 외 권사님 그분들 사랑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이 시간에 올라오는 말씀과 시를 보며 하루가 행복하고 기대가 된다.

그런데 하루는 작은 딸이 오더니, 내년에 회사 휴가 중 엄마와 한국에 다니러 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자고 제의를 한다. 이런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작은 고통에 시간을, 뒤집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해본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에 상관없이 그러한 문제들이 내 마음에 울무가 되어 묶이지 않고 그냥 덩덤함을 느끼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우여곡절 중에 향수 예배 우리 온유반에 시편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것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온유반 전도사님 외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 간증문

박순희

이슬비 성경암송

고난의 좋은점

주일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소식에 낙심이 밀려왔지만, 주일예배를 비롯한 모든 교회 활동, 직장, 학교 수업이 신속하게 온라인으로 대체 되었기에 가족이 모두 한 공간에 있기만 할 뿐 이전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

오히려 코로나 19로 인하여 토요일가족 예배 부활과 가족 성경 공부 시작과 가족회의 시작 등 몇 가지 혜택을 받았다. 가족 성경 공부는 시도도 못하고 포기한 것인데 코로나 19의 위기감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가족회의는 일주일 동안 한 공간에 있으면서 생기는 힘든 상황을 서로 말하며 서로를 배려하기 위하여 만든 시간으로 증가된 가사를 이것을 통해 용이하게 재분배할 수 있었다.

요즘 남편이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를 끝내고 다음 프로젝트가 없어 공백 기간을 지내고 있다. 코로나 19가 원인이라고한다. 남자는 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 존재함을 표현한다고 하는데 남편의 초조한 모습을 보며 그런 굴레에 다시 매어짐을 목격하니 마음이 불편하다. 우리집도 드디어 코로나 19 불안감이 시작하나? 라는 생각이 슬며시 고개를 들긴 하지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까 한다.

밤마다 딸아이가 우리 부부에게 스트레칭을 20분 정도 시켜준다. 매일 저녁 갔던 스포츠 센터가 클로즈 되었기 때문에 시작한 가족 운동인데 딸아이는 코치 역할 하는 것을 매우 즐기는 눈치이고 우리 부부는 이것 후에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가족 모두 내심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래! 이렇게 살면 된다. 작은 공간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깔깔거리며 웃는 평범한 일상을 만족해하며 살면 된다. 이런 평범한 희귀한 일상을 경험하게 하는 코로나 19가 고맙다.



21 간증문

박은혜

마더와이즈 회복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회복의 길

회복 교재를 펼치고 제일 먼저 마주한 제목은 '선택받은 신부'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큰 산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신부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예비된 신부인 저와 연결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복 받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무지하고 아둔해서 주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참뜻을 알고 싶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제 마음을 잘 아셨는지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에 비유해서 레위와 롯의 이야기로 저에게 쉽게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에 집중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것과 태초부터 주님의 계획안에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택받은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까닭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이 바로 이유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고백을 받은 여자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그에 대한 응답으로 저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열자 저를 거룩하고 정결케 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예전 자유 반 때에는 '가지치기'로 저를 단련하셨는데, 이번에는 '천국의 사포'라는 이름으로 또 한번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택함 받고, 사랑받고, 용서받은 제가 예수님이 저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쉽게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실망을 하기도 하고 자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마지막 주에 답을 주셨는데, 훗날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저의 죄 때문에 심판 받지 않을 것이며, 저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 받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선택하려고 노력했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열매로 자신을 꾸미고 다시 오실 신랑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회복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마더와이즈 회복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렵게 진행되었지만, 그 어느 때 보다 말씀에 온전히 빠져들 수 있었고 자매님들과 뜨겁게 나눔을 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만을 저의 피난처로 삼고 오직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 레마를 삶으로 살아낼 것을 선포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22 간증문

박정하

말씀카페 사랑반

Thank you, 코로나

누구도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이렇게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매일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나는 점차 걱정과 두려움이 커졌다. 말씀 카페를 통해 시편을 공부하며 그 두려움조차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께서는 시편 103:3-5절을 통해 다양한 구원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며 나를 위로하셨다.

(시103:3)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구원이라 하면 단순히 십자가 구원만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 뿐 나의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주시다고 하셨다. 가족이 코로나에 걸릴까 싶은 두려움을 내려놓게 되었고, 설령 코로나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평안과 담대함을 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시103:11)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시103:13)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은 내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셨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요즘, 그저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 속에서 어제는 안보였던 감사거리가 오늘 눈앞에 들어왔다. 코로나로 남편이 할 일이 많아져 육아를 포함한 집안의 모든 일이 고스란히 내 몫이 되어 힘겨운 하루하루를 불평으로 보내던 나는, 하루아침에 해고되어 경제적인 어려움과 막막함 속에 낙심한 가장들을 보며 종일 일하는 남편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남편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모든 일을 나 혼자 하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나에게만 향했던 시선을 거두고 나니, 비로소 잠이라도 편하게 자라며 매일 밤 딸 아이를 데리고 자고, 틈나는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며 설거지를 해주고, 매일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는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 내 생각이 변했을 뿐이다. 그러자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졌고, 나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었다. 그러자 내가 느끼는 남편과 딸의 말과 행동이 달라졌다.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감사거리가 늘어갔다. 감사가 넘치자 나는 시편 23편을 통해 지금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를 것이라는 확신과 언제나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고, 답답히 고백하게 되었다.

(시23: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23: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또한 내 생각이 변하자 나의 기도가 변하게 되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는 중요하지만 더 이상 그 기도에만 매달리지는 않게 되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소서.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제 일을 하겠습니다. 제게 맡겨 주신 일들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다.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노심초사하며 걱정하기보다는, 내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감사히 여기며 나의 일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받은 평안과 복음을 나누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격려하고, 어린 자녀로 인해 장보기 힘든 자매에게 대신 장을 봐주고, 넉넉히 음식을 준비하여 주변에 나눠주고, 이 시기에 더욱 힘든 불우한 아동들을 후원하고, 아가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매일 찾고 있다. 내 인생에 코로나를 겪게 해주시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23 간증문

박지원

말씀카페 평화반

두려움 속에서

봄 향수에 시편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을 집중적으로 읽으며 평화반 권사님과 자매님들과도 익숙해지려는 즈음, 예상치 못한 전염병으로 매주 교회에 참석하여 드리던 주일 예배와 향수 예배가 그만 온라인 예배로 대체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남편이 흑시라도 전염병에 걸리게 될까 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직업 특성상 많은 사람을 돌보아야 하였고 기저 질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늘어만 가는 감염자, 기저 질환이 있었던 사망자들, 몸이 아파도 코로나 19 테스트를 받을 수 없는 상황, 병원비, 문을 닫아야만 하는 남편 일터, 그 뒤의 일들 등등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수많은 일들을 걱정하며 몹시 두려움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말씀 읽기와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집중을 할 수 없었으며, 갑자기 늘어난 집안일과 인터넷 검색으로 몸과 마음이 늘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희망적인 소식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3월 17일 저희 평화 반 자매님들은 권사님과 처음으로 Zoom을 통해 향수 소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의 불안한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었고 우리 권사님과 자매님들이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교재의 제7과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에 관한 숙제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23:4)

저는 이 말씀을 읽자마자 “저와 남편이 코로나에 걸리거나 아이들이 아플지라도, 설령 그 어떠한 육체적 고통이 오거나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하여도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이 저희와 함께하십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믿음을 선포하였는데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주님!”

그리고 클래스의 어느 자매님이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라며 격려의 말을 보내주었는데, 그 말에 그동안 눈 뜨자마자 뉴스와 검색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을 의지하던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곧장 주님께 회개 기도를 올려 드렸습니다. 저는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임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여 주셨기에 이제는 전의 모습과 달리 quarantine을 하면서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과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기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믿음의 향수 지체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보낼 수 있게 보호하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선하신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24 간증문

박진희

마더와이즈 회복

주님 안에서 회복하기

저는 회복반을 시작하기 전 지금 나에게 필요한 회복이 무엇일까 하는 조금은 교만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매주 공부를 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되었고 나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천국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에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누구도 상상 못 한 세상이 시작 되었을 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지금 까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 아쉬움과 앞으로 변할 것 같은 세상으로 인하여 그래서 달라질 삶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계속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으시고 동일하게 내 삶에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런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를 신부 삼아 주신 예수님이 저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격해야 할 기쁜 소식인데도 지금 당장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정말 기쁘게 갈 수 있느냐 라는 물음에는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상태로 공부를 계속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서 나를 들어 올리셔서 천국의 관점으로 삶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문장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한 지금 난 천국의 관점이 아니라 이 땅의 관점으로만 보고 살고 있구나. 이 땅의 관점에서 천국을 바라보니 천국에 대한 갈급함도 소망도 없이 특히 지금 같은 환경에서 필요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못 느끼고 있었구나. 관점 바꾸기를 할 때 비로소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될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향한 소망을 다시 품을 때 예수님의 신부가 된 나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고 신부로서 주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비우고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채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며 신랑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나 중심적인 모습에서 주님의 신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을 전하며 이웃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흐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주님안에서 회복이 될 거라는걸 이번 마더와이즈 회복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25 간증문

배새론

마더와이즈 지혜

주님 안에 은혜

안녕하세요. 올해 마더와이즈 지혜반을 수강한 배새론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성인이 된 후에 교회에서 멀어져 살다가 지난 6년간 남편의 직장으로 인한 잦은 이주와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의 끊임없는 불안감 등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던 중 혼자하는 성경공부의 한계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뉴비전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주보에서 제 이름을 보신 한 자매님의 연락으로 마더와이즈 클래스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무엇이든 주님이 주신대로 받았다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그룹으로 성경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마더와이즈 초반엔 낯설고 힘이 들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 앞에서 사생활을 꺼내어 놓는것이 두려웠고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제가 만나게 되신 분들도 다 주님의 계획안에 계신 분들이란 마음도 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았지만 제대로 예배드릴줄도 감사할줄도 몰랐던 저에게 주님은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제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일깨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안에 있으면서 또한 주님이 우리안에 있다는 것은 혼자 바둥거리던 저에게 주신 큰 은혜였습니다. 모든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만이 우리가 삶에서 평안을 얻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게 됐고요.

또한 남편과 아이의 소중함과 제가 가정에서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단순한 가족구성원만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믿음의 동반자이자 제가 섬겨야 할 사람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식으로만 알던 말씀이 같이 했던 자매님들의 이야기 나눔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배워야 할 것들을 요약해주시고 리마인더로 예배시간을 알려주시고 화상으로 저희 그룹을 이끌어주신 리더님을 주셔서 하나님께 큰 감사드립니다. 같이 공부한 지혜반 자매님들 역시 저에겐 또다른 은혜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같은 공간에서 직접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수 없어 아쉽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나누고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주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생업이 있고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마더와이즈를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교회분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26 간증문

백지원

말씀카페 기쁨반

소금 맛

온 가족이 한 공간에서 지내온 날들이 어느덧 한 달.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소홀했던 주방일로 내심 가족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말끔히 씻어버리듯 매번 근사한 식사를 차려내었다. 식구들은 식탁에 앉을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다. 배 속에 들어간 음식이 미처 소화되기도 전에 주고 받는 말 속에서 감정이 상하고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허무한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체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신 잠언 말씀이 생각났다. 혀에 관한 그 유명한 야고보서 말씀도 있지 아니한가! 하루는 마가복음을 읽어내려가다가 막9:50에서 멈추어 섰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 서로 화목하라’

소금! 그리고 보니 최근 ‘소금과 빛’을 화두로 대화를 한지 꽤 오래된 것 같다. 마치 오래된 장롱 속에서 잊혀진 물건을 꺼내보는 느낌이랄까? 한 때 즐겨 회자되었던 소금과 빛이 언제부터 덜혀졌을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찬양처럼 나에게겐 소금 묵상이 그 보화였다.

녹아 없어지는 죽음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부활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 완전히 녹아야 하는데 덜 녹아서 덜 죽어서 힘들었던 것이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방식대로 말하기를 그만두었다. 매일 아침 소금을 묵상함으로 시작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녹아 없어진 소금이 되어 살다보니 신기하게도 가족들간의 대화가 부드러워졌다. 그 내용들은 주로 들어주기, 인정의 말, 칭찬의 말, 소망의 말 들이다.

신기한 것은 내 마음 속이 깨끗이 비워지고 나서야 내가 의도하지 않은 선한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나도 모르는 말이 나오고 내가 한 말을 내가 듣고 만족해한다.

이것이 재미있어서 매일같이 계속했다. 어느새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니 정말 평화가 왔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볼 때 내가 가족들과 어떤 식으로 말하며 살아왔는지 떠올려 보니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어느 날 아침, “오늘도 소금으로 살게 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문득 기쁨이 차 올라왔다. 마치 예수님이 가까이서 웃으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같았다. “그렇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 맛을 다 보았니? 네가 그토록 원했으나 잘 안 되었던 절제의 열매까지 다 맛 보았지?” ^^

27 간증문

변지영

마더와이즈 자유

주님이 알려주신 양육의 비밀 ‘자유’

아이들이 자람에 따라 어머니의 역할에 점점 부담을 가지게 된 저는 현명한 어머니가 되는 법을 배우고자 마더와이즈 자유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현명한 어머니가 되고자 시작했던 자유 수업은 어머니이기 앞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기 자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처음엔 결혼하면 사랑하는 남편이 채워 주리라 생각했던 저의 내면의 빈 공간은 결혼 후 오히려 더 커지게 되었고 자녀가 태어남으로서 채워지지리라 기대했지만 채워지지 못한 인정과 사랑의 욕구는 육아의 고단함으로 오히려 더 갈급함만 커졌습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도 허전하고 항상 비어있던 내면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자유 수업은 저의 참된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딸이자 그분의 선한 일을 하도록 새롭게 지음 받은 자란 사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문제는 그대로 인데 ‘빛의 딸이며 어두움의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부름 받았음을 알고 바라본 세상은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후 저의 텅빈 내면은 오직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완전하게 채워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육아 때문에 나의 커리어를 포기 했다는 생각이 아이들이 여러방면으로 두각을 나타내어야 내 희생을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집착하며 통제하려 들었던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세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과 부모가 자신의 욕심으로 아이를 통제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 알게 되었고 세상에서 유행하거나 옳다고 주장하는 양육법을 따르기 보다 먼저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저보다 제 아이를 잘 아시는 주님만이 올바른 양육의 길로 이끌어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 COVID-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남편과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매일 진행되는 마더와이즈 교재와 온라인으로 지속되는 나눔은 저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순종을 배우면서 특히 남편에게 하는 순종은 저에게 항상 도전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남편은 항상 세상에 일에 서툴러 보여 늘 챙겨주고 알려줘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서는 이런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고 순종하는 길이 가정을 사탄으로부터 지키고 행통하는 길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내 지식 내 의지로 세상의 유혹과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자 고군분투 하는 것 보다 훨씬 쉽고 빠르며 진리의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자유 수업을 통해 비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토록 알려 주시고자 하시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가정’이라는 이 자리가 주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빛나고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요.

아직도 부족한 저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도 훈육보다는 통제하려는 모습을 발견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의 여정이 저 혼자 외롭게 가는 길이 아닌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길임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 가운데 저는 죽고 주님의 십자가만 나타나는 삶 살 수 있기를, 내 안에 생명의 샘물 넘쳐 흘러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이들이 저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선물로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동안 사랑으로 삶과 지혜를 나눠 주신 자유반 모든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28 간증문

손주영

마더와이즈 자유

닫혀있던 내맘 속 자유의 문을 뚫고 열고

집을 구하고, 동네를 바꿔 이사를 하고,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는 일들이 이미 바쁘던 나의 삶에 부과 되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점점 줄어 들고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 뭔가 더 많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던 때였다.

마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며, 친구이며, 동역자인 사랑하는 자매님이 향수 자유반을 처음 맡게 되었다는 소식에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마더와이즈 자유반에 등록하였다. 우선 화요일은 작은 아이가 일찍 끝나는 날이고, 차가 많이 막힐 때는 한 시간도 걸리는 거리임을 생각나게 하시지 않으시고 담대히 등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첫 시간 예배에서 매주 화요일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잘 지키자고 하신 말씀에 크게 아멘으로 화답했다. 또 오고 가는 길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아 보라는 리더님의 말에 따라 영어 방송을 다운 받아 듣기로 결심을 하고 향수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자유 수업이 지속되는 동안 다 이미 아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모르는 것 같은 말씀들을 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 많이 성숙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것과, 아직도 갈 길이 까마득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약한 존재임을 시인하게 되었다. 사춘기를 들어선 아들을 점점 내 방식대로 구속하려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키우려고 하기 보다 나에게 영광이 되기 위해 아이들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이 티끌 같은 존재인 나에게 영광이 되는 삶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가 깨달았다.

드니스 여사가 피크닉 테이블에서 하던 그런 순서대로 아이들 놓아주는 연습을 시작했다. 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이며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이임을 나도 아이에게도 새겨야 하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다짐하지만 그게 참 되질 않는다.

매일 매일 0.1%씩만 나아져도 아이가 대학가기 전엔 되겠지 싶어 맘을 조금하게 먹지는 않기로 했다. 조금한 마음도 사탄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닌걸 알기 때문이다.

40년 넘게 살면서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참 많이 배우고, 참 많이 알았는데 또 내가 철저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것을 다시 집어주신 리더님께 감사 드린다.

아직도 나의 삶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020년 자매님들과의 인터넷에서의 만남과 그것을 통해 나눈 이야기들은 더욱 내 맘에 새겨져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어머니로 아내로 한걸음씩 나아가는데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는다.

29 간증문

송민경

뉴비전 1단계



내 삶의 주인되신 주님

저는 이번 봄학기에 향수 뉴비전 성경학교1 단계를 수료한 송민경입니다.

저는 원래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고, 성인이 되어서는 습관처럼 다녔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 하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읽고 설교도 수없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지난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 가운데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미국에 와서 지난 7년간 교회를 완전히 떠나 살았습니다. 마음은 편치 않았지만 눈 앞에 닥친 현실이 더 급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며 지쳐 있을 때, 시댁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 한계가 오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의 위로와 충고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필연적으로 자매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자매님은 저를 뉴비전교회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장식구들과 교제를 하면서 더욱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 때 마침 향수 여성예배에 1단계 성경공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 보자는 마음으로 등록을 했고, 기대를 가지고 성경공부에 임했습니다. 수업 첫 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요한일서 1장9절 말씀이 죄의식에 눌러 살았던 저의 가슴 깊숙이 와 닿았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나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짧은 영접기도였지만 그 느낌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마치 “어서 오너라 내 딸아”라며 불러 주시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죄사함 받은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안도감 같은 것도 밀려왔습니다.

매주 화요일 권사님의 지도로 각 과정을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저는 어느새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하는 대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COVID-19으로 저의 삶도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지만, 나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며 모든 짐과 불안함을 주님 앞에 내려 놓습니다. 9과에서 공부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 간증문

신영란

이슬비 성경암송

칭찬 받고 싶어요

3단계 성공경부를 마치면 한번은 도전하고 싶은 성경암송이었습니다. 성경공부, 큐티, 성경읽기 등등 성경을 가까이 함이 늘 즐거웠지만 암송은 겨우 한구절 성경 공부에서 외우는 구절만 매주 따라만 갔지 한장,한 문맥을 외운적이 평생 한번도 없기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또 더 나이먹기 전에 성경 몇 장이래도 아니 몇 문맥이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멋있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암송반이기에 매일 두구절 그리고 한주에 10구절은 겨우 겨우 암송은 하지만 한주가 지나면 지난 번 구절과 이번 구절이 합쳐지는 놀라움에 기가 죽고 부담감에 눌렸습니다. 그러나 인도해 주시는 권사님의 따스함으로 처음 시작하는 자매들은 그주 구절만 완벽히 따라해도 박수와 격려로 한주 한주 문맥을 외울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외워도 함께 공부하는 자매님들 앞에서는 막히는 구절이 이리 많은지, 그리고 성경을 모른다는 초보 교인도 기쁘고 즐겁게 외우는지 성경암송이 먼저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자가 먼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소그룹에서 누군가가 ‘이번주 자신에게 칭찬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스쳐가는 생각으로 ‘내 자신이 매주일 성경 10구절을 외우고 있어요!’ 라고 답변했고, 소그룹에서 큰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볼때도 너무 대견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함께 할수 없는 향수 모임으로 처음에서 컨퍼런스콜로 요즘은 온라인 zoom으로 자매님들을 만나면서 나 자신도 스스로 외우는 모습에 느슨해지고 이사로 분주해서 몇주 쉬게 되면서 외우지 못하는 주가 늘어만 가다보니, 코로나와 여러 환경적인 이유로 나 자신이 성경 암송을 스스로 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부끄럽습니다.

봄향수의 성경 암송 도전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조금이나마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암송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빨리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은 성경암송반입니다. 3단계 권사님의 다섯 손가락으로 비유로 말씀에 꼭 잡혀살려면

하나, 목사님의 설교
 둘, 성경묵상
 셋, 성경읽기
 넷, 성경공부
 다섯째, 엄지가 성경암송이라..

말씀에 붙잡고 사는 삶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 간당간당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만, 도전과 실천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숨쉬는 즐거움을 알려준 이슬비 암송반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한 번 성경을 꼭 잡는 말씀 중심의 삶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31 간증문

양사라

말씀카페 인내반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맞닿는 곳

이번 향수예배에서 시편을 공부한다고?? 내귀가 쫓긋 해졌다.
 항상 시편을 깊게 묵상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다른 말씀들 공부하느라 뒤로 밀리고
 읽게 되어도 잠깐 간단히 묵상하고 끝내는 게 반복되어져 마음 한 구석에 아쉬움이
 남아 있는 시편.
 이번 시편 묵상을 통하여 깊은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들었다.
 내 영혼에 쉽표를 주고 쉽표가 시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묵상을 하며 노트에 시편을 쓰기 시작했고,
 한장 한장을 묵상하며
 시편은 하나님을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 간절히 찾고 울며 돌아오고
 또 다시 주님 품에서 안식을 얻는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을 배우게 된다.
 시편은 주님께 부르짖음이고 끊임없는 의심에 대한 질문이고 또 확신이고 찬양이다.

또 시편은 우리 삶에 다양한 사건 사고들,
 매일 급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옛 시편 저자들을 통하여 배운다.
 우리는 많은 죄에 노출되어있다. 죄의 유혹
 하루 24시간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신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 분 품으로 그 분의 날개 아래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준다.
 그래서 안식이고 평온함이다.

때로는 눈물과 원망의 기도, 통회 하고 자복 하는 기도를 올리더라도 나중은
 자유함을 맞본다.
 그 분이 나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분의 절절한 사랑을 느낄 때 감사함이 더 크다.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채찍과 가시 면류관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항상 내 영혼이 노래하기를...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한다.
 묵상 노트를 선물로 주시며, 적자생존을 외치신 권사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린다.
 적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항상 빨리 읽느라 쉽게 넘어 간 구절들이,
 구절구절마다 가슴에 와 맺힌다.
 그래서 참 좋은 묵상의 방법인 것 같다.

시편은 성경에 숨겨진 보석과도 같다.
 모두 각자 다양한 숨겨진 보석을 캐는 기쁨이 충만하길 바란다.

32 간증문

유주현

말씀카페 인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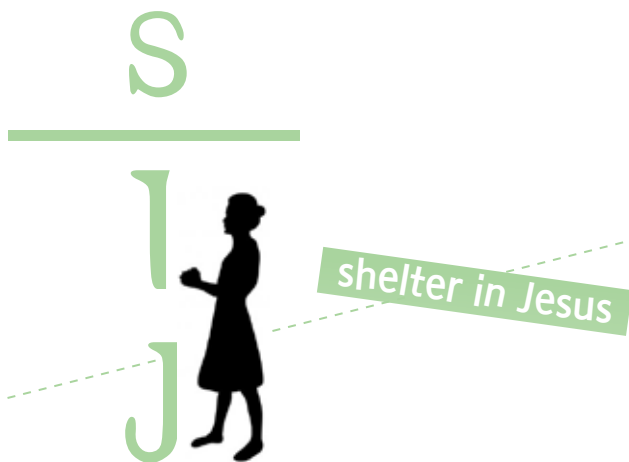
Shelter in Place 를 Shelter in Jesus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Shelter in place는 그간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며 새로운 생활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혼란의 시간이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택격리 상태로 아이들과 하루 종일을 지내야 하는 시간은 엄마들에게는 특히나 많은 인내심과 지혜를 구해야 하는 때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그냥 불편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품에 있을 때 더군다나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함께 있어야 하는 이 때가 정말로 아이들의 신앙을 점점하고 말씀을 먹이고 예배의 삶을 가르치고 몸소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중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로 했다.

아이들이 도망가지 않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아직도 서툴기는 하지만 날마다 아침에 예배로 함께 시작하고 QT와 말씀 암송, 그리고 자기 전에 성경말씀을 같이 읽는 하루를 만들었다. 평상시 같으면 학교 가느라 바쁜 아이들이었기에 수많은 변명이 있었을 것이고 나도 단호하게 못했을텐데 학교를 안 가는 이 시간은 정말 황금같은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부모만 열심히 신앙 생활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 주고 싶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듯 우리 아이들도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 당당하게 나가는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늘 바라고 원했던 아이들에 대한 나의 기도였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가정에서 만들어가고 사명을 주신 것 같다.

함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 더 친밀한 시간, 또 아이들과 더 친밀한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는 지금 Shelter in place의 시간... 돌아보면 이 시간이 정말 기억에 남을 그리고 다시는 주여지지 않을 Shelter in Jesus 의 값진 시간이지 않을까.



33 간증문

윤민혜

말씀카페 사랑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 간다는 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온 세상을 180도 변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티비나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거의 매일 만나던 친구들,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가던 그로서리 쇼핑 그리고 너무나 당연했던 함수와 주일예배가 멈춘 뒤 집에서 온전히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서로가 바쁜 스케줄로 가족들이 쯤처럼 시간을 함께 할 수 없는 지금 시대에 가족들이 서로 가까워 질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저에게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저희는 기다리고 있던 HIB Visa Lottery에서 뽑히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진행 중에 있지만 10월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의 비자가 6월 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저희는 불가피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 가서도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영주권은 계속 진행되겠지만 기약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에 대하여 속상함과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뭐 하나 쉽게 되게 해 주시지 않을까 라는 불만과 울분을 쏟았습니다. 고난은 작거나 크거나 저에게는 아직 복으로 다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그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은 저를 그리고 저희 가족을 결코 좋지 않은 것으로 이끄신 적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건 제가 바라는 방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시 되돌아 볼 때 결코 저희에게 나쁘거나 안좋은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며칠간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다가 다시 한번 주님께 다가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매일 하는 시편 통독을 좀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참여하였고 때 마침 시작된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기다리신다는 것 그리고 '내 뜻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옵소서'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저에게 필요한지도 느꼈습니다.

아직 저와 특히 남편에게 이 곳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와 걱정이 없진 않지만 힘든 상황 중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제 곁에서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남편의 걱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길 그리고 저희의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4 간증문

이사라

마더와이즈 자유

주님 품안에 안기는 ‘자유’

지난 학기에 마더와이즈 회복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감사한 시간들이 되었기에 이번 마더와이즈 자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더와이즈 자유 교재로 구성된 내용은 포도나무의 원리, 가지의 원리, 가지치기의 원리, 새싹의 원리, 열매의 원리 이 다섯가지 원리는 결국 내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임을 인정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야 한다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문어 다리와 같은 수 많은 육신의 것들을 과감없이 잘라내고 다시 자라나지 못하도록 머리 부분에 치명타를 가해 완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성장하여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인정하는 것이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참 자유란 십자가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 비로소 얻게 됨으로, 내가 진정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육신적 모습을 인정해야만 가능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잘못된 관계들을 정립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야 나 자신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마지막으로 일과 사역을 통한 세상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배움을 통해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했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며 여호와 이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기대하게 됩니다. 또한 교재에서 제시된 지혜로운 어머니 Tip들을 통해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들을 실천해 봄으로서 나의 삶을 더욱 풍요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는 나의 삶을 소망해 본다면,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로 하나씩 내어 드리면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났던 분노, 짜증들을 이제는 그 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십자가로 가져가며 내 뜻대로가 아니라 가장 선하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며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나의 전반적인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온전한 자유함을 주심을 알기에 새로운 피조물인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저의 노력이 끊이지 않고 계속됨으로 진정한 예수님 품에 안기는 ‘자유’를 누리고, 주님이 기뻐 받으실 인생의 여정으로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35 간증문

이영옥

말씀카페 온유반

기뻐 찬양하며 살리라

분주한 삶 속에서 허술해지는 나의 신앙을 느끼면서 지쳐가는 영육의 목마름과 간절함으로 문을 두드린 시편공부와 시편통독은 60세 이상 중년 여성의 삶을 공유할 수 있다는 편안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세상속에 흐트러진 삶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고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해야 '산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열망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수 년간의 직장생활을 조기 은퇴하고 익숙한 모든 것들을 뒤로한 채 아들과 딸 내외와 손자들이 있는 California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들과 함께 한다는 큰 기쁨과 보람, 그리고 기대를 품으며 옮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역과 환경에서의 삶은 너무 달라, 패기와 자신감이던 나의 꿈과 건강은 퇴색되어가고 나날이 무겁고 버거워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가며 네명의 손자들을 돌보면서 불규칙한 하루하루에 쌓이는 피곤과 아픔, 그리고 노후건강과 즐거움을 위한 well being의 삶에서 반대로 가는것 같은 낙심과 회의로 나의 심신은 상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는 대신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와 말씀 대신, 사모하는 경건의 삶을 핑계와 게으름으로 덮어가는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편공부를 하면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지혜와 찬양을 잃지않고 이겨낸 선지자 다윗의 경건한 삶을 배웠고, 또 은혜를 나누며 깨달은 것은 어려움과 고통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고, 이 '아픔과 같이 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의 힘' 밖에 없으며,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대로의 축복에 감사할 줄도 인내할 줄도 모르는 나를 회개하게 되었고, 이제 새 계획을 세우고 다시 시작되는 삶속에 모든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떨쳐내고 말씀대로 순종하리라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또한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회복을 통해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리되며 그들을 위한 더 큰 기도와 사랑으로 섬김을 각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소그룹에서 시편을 읽고 날마다 기도시를 창작하여 카톡으로 서로 나누며 평화와 안정을 경험하는 가운데, COVID-19 감염병이 4단계로 심각해지면서, 의료기관에서 주야로 일하는 자녀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 '이 시편의 때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나의 기도시로 힘내라고 보냈더니 아이들은 하나같이 감사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계속해서 시편으로 기도하며, 주님 찬양의 기도시를 지어 이웃과 나누며, 언제 어디서나 평생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36 간증문

이한광

뉴비전 1단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는 거의 매일 1시간 30분씩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울창한 나무들로 가득한 산과, 물이 흐르는 계곡과, 숲차게 올라야 하는 언덕과, 뜨거운 사막 같은 황량한 벌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멋진 길이 있다. 이 길을 걸으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며 행복감에 젖는다.

그런데 COVID-19이 시작된 이후 이 길이 달라 보인다. 온 인류가 극한 외로움과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자연도 함께 신음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은 여전히 푸르고, 들판은 여전히 야생화로 아름답고,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는 여전히 맑고 청아하다. 자연은 사람의 심정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 창조된 질서대로 최선을 다해 자신을 뽐내고 있을 뿐이다.

매일 들려오는 확진자의 숫자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숫자에 떨쳐 내려앉은 가슴을 진정시키며, 나는 숨이 턱에 차 오르도록 언덕을 오른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 재앙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래도 백성이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셨고, 백성이 돌이켜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슬픈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알아차린 것 같다. 내 속에 가득 찬 세상을 향한 욕심과 고집스러움을 교묘히 감추고,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처럼 포장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 고개를 숙였다. 두 마음을 품은 나를 아프게 지적하신다.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았더라면 내 주위는 좀더 사랑스러웠을 텐데, 조금만 더 너그럽게 나누었더라면 내 주위는 좀더 기뻐할 텐데,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내 주위는 좀더 평화로웠을 텐데, 이렇게 놓쳐 버린 순간들이 쓰나미처럼 나를 향해 밀려왔다.

“주님, 아직도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부끄러운 딸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의 보혈로 맑게 씻어 정직하게 하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주소서. 이 무섭고 두려운 세상을 돌아보시고 속히 전염병을 거두어 주소서.”

이 길은 걸으며 묻어 두었던 죄들을 하나씩 꺼내어 주님 앞에 내려 놓는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으며 다시 행복감에 젖는다.

37 간증문

이한나

말씀카페 온유반

2020년 봄 향수를 마치면서

나는 향수를 사랑한다. 지난 오년 간 나에게 기쁨을 주고 삶의 활력소를 부어 준 곳이 향수 예배이고 향수의 아름다운 젊은 여인들이 보여준 믿음의 헌신에 많은 감동을 받기도 했다. 밖으로 잘 돌아다니지 않는 나에게 갑자기 덮쳐 온 빈 동지가 주는 쓸쓸함과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이 주는 아픔을 잊게 만든 곳이 향수이다. 그래서 나는 향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팀장 및 모든 리더들의 수고에 감사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감에 따라 향수의 자매님들에게 자꾸만 미안해지는 마음이 있음을 추수리기가 어려워 “다음부터는 그만 나가야지” 하고 결심을 하곤 하지만 매 학기 향수의 시작과 함께 망설여지는 마음이 자꾸만 열어지고 물러 터져서 2020년 봄 향수의 시편 공부까지 오게 된 것 이었다.

시편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인 것 같다.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 인줄 알았는데 시편을 계속 읽고 묵상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똥한 말도 인 내심을 가지고 듣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시편은 성경 66권 중에 제일 인간의 감성을 잘 드러낸 책이 아닌가 싶다. 매일 두 편 씩 읽어 나가노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한테 어리광을 부리고 싶은 마음과 생각이 들어 온다. 그리고 읽은 말씀에 따라 마음의 감동이 주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나만의 시를 써 간다는 즐거움도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를 쓰기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될수록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짙어지니 그것도 은혜가 되었다. 시편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나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 되는 놀라운 간증을 한마디 하고 싶다.

지난 목요일 정확히는 4월 30일 오전 5시 28분 오디오 새벽 설교를 듣기 위해 들어간 곳에서 목사님의 설교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보통 새벽에 QT를 먼저 하고 5시 30분 설교를 듣는데 그날 새벽은 뭐가 바빴는지 QT를 못하고 설교를 먼저 듣기 위해 들어갔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 방방거리며 씩씩거리다 이런 저런 사정이 지난 후 설교를 들었다. 점심때 딸과 함께 점심을 먹는 중에 설교에 잠금 장치가 된 이야기를 딸에게 하면서 내 의견을 한마디 했더니 딸이 한마디 내게 한다. 딸의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몹시 안 좋기도 하려니와 나중에는 딸에게 부끄럽기까지 했다. 때문에 나의 남은 하루는 우울한 기분으로 보냈다. 딸이 내게 한 말은 남을 쉽게 Judge 하지 말라고 한다. 나는 이 말을 하루 종일 묵상했다. 그 때 성령님이 내게 속삭이는 말씀: “그 말은 성령님이 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너에게 하는 말이니 잘 새겨 듣고 앞으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까지의 깨달음에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감사와 회개의 눈물이. 101010 기도 그룹에 조금 일찍 들어가서 간증으로 이 이야기를 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얻은 영적인 유익이었다. 시편이 정말 우리의 감성을 건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사건이었다.

끝으로 온유반 리더인 장영미 권사님은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그 날 분량의 시편을 올려 주시는지 정말 놀라운 헌신이 아닐수 없어 감사를 드리며 축복합니다. 현대 테크놀로지에 거의 회색이고 특히 Zoom에는 백지에 가까운 우리에게 좋은 영상으로 나눔을 할 수 있게 한 손명화님의 헌신에 박수를 보내고 또 슬픔을 당한 자 위로하는 손명화님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축복을 빕니다. 온유반원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긴 방학기간 건강하시고 다시 만날 날까지 평강하길 빕니다.

우리를 위해 어머니날 향수 예배 때 우리의 영혼에 꿀같은 설교를 해주신 성혜정 전도사님이 가을 향수 때 강건하신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합니다.

38 간증문

임이래

마더와이즈 지혜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

한국에서 지낼때부터 마더와이즈를 추천해주는 분들이 많아서 언젠가 꼭 배워봐야지 했었는데, 사는 곳을 옮기고, 교회를 옮긴 뒤에 선물과 같이 이 시간이 제게 주어져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재의 처음 부분에서 나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내가 말씀으로 심겨진다는 그부분이 참 와닿았고, 교재를 묵상해 나가면서 말씀과 더 친밀해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접촉사고가 있어서 이동하는 것이 불편한 상황이 있었는데, 흔쾌히 라이드를 해주고 싶다면 같은 조 자매님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하는 시간 동안 기쁨으로 라이드해줬던 자매의 섬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심한 감기로 힘들어하는 시간에 따뜻한 식사를 선물해준 조장님의 그 섬김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파서 불평하던 저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모임을 이끌어 주셨기에, 힘든 순간을 말씀과 기도로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조장님을 비롯해 임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손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9 간증문

이효미

마더와이즈 지혜

마더와이즈 지혜를 마치며

딸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아기였을 땐 건강하게 자라주었으면 좋겠고 프리스쿨을 다닐 땐 나와 떨어져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양보도 잘했음, 노래도 잘했음, 영어도 한국말도 잘했음 하며 아이에 대한 기대감과 욕심과 바라는 것이 하나하나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학년 중간쯤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혼자라 외동 티 난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생각해보니 그것도 저의 욕심입니다) 늘 양보해라 친구들에게 나이스하게 대하라며 강요 아닌 강요를 하게 되면서 아이는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고 이렇게 하면 안돼 하며 어린아이가 너무나 배려하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기에 기특하기도 하면서도 때론 친구들한테 매번 밀리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반 친구 중에서 영어가 안 되어 주눅 들어있던 친구에게 잘해 주었고 친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저희 아이에게 못되게 굴었고 아이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밥그릇도 잘 못 챙기는 것 같아 속상한 마음에 “개가 민하게 얘기하면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해!” 라고 엄마로서 모자라는 육아법을 쓰면 아이는 “엄마 나는 개랑 똑같은 아이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럼 개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며 대답하는 아이를 보며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이 따뜻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자라게 해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아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잘 자라고 있었거늘 저의 마음은 속상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며, 지난 학기에 마더와이즈 자유를 공부하고 있었고, 커플와이즈를 통해 어느 자매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남편에게 편지를 써 주었고 그것이 힘이 되었다고요. 처음에는 그렇구나 했고 향수 종강식에서도 같은 간증문을 들었을 때도 아 그 자매님이구나. 이 정도. 그런데 예배 시간에 향수 광고 중 그 자매님의 같은 간증을 3번이나 듣게 되자 갑자기 나에게 탁! 하고 메세지가 되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편지를 쓰자. 그래서 그날부터 런치박스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엄마가 우리 지후 많이 사랑해. 간단한 쪽지를 붙이기 시작했고 아이는 아이들이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엄마 고마워요. 매일 써 주세요” 라며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지혜반. 마더와이즈 자유반에서는 내 안의 문제를 들여다 보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지혜반에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 남편과 아이에 대해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한 팁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책들과는 차원이 다른 성경적이지만 현실적인 방법들로요.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 규칙세우기. 그리고 남편에 대한 자세(?) 마음가짐 등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족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며 매주 도전과 기쁨의 교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너무 바른 길을 강요하였던 저의 삶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보통과는 반대의 문제인데 저는 아이에게 너무 많은 규칙을 정해 지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 아인데, 그리고 저도 지금도 실수를 하며 살고 있는데 하며 크게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이가 하는대로 존중하도록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또한 향수반에 있는 자매님께서 자녀와 같이 성경읽기를 추천해주시면서 가입하였던 카톡방이 있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 중간에 드문드문 하였습니 다. 그러던 중 공부에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무엘과 다른 자녀들의 차이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그것은 크리스찬부모로서 꼭 해야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성경읽기에 같이 하고 아이가 원하면 같이 성경구절도 외우게 되었습니다. 퍼블릭 스쿨에 다니기에 이런부분이 아쉽다 하였는데 생각해보니 집에서 이렇게 엄마랑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내가 너무 외부적 요소로 채우려 했다는 점을 깨닫고 자기 전 성경 1챕터 읽기는 거르지 않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더와이즈는 지혜-자유-회복 순으로 듣기를 추천하지만 먼저 자유를 듣는 게 저에게는 더 맞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번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리더님 감사합니다.

40 간증문

이향숙

마더와이즈 자유

사랑으로 섬세하게 만져주시는 하나님

저는 딸, 아들 두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저는 기러기 엄마였습니다. 아이들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저는 한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두 아이의 공부가 끝나서 저도 은퇴하고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외국 생활이 그다지 순조롭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만 끝나면 좋을 것 같았지만 40여 년 동안 열심히 일만 해오던 저는 공허함과 길을 잃은 듯한 쓸쓸함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뉴비전교회 청년부에 다니는 딸 아이의 권유로 향수 마더와이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했던 저는 “자유”라는 주제에 끌려 마더와이즈 자유반을 시작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치유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 육아, 자녀교육, 남편과의 관계와 같은 주제들은 저에게 이미 지나간 시간들이어서 크게 울림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나간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선 참으로 섬세하십니다. 늦게라도 알게 하시고 저의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했던 지난 날의 자녀 교육이나 남편과의 모습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어 매순간 부끄러웠고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순종/복종 이런 내용들이 제겐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 남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시는 깊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저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엄마의 지혜를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서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무조건 열심히 했습니다. 명령하고, 질책하고, 군대처럼 엄격한 엄마였습니다. 이런 엄마를 보는 아이들은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지나고 보니 제게는 사랑이 부족했던 거였습니다. 사랑의 방향이 달랐던 겁니다. 이번에 같이 공부한 자유반 젊은 엄마들을 보니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부러웠습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고 믿으며 의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다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지치고 힘들고 늘 쫓기는 듯이 분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선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걸 제가 몰랐던 겁니다. 오랫동안 그저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학기 자유를 통해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늦게라도 저만의 방법으로 자녀교육 한 것,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못했던 일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고백과 사과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사랑이 풍성한 어머니로, 또 할머니로,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41 간증문

정예진

마더와이즈 지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

마더와이즈 지혜 클래스는 결혼생활과 자녀양육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 4년이라는 시간동안 이 변화한 삶에 적응하기 바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정의 모습과 나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로서 엄마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조차 생각해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으로 이사 와서 뉴비전 교회를 만나고 향수 예배를 참석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어떤 클래스가 저에게 가장 유익할지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아직 말씀공부에 익숙하지 않은 같은 목장 식구인 승민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마더와이즈 지혜클래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클래스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지만 무엇보다 여성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정 안에서 맺어진 관계들을 대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클래스를 참여하는 내내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저의 가정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에 따라 저의 생각대로 관계를 적립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내인 저는 남편을 저의 머리로서 리더로서 존중하며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생활과 자녀양육에 대해 더욱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준없이 깊은 고민없이 하나님의 이 귀한 가정을 이끌어왔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 나가기 위해 아이들을 재운 저녁시간은 항상 말씀과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도록 결단하였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마 6:22)

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가정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한 학기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떠들석한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신 마더와이즈 지혜반 리더님과 집사님, 자매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향수예배를 섬겨 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42 간증문

정지윤

마더와이즈 회복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며

COVID-19이라는 특별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끈을 놓지 않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마지막 마더와이즈 클래스인 회복까지 온라인 수업을 통해 마칠 수 있어서 어느 향수 때보다 더욱 은혜가 넘치는 특별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셨대!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잠재력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아들과 함께 할 사람으로 당신을 택하셨대! 라는 회복책에 나와 있는 문구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풍성하신 은혜에 숙연해지며 감사함과 함께 벅차오르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먼지보다 못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의 보배로운 피 값으로 사시고 정결케 하셔서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지 그분의 충만한 사랑을 회복책에 나와있는 아름다운 고대 유대의 결혼 스토리를 통해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이땅에서만 끝나지 않고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셔서 언젠가는 신부인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오시는 그날 모든 상처와 고통이 사라질 것이기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에게는 주님의 재림은 무엇보다 더 기대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전세계가 힘든 상황을 겪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복된 소망이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됨을 알기에 더욱더 감사했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제 자신을 바라보며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 안의 불순물을 제거해 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가득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남은 일생을 주님의 천국 확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쌓아가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주님 곧 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물리적으로 모이지 않기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영적 게으름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향수 온라인 예배로 더욱 뜨겁게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3 간증문

장영미

말씀카페 온유반

COVID 19 어두움 속에서 발견한 보화

첫째는 안식월입니다

1989년 예수님을 만난 이후 32년만에, 자기격리된 생활이 시작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당황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상황과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자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안식월)임을 알게 되었고, 그 동안 하고 싶었던 일(산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 꽃밭 가꾸기, 집 안팎 정리하기, 아이들을 사랑의 음식으로 섬기기)등을 하며 STAY AT HOME의 시간을 행복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둘째는 봄향수 ‘시편’ 읽기와 시편공부와 시편묵상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된 시편은 시편 150편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끝이 납니다. 다양한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신 분이었던, 그들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같이 시련과 고통, 두려움 등이 있었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무능함을 가지고 골방에서 처절한 고독 속에서 눈물로 드렸던 기도였기에, 한 단어 한 단어가 힘이 있었고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며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 전에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렁에서 건져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한 영혼으로 살고 있음에 하나님을 향한 새노래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운점은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죄를 살피는 마음과 의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었으며, 아직 응답받지 못한 상태에서 미리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듯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런 전천후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가, 제게는 도전이며 닦고 싶은 기도입니다.

셋째는 온유반을 통해 받은 은혜입니다.

온유반의 성혜정 전도사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 모두는 시인이시며 찬양자이며 기도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어찌 그리 깨끗하고 아름다우신지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사모하심과 성실하심,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삶이 제게 신선한 충격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꼭 집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44 간증문

장정우

마더와이즈 자유



참 자유이신 예수님

저는 이번 봄학기 향수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하는 가정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무척 컸습니다. 저나 남편 모두 교회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지만 남편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다는 말을 했기에 금요성경학교 1단계를 남편과 함께 듣자고 남편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그러면 저는 우리 가정을 위해 주중에 향수예배에 참석하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권유해서 이번 봄 향수 예배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가을 학기에 아는 집사님을 통해 6주간 참석한 향수 예배를 다녀오면 제가 더 생기있게 한 주를 사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 남편이 이야기해서 육체적으로는 조금 피곤할 것 같아 걱정이 되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향수예배 자유반 교재를 공부하면서 저는 우리에게 여러 개의 사랑의 양동이와 있고 그 양동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배우면서 진정한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의 육적인 가지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잘라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 과정만 거치면 내가 할 일은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것뿐이라는 사실 때문에 또 한번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향수 예배 자유반을 시작할 때 저는 육아 때문에 제 커리어를 포기했다는 마음 그리고 얼른 다시 커리어에 복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불안감 때문에 무척 마음이 힘들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을 갖는 제 모습 때문에 아이에게 미안하여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수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런 저의 마음이 근본적으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인정받고자 달려온 제 모습이 얼마나 쓸모 없는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보여주셨는데 나는 왜 그런 그분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이목에 더 신경을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실 것을 믿는 가운데 준비하고 나아가야지 두려움으로 맞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뜻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저를 이번 학기 향수예배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인생의 선배 그리고 친구로 자유반에서 같이 공부하며 더 즐겁게 이번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자유반 자매님들께 감사합니다.

45 간증문

전연향

말씀카페 사랑반

성소에 들어가기

미국으로 이주를 한 후로 믿음을 키워 가던 향수 예배를 취직을 하여 일을 나가게 되면서 계속 함께 할 수 없어 많이 아쉽고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중 COVID-19로 LOCKDOWN 되면서 직장을 나갈 수 없고 집에서만 머물던 중 성혜정 전도사님과 통화할 일이 있었고, 서로 안부 인사를 하던 중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향수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떠냐고 권면해 주셨고, 늦었지만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한 첫 날에 같은 반 자매님이 반갑게 환영을 해 주셨고, 5년 전과 다르게 처음 보는 젊은 자매님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너무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배워가는 모습이 너무도 예쁘게 보였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점점 소그룹에 조인할수록 예전 향수 소그룹에서 창세기를 공부했을 때가 생각나고 성경 구절구절 깊이 묵상했던 기억이 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편 공부 10과 (시편 73편)를 배울 때는 시편 저자도 가끔씩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과 비슷했고, 그런 시편 저자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찾았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17절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리고 더 큰 깨달음은 저는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소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뜸을 들이는 제 모습을 보게 하셨고 소그룹을 통해 배우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향수를 통해 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더 깊게 더 친밀하게 주님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6 간증문

정문경

말씀카페 평화반

나의 목자되신 하나님

코로나19가 한국에서 터질 무렵 아이에게 폐렴이 찾아왔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쯤 미국에서도 코로나19으로 학교는 휴교를 하고 가정들은 Shelter-in-Place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휴교로 인해 아이는 책들과 프린트물을 한 아름 들고 집에 왔습니다. 하루 아침에 아이와 집에 있으면서 홈스쿨링을 하고 아이를 단도리 해야만 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삼시 세 끼를 만들어야 하고 선생님 역할까지 해 내야 하는 부담까지 얹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남들보다 3주 먼저 시작한 Shelter-in-Place.. 처음에는 너무 지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막막하였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인가요. 다행히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Shelter-in-Place 시작 한 지 5주 정도 지나고 처음에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마음만 우왕좌왕 바쁘고 빨리 학교가 열리기만을 기다렸던 시간들이 어느덧 아이 학교도 Zoom으로 수업이 잘 셋업 되어 원활히 Distance learning이 잘 진행되고 있고 아이와의 집에서의 시간들도 집안에서 룰이 생겨서 훨씬 수월해진 것을 느낍니다.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도 저는 저만의 시간을 꼭 만들어 하루 40분 운동시간을 갖거나 산책을 하며 제 몸을 챙기고 있습니다. 체력이 약한 나인데 남편마저 아이와 똑같은 증상으로 폐렴에 걸릴 때에도 저는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몇 달 동안 작은 감기조차 하루 안되어 이겨 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 분명한 건 하나님이 저를 단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힘든 데도 순종하게 하시고 평상시에 제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은 가능하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시작과 함께 시작한 시편 읽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시 23:1-2)” 저의 모든 상황, 나의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나를 다 아시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주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이 성령님의 만져 주님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자매님의 권유로 잠언과 전도서를 낱자에 맞춰 읽기 시작했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오늘도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과 쉼 만한 물가로 오늘도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47 간증문

조한나

마더와이즈 회복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완성 회복

2년 전 처음 마더와이즈 지혜 수업을 시작으로 자유를 거쳐 지금의 회복까지 긴 여정을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서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온라인 예배와 소그룹으로 끝까지 마치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혜와 자유 클래스 때는 저의 쓴 뿌리와 상처,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예수님 십자가에 내 려놓으며, 저를 치유하시고 인간관계의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셔서 좀 더 담대하고 자유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저 에게 상처와 끝없는 배신을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믿음 생활은 마치 솔뚜껍과 같아서 금방 뜨거웠다가 식었다가를 반복하며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는 제 자신을 스스로 책망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천국의 구원을 믿지만, 과연 이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기적이고 참을성이 없고 세상을 좋아하며, 또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화내고 짜증 내는 못한 엄마이자 부족한 아내라는 생각에.. 이렇게 늘 100%가 아닌 믿음의 나는 예수님의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될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회복에서의 말씀과 가르침은 제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4:16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그분의 보좌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지성소로 들어오는 당신을 주님은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위로와 확신을 주었고, 율법이라는 수전이 마음에서 벗겨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 너무나 크고 깊은 십자가 사랑을 받았던 저는, 지금도 여전히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이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작은 유혹과 자아와의 싸움에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품으로 돌아가 의지하고 주님과 담대히 나아갈 때 내가 거룩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를 제 안에 맺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기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마더와이즈 회복 클래스를 통해서 저를 새롭게 빚어 가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48 간증문

주애리
 뉴비전 3단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1단계, 2단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주인 되심을 눈으로, 귀로, 입으로, 마음으로 느끼게 해 주셨다면, 3단계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심을 내 온몸으로 삶으로 느끼게 해 주셨으며 그 사랑을 느끼게만 하게 하지 않으시고 행동하게 해 주시는 기간이었다.

묵상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가운데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친구, 이웃, 그리고 알지 못하지만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애뜻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는 과정 중에 남편이 직장을 옮겨 타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중간까지 밖에 같이 할 수 없음에 나는 무척이나 아쉽고 아쉬웠다. 사실 나는 뉴욕에서 이 곳 산호세로 이사 온 후로 아이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과 교통의 번잡함, 한국 사람들은 많지만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외로운 생활의 연속이었다. 이런 삶 속에서 내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었던 건 향수 예배이고 1,2,3단계의 성경공부였다. 성경 공부는 이 외롭고 우울한 날들의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 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심을 절절히 느끼게 해 주었기에, 그리고 나에게서는 정말로 놓치고 싶지 않은 소중한 공부였기에 더 아쉬움이 컸던 것 같다. 그런데 코비드로 인해 온라인으로 소그룹 모임을 하게 되었고 타주로 이주한 후에도 나는 끝까지 3단계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

코비드 이 못된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자유로운 생활이 박탈되어 버렸다. 세계는 두려움과 혼란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가고 두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점점 강박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았다. 사재기를 하고, 인종 차별의 수위가 높아지고,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나 또한 두려운 마음에 사재기를 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기에 동참하고, 참으로 무서웠고, 그 무서움에 운 적도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3단계 공부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셨다. 때마다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으로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3단계 공부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가운데 두려움을 무너뜨려 주시고 소망을 간구하게 하셨다. 코비드 이전의 삶은 너무도 평범하고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소중해하지도 감사해하지도 않고 작은 일에도 불평과 불만, 분노가 가득해 나의 것만 생각하고 이웃을 바라보지 않았다. 아마 바라보았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애뜻한 사랑의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지금은 그런 평범했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했는지 또 그런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음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위로와 훈련이 없었다면 지금 나는 두려움과 불안에 갇혀 나 자신을 잃어버렸을 것 같다. 그러기에 3단계 성경공부는 나에게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다.

좋은 리더를 만나 평안했고 좋은 3단계 자매님들과 만나 즐거웠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감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살아가면서 더 느끼게 되는 것,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이렇게 고백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드리고,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 드려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9 간증문

주영은

말씀카페 사랑반

시편으로 붙들여 주신 하나님

몇 년의 뒤늦은 육아가 남긴 가장 큰 마음의 숙제는 감사와 기쁨보다 힘들다는 마음이 늘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주님 주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한다고 배웠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결심한 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은 체력적 부담보다 더 큰 무게로 나를 힘들게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맞이한 2020년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9절 말씀대로 제발 기쁨과 감사를, 성령님을, 항상 범사에 놓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 시편을 통해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법을 배울 수 있겠다는 기대로 향수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이끌어 주셨다.

오랜만에 그리고 몇 주 늦게 참석해 어색함과 떨림으로 시작한 소그룹을 통해 은혜와 도전을 받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현장예배가 온라인 모임으로 바뀌었다. 집 안에 온 식구가 다 같이 모여 각자의 일, 주로 온라인 미팅을 해야 하는 남편과 큰 아이들 때문에 막내 조용히 시키기가 주 임무가 되어버린 나에게 처음에는 소그룹 모임의 길이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러다 날 좋은 날 정원에 나가 시도한 첫 소그룹 모임이 얼마나 떨리고 감격적이었던지.. 답도 잘 못할 만큼 떨리기도 했지만 다른 자매님들 말씀만 듣는 것으로도 큰 은혜가 되었다.

무엇보다 숙제라서 꼭 해야 한다고 하게 된 시편 통독과 한 편씩 깊게 묵상하게 되는 교재 공부를 통해서 이 상황을 미리 알고 계셨을 주님의 보호하심과 나를 붙드시는 마음이 많이 많이 느껴졌다. 이미 감사 기쁨만 드리기에 벅잡다 느끼던 때에 일어난 이 상황은, 그나마 주님과 온전히 독대할 수 있었던 주일예배, 정 갑갑하면 달려 나갈 수 있던 새벽예배 같은 혼자 떨어져 기도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막혀 버리고 아직 아기인 막내와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 모든 시간을 공유함으로 주님을 묵상할 기회마저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영적으로 벽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너무나 힘이 들던 그때, 온라인 소그룹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참석을 위해 밤늦게까지 숙제를 하고, 기도 시를 짓기 위해 억지로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그 시간이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시간이 되었다. 시편 통독을 위해서는 아이와 놀아주는 가운데 옆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한절 한절 짤미 날 때 쉽게 되었고, 그 짧은 시간 꼭꼭 은혜되는 말씀을 마음에 넣어 주심이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했는지 모른다. 때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심에 감격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종종 너무 커지는 두려움을 잠재워 주셨으며 주님 자체가 찬양 받으셔야 할 분이기엔 찬양해야 함을 일깨워 주신 주님께서서는 시편 통독으로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 향수 예배도 끝나고 6주가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많은 것에 익숙해지고 지금을 그냥 보통의 날들로 여기는 건 아닐까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짬짬이 아이와 놀아주는 도중에 읽어야 했던 시편 통독 덕분에 이제는 아이가 깨어 있는 동안 큐티를 나누어하는 것이 마음 힘들지 않고, 주일예배에 왔다 갔다 하는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앉아있게 할 수 있는지 약간의 노하우가 생겼으며 주중에 조용히 시키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나의 새로운 업무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에 오기까지 꽃 달고 밖으로 뛰쳐나갈 뻔한 적이 몇 번이었는데, 주님은 떠오르지도 않고 내 빼앗겨버린 자유와 약간의 안락함이 그리워 운몽으로 불을 뿜어내던 나를 위해 엄마가 너 그러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큰 아이들에게조차도 상처 받았던 연약했던 시간들 중, 시편 묵상과 모든 어려웠던 숙제-이 간증문을 쓰기까지도 수많은 방해가 존재했던- 들,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힘들었던, 그럼에도 은혜 부스러기라도 받아먹고 싶어 죄송한 마음 가지고 들어갔던 온라인 소그룹을 통해 나를 주님 곁에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주님께 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더불어 아이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말씀으로 알려주신 리더 집사님과 실행에 열심이신 엄마 집사님들, 주님께 향하는 절절한 마음과 깊은 묵상을 일상 속에 녹여내어 나누어 주신 언니 집사님들께 받기만 해 죄송한 마음을 얼굴을 맞담부터 감격하며 다시 만날 다음 향수 때 전해 드려야겠다.

50 간증문

채경선

마더와이즈 회복

천국소망

저는 이번 회복반을 통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천국 하면 그저 예수님이 계신 곳, 내가 죽으면 가게 될 곳 이라고만 생각하며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나 기다림은 없었는데 그런 저에게 주님은 천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신부 된 자로서 지금 살고 있는 이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지, 내 행동의 결실로 천국에서 어떤 면류관을 받게 될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 구별되었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생각하며 주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내 생각에서 나온 선한 행동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나 COVID-19 때문에 모두가 자가 격리되고 힘든 상황 속에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선한 행동으로 앞장서는데 전 가만히 집에서 내 가정만 지키고 있는 것이 부끄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전 제가 할 수 있는 의로운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회복에서 말씀을 더 공부하니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았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먼저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잠잠할 줄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려고 애쓰기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 했습니다.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처럼 제게는 먼저 주님을 섬기며 성령 충만함에 힘써야 할 때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 속에서는 예전보다 더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내게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모르는 내 가족에게 또는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봅니다. 만나서 교제 나누기 어려운 상황에도 향수 예배를 끝까지 할 수 있게 도움 주신 모든 손길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51 간증문

최지선

마더와이즈 자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제게 향수의 첫 번째 공부였던 마더와이즈 지혜 공부에 이어 자유 공부까지 이어지는 길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향수에서 이어진 좋은 만남들은 제가 그분들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생각을 느끼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유 공부를 하면서 첫번째로 알게 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님을 처음 찾게 된 계기는 바로 육아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좌절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5년 전 이미 직장생활과 육아로 지쳐있던 저는 본격적으로 육아에 몰두하기 위해 ‘엄마’라는 자리로 돌아왔으나 모든 것이 엉망인 듯 느껴졌습니다. 육아서와 육아방송을 정말 열심히 찾아봤고, 완벽한 엄마의 모습을 그리면서 스스로 의지를 다지며 그렇게 ‘엄마’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만 갔고 제 힘으로 안 되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변에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 그동안 저에게 말을 걸었던 사람들이 떠올랐고 설교 말씀을 찾아 듣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쏟으며 찬양을 들을 때 내가 위로받고 있고, 나를 위로해주시고 온전히 사랑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열심히 노력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육아를 통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알게 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낡은 사고방식을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제가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만족에만 관심이 있는 육신의 의미를 알고 나니 저의 어리석음이 보였고 모든 것이 육신을 따르는 죄와 사망의 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주님께 여쭙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애원하면서 매순간 십자가의 영향을 받고자 노력합니다. 육신을 죽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육신의 게으름을 싹 없애주시고 단련시켜 달라고 기도드리며 귀찮아서 미루는 습관 또한 제게서 걷어내는 중입니다. 요 15:1-2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끊임없이 연단시켜 주셔서 깨끗하게 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멈출 줄 알았던 향수 모임이 줌으로 이어져 운영하시는 사역팀 분들의 열정에 너무 놀랐고, 영적으로 깊은 분들이라 매시간 제게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신 우리 리더님과 팀원분들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 자유를 통해 제게 자유로워지는 길을 보여주시고 희망을 갖게 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저에게 하나님의 친구이고, 주님의 초장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지 않고 생명의 법을 따르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52 간증문

한여정

마더와이즈 지혜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마더와이즈를 시작하기 전 솔직히 나는 자신이 없었다. 육 년 전 어머니학교를 수료하면서 많은 걸 배웠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흐지부지 해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닌 결국 내 방식대로 아이를 양육하며 세상적인 고민을 거듭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사를 오면서 더 길을 헤매게 된 기분이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허락해주신 좋은 목장분들의 추천 덕분에 향수 예배 마더와이즈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지혜 편을 하면서 100퍼센트 성실하게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신앙생활에 게을러졌던 내게 조금씩 계속 울림을 주셨다.

매 주제마다 현재 내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고 성경구절을 찾으려 하며 위로하심과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다.

배운 내용을 조금씩 아이들에게 적용해보고 남편과의 관계에도 마음을 열어보며 내 고집을 조금씩 내려놓아보며 순종하려 노력했다.

덕분에 코로나로 종일토록 함께 하게 된 시간에도 완벽하진 않지만 예전보단 남편과 아이들을 이해하며 내 감정을 추슬렀고 싸우거나 얼굴을 붉히는 일이 확실히 적었다.

또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다.

마더와이즈를 마치고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내가 편한 대로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마더와이즈 지혜 편을 다시 찾으며 세상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어려운 시기 올바르게 끌어준 리더님과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해준 지혜반 자매님들께 감사하고 싶다.

53 간증문

홍수경

마더와이즈 지혜

좋은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열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늘려보자는 마음으로 선택했던 마더와이즈 지혜반! 특별히 올 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싶었다.

광고로만 들던 마더와이즈 수업은 말씀을 찾고 묵상하게 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뜻을 알게 해 주었다. 성경을 뒤적여 교재에서 언급하는 말씀들을 찾아 밑줄 긋고 펜으로 적어가며 뜻을 곱씹는 재미가 여간 좋은 게 아니었다.

그러던 중... 2020 단기선교를 제안받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선교는 내게 너무 부담스러운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었으나 하나님은 지혜반 수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너무 명확하게 응답해 주셨기에 터어키 선교여행에 신청을 하게 되었다. ‘응답이 아닐 거야’라고 덮어두기엔 타이밍과 말씀이 마음에 너무 진하게 남아서 “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게요 저를 잘 아시는 아버지가 나머지도 알아서 준비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

지금은 COVID-19로 모든 일이 무산되고 수업마저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지만 나를 만나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마지막 수업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이끄심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어찌 보면 적용면에서, 아이들이 성인이 된 나에게 마더와이즈는 좀 늦은 감이 있을 거라 생각했었다.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았지만 수업을 마치고 보니 너무 유익했고 오히려 장성한 아이들을 둔 엄마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셨고 지금도 나는 가정을 가꾸고 가족 구성원들의 풍성한 영 과육을 책임지는 과제가 남아 있음을 알게 되었다.

부족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늘 도와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감탄문

마더와이즈

마더와이즈 지혜
한 마디 감탄문

- 김지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 박성혜 아내에게 엄마에게 가정을 세우고 남편의 돕는 배필이자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서은영 마음판에 새겨주신 완전한 율법으로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 이효미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 윤미영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임이래 마더와이즈를 통해 “자녀들을 위해서 굳건히 서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땅에 제가 심기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 정예진 내가 주인 된 삶에서 벗어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환란 가운데에서도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과 언약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 크리스틴
추 기쁨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 최윤숙 교회는 건물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우리 자신이 교회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흠어진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예배와 기도는 지속되었고 가족을 더욱 섬기는 마음과 더불어 어려운 이들을 살피고 돕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 최희주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 한여정 저는 상황에 따라 수없이 변하고 감정에 휘둘리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부족한 저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마더와이즈를 통해 또 한 번 저를 위로해주셨습니다.
- 홍수경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며 가장 소중한 공동체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근본적인 원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감탄문

마더와이즈

마더와이즈 자유
한 마디 감탄문

- | | |
|-----|--|
| 김경미 | 절반의 진실에 속지 말자! |
| 문현숙 | 제가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내리고 터를 잡게 해 주시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평온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
| 박윤진 | 육신에 대해 죽고 성령의 검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모든 것에서 자유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
| 손주영 | 나는 예수님의 자녀이며 친구입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
| 이사라 | 그대 이름은 자유~ 난 그대 안에 살리라! |
| 이수연 | 진리 안에서 나의 영혼에 날개를 달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
| 이향숙 |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
| 장정우 |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
| 정유진 |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
| 최정윤 |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
| 한리리 | <i>Jesus conquered the grave & corona virus!</i> |

감탄문

마더와이즈

마더와이즈 회복
한 마디 감탄문

- 강지영 최고의 사랑이신 주님을 경험케 해 주셔서 감사해요!
- 김세라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은 나의 것!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 김영미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사모하며 인내로 기다리는 온전한 신부 되기를...
할렐루야!!!
- 김혜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 박민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낙망이 아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서 영과 육의 회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박은혜 코로나19로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셔서 희망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박진희 나를 신부 삼아 주신 예수님~ 천국을 향한 소망을 품고 천국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경아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전지혜 예수님은 영원히 나의 참 신랑 되십니다.
- 정신애 “나는 예수님의 예비 신부가 아니라 이미 신부이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예수님이 날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며, 내가 무엇을 하며 예수님과의 결혼식을 기다려야 할지를 제 인생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셨음을 깨닫고 눈물이 마를새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 정지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유일한 피난처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 원은경 변함없는 완전하신 사랑과 긍휼로 저를 신부 삼아 주시고, 영원히 함께 살
신방을 준비하신 후 데리러 오실 가장 귀하신 나의 신랑 예수님,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합니다!
- 유지민 어떤 상황이라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Children Prayer

CHBC

Children Home
Bible Club
3/24/2020

With the government order of shelter-in-place in effect, children were given the unique opportunity to learn to pray through the Psalms alongside their moms who attend Hyangsoo. Children learned that they can and should go to God to pray and get wisdom, comfort and favor because they were all born to praise God. Moms and children alike had a blessed time reading and learning the same Scripture together. Praise God!

갑작스러운 shelter-in-place 명령으로 향수에 참여하는 어머니들은 자녀들과 함께 같은 시편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주님께 찬양드리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께 가서 기도할 때 그분의 지혜와 평강과 페이지를 받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같은 성경구절로 같은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배운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3/24/2020 Psalm 23 : Praying About Our Fears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Psalm 23:4)

- Chloe
1st grade

Dear God, I love you.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give us. Protect us from COVID-19. In Jesus’ name I pray. Amen.
- Christine
1st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this day, and please make the coronavirus go away. Amen.
- Philip Lee
1st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taking care of my family. Please help us to put our trust in you and keep us safe from COVID-19. In Jesus’ name I pray. Amen.
- Sean Lee
1st grade

God, make us not die of coronavirus, and don’t let Pastor Joyce die from cancer.
- Joshua Jin
2nd grade

Dear God, please let COVID-19 go away and help us to not be sick. I am glad you protected me from COVID-19. We will be healthy and praise your name. I hope the virus ends. In Jesus’ name. Amen.

Children Prayer

CHBC

Children Home
Bible Club
3/24/2020

Olivia Lee
2nd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being my God. As you know, many people are suffering from COVID-19 and other bad things. I know you are the God that I can trust. Please protect your people. I am here to listen to your words. May my faith and trust be with you. In Jesus' name. Amen.

Clara Jo
3rd grade

Dear God, please protect us from the virus and heal the others who have the virus. Please let us know you and your word and let us let you live in our hearts. In Jesus' name I pray. Amen.

Haerin Bang
3rd grade

Dear God, please make sure nobody will get sick. I am sorry for what I have done in front of you. I love you. Amen.

Katherine Jin
3rd grade

Dear God, I want to pray that you would protect those who are in the areas that have coronavirus. Heal those who have the coronavirus and are suffering. I believe you will keep us safe and healthy. In Jesus' name. Amen.

Arin Bang
4th grade

Dear God, I now know you are my light and my guide. Yes, you are my shepherd. I don't need anything else. I just want you. I always worry that our family would die or get crushed or get eaten... anything that involves dangerous and scary stuff, actually. Please protect my family and be our shepherd! Amen.

Eleanor
4th grade

Dear Lord,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that I am under your control, and please bring an end to the virus. In Jesus' name I pray. Amen.

Elliot Park
4th grade

Dear God, please help those who have COVID-19 and protect those who are not sick. Please forgive my sins. In Jesus' name I pray. Amen.

Hailey Lee
4th grade

God, please look after me and my family and let coronavirus go away. Please be my good shepherd. Lead me into safety ways and renew my life. Please save my grandparents and Pastor Joyce and also the people in China. In Jesus' name we pray. Amen.

Children Prayer

CHBC

Children Home
Bible Club
3/24/2020

Nalin Kim
4th grade

Dear Lord, please help those who need your help right now. Please also help those who are sick. In Jesus' name I pray. Amen.

Connor Shon
5th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this day and please protect humans from the coronavirus and let those who have the virus be cured. In Jesus' name I pray. Amen.

Leo Yoon
5th grade

Dear God, many people are poor, sick, and hungry. Lord, I want a place where everyone can live in peace. Please do that. In Jesus' name I pray. Amen

Sally Lee
5th grade

Many people are suffering from coronavirus. Please let us and them stay and be healthy, including Pastor Joyce. In Jesus' name. Amen.

Seohyun Lee
5th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this day and for everything in this world. I will remember that you love me and that you watch over me. I pray that we humans will find a cure for COVID-19 and stop the outbreak. Please help Pastor Joyce for she is still recovering from her surgery. In Jesus' name I pray. Amen.

3/31/2020 Psalm 6 : Praying For Our Tears

"I am exhausted and worn out with my weeping. I endure weary, sleepless nights filled with moaning, soaking my pillow with my tears." (Psalm 6:6)

Chloe
1st grade

Dear God, please heal pastor Joyce and all sick people because of COVID-19. In Jesus' name I pray. Amen.

Christine
1st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this day and please let the COVID-19 (Coronavirus) stop spreading. Please let Pastor Joyce be healthy. In Jesus' name we pray. Amen.

Jooeun Lee
1st grade

Dear God, please heal Pastor Joyce so she can teach us again about God. And I miss her a lot. In Jesus' name I pray. Amen.

Children Prayer

CHBC

Children Home
Bible Club
3/31/2020

Joshua Rho
1st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this food. I wish that the coronavirus would disappear. In Jesus' name, Amen.

Kayla Kim
1st grade

Dear God,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Please make the coronavirus go away. I believe you. In Jesus. Amen.

Philip Lee
1st grade

Dear God, please help Pastor Joyce to recover quickly! Please help Pastor Peter to not get stressed but stay healthy! In Jesus' name. Amen.

Sean Lee
1st grade

Dear God, don't let anyone in our family or friends die. Amen. Jesus, don't let coronavirus spread to our house. Amen.

Elise Yoon
2nd grade

Dear Lord God, please help Pastor Joyce feel better from her sickness. She needs complete, clean healing. We pray desperately for her health. Please help coronavirus to stop. Everybody is sick and I cannot go to school! Everybody wants it to stop. In your mighty name we pray. Amen.

Joshua Jin
2nd grade

Dear God, please let the COVID-19 end so pastor Joyce will be healed and so Pastor Joyce can praise you again. Let COVID-19 end so everybody will praise your name. In Jesus' name, Amen.

Olivia Lee
2nd grade

Dear God, as you know, my Sunday school teacher and Pastor Joyce are suffering from sickness. Please put your healing hand on them! May my grace and love be with you. As you know many people are hurt and have sickness. Please heal them, especially the people that have COVID-19. Also please take their sin from their hearts. In Jesus' name. Amen.

Clara Jo
3rd grade

Dear God, please let Pastor Joyce have full recovery and let all the sick ones be healed and the safe ones be safe. Please let us not be sick. In Jesus' name, amen.

Haerin Bang
3rd grade

Dear God, please help anyone who has coronavirus get well soon. I want Pastor Joyce back. Please have her be cleansed and be back. Amen.

Children Prayer

CHBC

Children Home
Bible Club
3/31/2020

Katherine Jin
3rd grade

Dear God. I pray that Pastor Joyce will be healed perfectly and also those who have the coronavirus. In Jesus' name. Amen.

Aiden Kim
4th grade

God, please help people believe in you and heal people from sickness. God, please help me trust in you more.

Allison Lee
4th grade

Dear God, please stop the COVID-19. Many people are dying and even more are getting it. You are the only one who can stop this virus. Please heal Pastor Joyce so that she can come back to church and teach us about the Bible. Please cleanse her. In Jesus' name I pray. Amen.

Arin Bang
4th grade

Dear God, please heal everyone in the world. COVID-19, Flu, any sickness. Heal it! In Jesus' name. Amen.

Eleanor
4th grade

Dear Lord, please put an end to the coronavirus and please put an end to it so everybody can go to work. Please bless us, and thank you for giving us sunny days and rainy days. In your name I pray, amen.

Elliot Park
4th grade

Dear God, please help grandpa and people who have COVID-19. Please make me faithful. In Jesus' name I pray, amen.

Hailey Lee
4th grade

Dear God. Let me have a wonderful faith like the centurion and please give me the boldness of David. Please watch over my family and heal all bruises. Let me not fiddle around worship with my friends! Please heal everyone with coronavirus or any type of virus. Let us not trust other things. Let me be honest to tell my sadness and be honest like what David prays about. Please let my grandparents and pastor Joyce be healed. In Jesus' name, we pray. Amen!

Nalin Kim
4th grade

Dear God, please help Pastor Joyce to be healed. You have helped her until now. Please continue to heal her. Please help all the sick people because of COVID-19. Please help no one else to get infected by it.

Children Prayer

CHBC

Children Home
Bible Club
3/31/2020

Connor Shon
5th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healing me when I was sick. Please heal all the people who have the coronavirus. In Jesus' name I pray. Amen.

Leo Yoon
5th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this day. Please make sure Pastor Joyce gets complete, full healing. Even though there is COVID-19, make sure she gets healed. COVID-19 is killing people and separating families and friends. Lord, please stop the virus and please make a vaccine for it by helping those people. In Jesus' name I pray. Amen.

Sally Lee
5th grade

Dear God, let me have faith like the centurion. Let me also not be racist or discriminate against certain types of people. Please let the coronavirus be gone and please heal the people who are affected by it. In Jesus name, amen.

Seohyun Lee
5th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this day, and all you have done for us. Please help us find a cure for COVID-19 where over 3000 people have died and many more have been infected. Please heal Pastor Joyce completely so that she would be able to come back to NVC. Please help teach everyone around the world to learn about your Word. Please strengthen our faith so that we could trust in you more. In Jesus' name I pray. Amen.

4/14/2020 Psalm 73 : Praying For Our Doubts

“And they say, ‘How can God know? Is there knowledge in the Most High?’ But when I thought how to understand this, it seemed to me a wearisome task, until I went into the sanctuary of God; then I discerned their end.” (Psalms 73:11, 16-17)

Chloe
1st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this day. Thank you for giving blessings to me. In Jesus' name I pray. Amen.

Christine
1st grade

Dear God, I love you. Thank you for the day, and please let the COVID-19 stop spreading. In Jesus' name I pray. Amen.

Children Prayer

CHBC

Children Home
Bible Club
4/14/2020

Grace Ahn
[1st grade](#)

Dear God, when I feel like the psalmist, please help me. I want to always listen to you. Thank God.

Kayla Kim
[1st grade](#)

Dear God, thank you. Please make Alyssa come back. Amen.

Jooeun Lee
[1st grade](#)

Dear God, please help us stop this coronavirus and please heal the people that have coronavirus. Heal Pastor Joyce and help Pastor Joyce to not get the coronavirus. Please help my dad get a permanent job.

Joshua Roh
[1st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this food and thank you for creating us. In Jesus' name, amen.

Philip Lee
[1st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keeping me safe. Thank you for washing my sins away. I pray in Jesus' name. Amen.

Sean Lee
[1st grade](#)

Thank you so much for teaching me today is like the best day in my life, because it is my best day of life. Amen.

Elie Yoon
[2nd grade](#)

Dear Heavenly Father, please help me trust in you more. I want to be closer to you. Please make me come quickly in prayer to you if I feel sad. Guide me and give me strength and wisdom from you. In your mighty name I pray. Amen.

Joshua Jin
[2nd grade](#)

Dear God, let COVID-19 end so Pastor Joyce could come and praise you. In Jesus' name. Amen.

Olivia Lee
[2nd grade](#)

Please help me be closer to you. Also, I ask for your guidance and wisdom. Thank you for always listening to me no matter what I feel. May my faith be with you. In Jesus' mighty name, amen.

Clara Jo
[3rd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teaching me your Word. Please forgive me for the times I sinned. Please help me to be closer to you and to pray to you and also worship you often. Please give me wisdom. In Jesus' name I pray. Amen.

Children Prayer

CHBC

Children Home
Bible Club
4/14/2020

Herin Bang
3rd grade

God, I want everything to come back to normal. I want to see Ana, Lily, and Teresa. Please help Pastor Joyce too. Amen.

Katherine Jin
3rd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always being beside me when I feel doubtful, sad, or disappointed. Give me wisdom so I can have more trust and faith in You. I want to be closer to you. I pray that I can feel comfort in you. In Jesus' name. Amen.

Nathan Kim
3rd grade

Dear God, there is a new virus called COVID-19 and we need to find the medicine and a lot of people are trying to find the medicine. Please help them. Amen.

Aiden Kim
4th grade

God, thank you for helping me. Please help me feel better when I'm sad. Please give me wisdom; I want to be closer to you. Amen.

Allison Lee
4th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everything. Please help Pastor Joyce to not get the coronavirus. Please end the COVID-19. Thank you, In Jesus' name I pray. Amen.

Arin Bang
4th grade

God, why are you giving me such a hard life, why is this world like this... Please help me understand, Lord, I know you can. I've learned to trust you but why is this happening? Please help me Lord, I know you can...it's hard, my God, I know there are many ups and downs...I know it, I've experienced it and I've seen it...Please help me Lord!! Amen.

Eleanor
4th grade

Dear Lord, thank you so very much for blessing us with great food and water sources while we all are in quarantine. Please be with the people with COVID-19, and please let the virus be over. In Jesus' name we pray. Amen.

Elliot Park
4th grade

Thank you for always listening to me. Please quickly come to me in prayer. Give me guidance and wisdom. I want to be closer to you. In Jesus' name I pray, Amen.

Children Prayer

CHBC

Children Home
Bible Club
4/14/2020

Hailey Lee
4th grade

Dear God, let us know you more because you died for us. Please give us purity in our heart and let us know your comfort and peace. Let your verses help us grow. And even when we (I) get mad, please let me know that no matter what, you're always with us. In Jesus' name we pray. Amen!

Nalin Kim
4th grade

Dear Lord, thank you for being there for me. I pray that you will help me when I have negative feelings. Please guide me into wisdom and help me to be closer to you. Please help me to know you are always there. Amen.

Nayul Lee
4th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listening to me no matter how I feel. Please help me to come to you when I feel bad. Please give me your guidance and wisdom. I really want to get closer to you. Please help me handle this tragic world. Please help me feel more close to you. Let me be a better believer. In Jesus' mighty name. Amen.

Connor Shon
5th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always listening to me no matter how I feel. Please help me pray to you when I feel negative feelings. Please help me get closer to you. In Jesus' name I pray. Amen.

Leo Yoon
5th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listening to me even if I was mad. Help me come to you when I feel negativity. I ask for your guidance. I want to be closer to you. In Jesus' name I pray. Amen.

Sally Lee
5th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letting me still breathe and write this prayer. I learned that even when I'm mad, I should remember that you are good and in control. Let me be slow to anger, and courageous so that I may preach the good news about Jesus'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to people. I love you and in Jesus' name, amen.

Children Prayer

CHBC

Children Home
Bible Club
4/14/2020

Seohyun Lee
5th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this day, and everything you have done for us. Thank you for listening to us imperfect beings and all the time. Help us come to you first when we are feeling downhearted and feeling like we are losing you. Please give u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to learn about your word, to be closer to you. COVID-19 is still going on with no cure. Please let us find a vaccine to help us finally get together to learn about your Word. Please help Pastor Joyce recover faster so she could teach us your Word.
In Jesus' name I pray. Amen.

4/21/2020 Psalm 90 : Praying About Our Deaths

“So teach us to number our days that we may get a heart of wisdom. Let the favor of the Lord our God be upon us.” (Psalm 90:12, 17b)

Chloe
1st grade

Dear God, Please let COVID-19 go away. Save the homeless. You are powerful so please heal people too.
In Jesus' name I pray. Amen.

Christine Kim
1st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this day, thank you for everything in the world, and please make the COVID-19 stop spreading. In Jesus' name I pray. Amen.

Jooeun Lee
1st grade

Dear God, please help us stop the COVID-19 virus and please help other people from the virus.
In Jesus' name we pray, Amen.

Joshua Roh
1st grade

Thank you God for this food and I wish that the coronavirus would disappear. In Jesus' name, amen.

Kayla Kim
1st grade

Dear God, thank you so much for protecting me from the coronavirus. Please make the coronavirus end soon.

Sean Lee
1st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dying for my sins. Amen.

Children Prayer

CHBC

Children Home
Bible Club
4/21/2020

Elise Yoon
2nd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sending Jesus who died and rose again so I can have a joyful life. Please give me wisdom on how I can spend my time wisely. Remind me to live in fear of you. Please bless me and give me favor on whatever I do. In Jesus' name we pray, Amen.

Olivia Lee
2nd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sending your only son Jesus who died and rose again for me so I can have a joyful life. Please give me your wisdom of how I can use my time wisely. Also, please remind me to live in fear of God. May you bless me and give your favor on whatever I do. In Jesus' name. Amen.

Aiden Kim
3rd grade

God, thank you for sending Jesus to save me. Please give me wisdom to spend my time wisely. Please remind me to fear you. Please give me favor in whatever I do. Amen.

Clara Jo
3rd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your Word. Please let me not think that death is scary. Please let me think about living in fear of God. God. Please give me blessings and wisdom. In Jesus' name I pray, Amen.

Haerin Bang
3rd grade

Dear God, please help all the people who have hard times. I have the same prayers every time: help Pastor Joyce with her surgery and I want to give my mom a good birthday. During the COVID-19, I don't have many ideas. Love, Haerin.

Katherine Jin
3rd grade

Thank you God for sending Jesus who died and rose again to save us from our sins. I pray that I can live in fear of God. I pray that God would bless me and help me to spend my time wisely. In Jesus' name I pray. Amen.

Nathan Kim
3rd grade

Dear God, please help us end this COVID-19 virus that is spreading in the world. It is a very serious issue, so please help us get better. Amen.

Allison Lee
4th grade

Dear God, help us in this hard time. Let me have a great week. Help everyone who got COVID-19. Thank you. In Jesus' mighty name I pray. Amen.

Children Prayer

CHBC

Children Home
Bible Club
4/21/2020

Elliot Park
4th grade

Dear God, I thank you for dying on the cross for me. Remind me to fear you. Bless me. Give me wisdom. Help Pastor Joyce. Amen.

Hailey Lee
4th grade

God, let us know in bad or good consequences that you are good, and you will always be with us. Please provide and watch over us. Let me focus on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Nalin Kim
4th grade

Dear Lord, I pray that we will be thankful for our time on earth and I also pray that we will use our time wisely. Please help us to fear you. Please bless me and give me favor. Amen.

Connor Shon
5th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sending Jesus who saved us from our sins. Please give me wisdom. Please remind me to live in fear of you. In Jesus' name I pray. Amen.

Leo Yoon
5th grade

God, today I learned, to you, our life is just a flower. Blooming in the morning and withering in the night. But because you sent Jesus, we can have eternal life. Help me have fear in you and spend my life wisely. In Jesus' name I pray. Amen.

Sally Lee
5th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sending Jesus to die for our sins. Please send the Holy Spirit to me so that I can have wisdom and spend my time here on earth wisely. Help me also to live in fear of you always. Lastly, help me be satisfied in all I do. In Jesus' name, amen.

Seohyun Lee
5th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this day, and letting me live another 24 hours. Thank you for sending Jesus, the Lamb of God, to face the greatest sacrifice, death, so that we are able to go to your kingdom. Please help me use my time wisely so I can avoid foolish things and do things that are worth it. Help remind me that I live in fear of you and with respect for you. Please bless us and give us favor on whatever we do. In Jesus' name I pray, Amen.

Children Prayer

CHBC

Children Home
Bible Club
4/28/2020

4/28/2020

Psalm 150 : Praying Our Praise

“Let everything that has the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salm 150:6)

Chloe

1st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this beautiful day.

You are the King of everything. Help COVID-19 go away. Help Pastor Joyce recover soon. In Jesus’ name I pray. Amen.

Christine Kim

1st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this day, and please help the

coronavirus to stop spreading. In Jesus’ name I pray. Amen.

Grace Kim

1st grade

Praise the Lord, because God is faithful and almighty and because God saved us and loved us.

We pray in Jesus’ name. Amen.

Jooeun Lee

1st grade

Dear God, please heal Pastor Joyce. Please help stop the COVID-19 and help people who have COVID-19. Help Pastor Joyce to not get COVID-19. In Jesus’ name we pray. Amen.

Joshua Jin

1st grade

Dear God, let everything that breathes praise you so that we will know you. Let COVID-19 end. Help Pastor Joyce to feel better so Pastor Joyce can praise you again. I will praise you with the piano. In Jesus’ name, amen.

Joshua Roh

1st grade

God, I like you and thank you for our food. In Jesus’ name, amen.

Kayla Kim

1st grade

Dear God, please make the coronavirus end. Amen.

Sean Lee

1st grade

God, help us to make right choices and spread the news. Amen.

Ian Shin

2nd grade

Thank you, God, for sending Jesus to die for our sins and for everything you gave me-health, family, forgiveness of sin and so much more. Thank you God for your love. Thank you God for loving me and helping me to be effective and successful in showing God’s work in my life. I must obey God’s word in my life. I must obey God’s word and always be humble and cling to Jesus for wisdom. Thank you and I pray this in the holy name of Jesus.

Children Prayer

CHBC

Children Home
Bible Club
4/28/2020

Olivia Lee
2nd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your mighty power and faithfulness. Please help me not to get distracted by my surroundings but praise you. Please put your healing hand on Pastor Joyce and please teach me to worship you in a way that honors you. In Jesus' mighty name, amen.

Clara Jo
3rd grade

Dear God, please help me to not be afraid to worship you anywhere. Please let Pastor Joyce get healthy to come to church after the COVID-19, so we can praise all together. In Jesus' name I pray. Amen.

Haerin Bang
3rd grade
Katherine Jin
3rd grade

Dear God, you know what I have for prayer. Help everyone.
Dear God, thank you for the time You taught me who You are and what you did for me. I ask to heal Pastor Joyce so she will be healthy again. I am sorry for the times that I thought that worship was not important. Thank you for your mighty power and faithfulness. And thank you for loving me. I ask you to teach me a way to honor you and please you. In Jesus' name, amen.

Nathan Kim
3rd grade

Dear God, we all should be thankful for you since you gave us eternal life. You always gave us a choice. You never force us to do stuff. Thank you. Amen.

Aiden Kim
4th grade

God, you are powerful and almighty. Thank you for what you did for me. Please forgive my sins. Please teach me to worship you better. Please heal Pastor Joyce. In Jesus' name we pray. Amen.

Airin Bang
4th grade

God, I love you, but sometimes you might wonder if I actually love you. I don't like to hear that thing but I'm good at praising. I'm sorry. Please heal Pastor Joyce. I'm sorry. I'll do my best. I am very sorry.

Allison Lee
4th grade

Dear God, help us in this time to praise you and lift up your name. In Jesus' name I pray. Amen.

Children Prayer

CHBC

Children Home
Bible Club
4/28/2020

Hailey Lee
4th grade

Dear God, let us know your mighty works and name. Please watch over our family and no matter what consequences there are, let us know you will never ever leave us. Also, please let us know we don't have to be ashamed of being Christian and let us know to always rejoice. Amen.

Nalin Kim
4th grade

Dear Lord,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gave me. I'm sorry for every wrong I've done. Please heal Pastor Joyce. Amen.

Connor Shon
5th grade

Dear God, I praise you for your mighty power. Thank you for giving me eternal life in heaven. Please teach me how I can worship you in a way that honors you. Please help Pastor Joyce get well soon. In Jesus' name I pray. Amen.

Leo Yoon
5th grade

Dear God, I praise you for your power and faithfulness. I thank you for giving me eternal life. I confess I do not worship you because I did not think it was important. I pray that you teach me to worship you and Pastor Joyce's healing and recovery. In Jesus' name I pray. Amen.

Sally Lee
5th grade

Thank you God for letting me breathe this moment. Let me be more brave to praise you in front of others. You are holy, and should be worshiped every second. Please let all the people who are sick now be healed including Pastor Joyce. In Jesus' name, amen.

Seohyun Lee
5th grade

Dear God, thank you for this day and everything you have done for us. We praise you for your mighty power and faithfulness. Thank you for teaching me that you sent your son Jesus Christ to die on the cross to save us from our sins, as the greatest sacrifice. Thank you for giving us a chance to go to the Promised Land, and also giving us the Holy Spirit to help us tell others of your world. Please teach me how to worship you in ways that honor you. Please help Pastor Joyce's recovery so that she can return to preach your Word. Please stop this COVID-19 pandemic, for it is killing many people. In Jesus' name I pray. Amen.

Children Prayer

CHBC

Children Home
Bible Club

Praying for Refugees in Turkey

“Truly, I say to you, as you did it to one of the least of these my brothers, you did it to me.” (Matthew 25:40)

Katherine Jin
3rd grade

하나님, 시리아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병들고, 죽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슬퍼하고 있는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세요. 시리아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도네이션 하는 것을 받고 그 사람들이 위로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Arin Bang
4th grade

터키에 있는 난민들 소식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많이는 못하지만 도네이션도 하고 싶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뭐든지 최선을 다할게요. 정말 시리아 난민 친구들을 돕고 싶어요.
Thank you God for giving us a chance to hear about the Syrian refugees in Turkey. I want to help them, even though it's little. I will do anything, as long as you're pleased.
In Jesus' name, amen.

Elliot Park
4th grade

Help the refugees in Turkey. Help them have faith in you. Help them know that you care about them. In Jesus' name, amen.

Seohyun Lee
5th grade

Dear God, There are people in Syria who are being forced out of their houses with no food or money. Because of this, they are going all the way to Turkey to have a chance to survive. They cannot afford to stay in a house, so please help the refugees stay safe and more importantly, learn about your Word, so they can have a chance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Some of these people cannot afford to even take care of their children, so they are hoping that other people will take care of them kindly and gently while teaching them about your Word. Please bless the people who do, for they are the people who are helping their neighbors, like the Good Samaritan. Please help the poor people survive and please teach them the good news so that they can live forever in your kingdom. In Jesus' name I pray. Amen.

